

碩士學位論文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濟州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姜 順 元

2006年 6月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指導教授 金 東 柱

姜 順 元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姜順元の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인

委 員_____인

委 員_____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6月

Jeju-Do stationing by Japanese army and military
installation during the Pacific War

Kang Sun-Wo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The Abstract

| | |
|---------------------------------|-----|
| I. 머리말 | 1 |
| II. 일본군의 제주도 주둔 배경 | 5 |
| 1. 태평양전쟁과 제주도의 전략적 위치 | 5 |
| 2. 「결7호작전」의 개요와 준비상황 | 8 |
| III.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편제와 병력배치 | 14 |
| 1.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편제와 전력 | 14 |
| 2. 시기별 「결7호작전」 준비와 병력배치 | 23 |
| IV.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 61 |
| 1. 방어진지 | 61 |
| 2. 육·해군 비행장 | 79 |
| 3. 해군 특공기지 | 85 |
| 4. 군사시설 구축과 강제동원 | 88 |
| V. 맺음말 | 96 |
| 참고문헌 | 100 |

표 목차

| | |
|---|----|
| <표 1> 제주도 주둔 일본군 현황(1945. 8. 15. 기준) | 17 |
| <표 2> 일본 및 제주도 결전지역별 전력밀도표(1945. 6. 15. 전후) | 20 |
| <표 3> 제3차병비와 종전 직전 화력 비교 | 21 |
| <표 4> 일본군 사단편제 비교(제96사단, 제111사단) | 26 |
| <표 5> 일본군 사단 유형별 화력비교(제96사단, 제111사단) | 27 |
| <표 6>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 현황 | 29 |
| <표 7>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동향 | 37 |
| <표 8> 일본군 사단편제 비교(제121사단) | 40 |
| <표 9> 일본군 사단 유형별 화력비교(제121사단) | 41 |
| <표 10>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현황 | 42 |
| <표 11>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동향 | 45 |
| <표 12>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현황 | 50 |
| <표 13>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동향 | 55 |
| <표 14> 일본군 사단 진지구축 공정표 | 63 |
| <표 15> 『결7호작전』을 위한 제주도 내 일본군 방어진지 | 65 |
| <표 16> 서남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 66 |
| <표 17> 서남부지역 전진거점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 67 |
| <표 18> 서남부지역 위장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 67 |
| <표 19> 서남부지역 복곽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 68 |
| <표 20> 제주도 서북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 | 69 |
| <표 21> 제주도 서북부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 70 |
| <표 22> 제주도 서북부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 70 |
| <표 23> 제주도 서북부지역 복곽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 70 |
| <표 24> 제주도 중앙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 72 |
| <표 25> 제주도 중앙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 72 |
| <표 26> 제주도 중앙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 73 |
| <표 27> 제주도 중앙지역 복곽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 73 |

| | |
|---|----|
| <표 28> 제주도 동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 (독립혼성제108여단작전지역) | 75 |
| <표 29> 제주도 동부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 75 |
| <표 30> 제주도 동부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 75 |
| <표 31> 해군비행장(알뜨르) 건설계획과 진척상황(1944. 10.) | 81 |
| <표 32> 교래리에 계획한 육군 비밀비행장 구상(1945. 6. 14.) | 84 |
| <표 33> 일본 해군특공선(船) 은닉을 위한 진지 공사 상황(1945. 5. 19.) ... | 85 |
| <표 34> 일본 해군특공대 회천대(回天隊)기지 구축 표준표 | 86 |
| <표 35> 연령대별 강제동원 현황 | 89 |

도 목차

| | |
|---|----|
| <도 1> 제주도 주둔 일본군 편제도(1945. 8. 15. 기준) | 15 |
| <도 2> 「결7호작전」을 위한 제58군 전투서열(1945. 4. 15.) | 24 |
| <도 3>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 38 |
| <도 4>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 49 |

지도 목차

| | |
|---|----|
| <지도 1>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배치도 (1945. 4. 15~5. 20.) | 33 |
| <지도 2>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배치도 (1945. 6. 15. 전후) | 47 |
| <지도 3>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배치도 (1945. 8. 15. 기준) | 57 |
| <지도 4> 제주도 주둔 일본군 진지구축 현황(1945. 6. 15. 전후) | 77 |

The Abstract

The Pacific War began in December 10, 1941 and ended in August 8, 1945. A sudden attack on Pearl Harbor by Japanese army triggered this war. The war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s lasted for 3 years and 9 months. The just cause of Japan in this war was construction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tanding against the imperialism of the West.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Japan faced the crisis of a defeat. They we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part of advocating war asserted an Armageddon till the last.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es asserted the negotiation for the end of the war. At last, set in April of 1945, the Cabinet of Suzuki Kantaro faced the situation had to lead the end of the war regulating the opinions of two parts.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hich was ready in Jeju island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means the clash between the West and the newly rising imperialism of Japan in such background.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fortress of Japanese army which was construct in several places in Jeju island for the Decisive Operation No. 7 in the end of the Pacific War. Also, it examines that the Japanese army corresponds to one third of the Jeju population prepare what and how to do, and its influence on Jeju society.

In those days of the Pacific War, Jeju island was an important point for USA army to approach to Japan proper. At that time, the commodity supply from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Pacific to Japan was cut. Jeju island was the key position in order to procure the Straits of Korea which was an only supply route for Japan. Therefore, Japan constructed the operations for mainland in 7 lines. Jeju island was set only position except the Japan proper.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as formed at the midnight of April 15, 1945. Its charge was the 58th Japan Army. In the early days of the preparation for the operation, the main-force units were the 96th division, the 111th division and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At the same

time, the construction of a defensive position, a special attack position and an airfield was progressed tensely at many Oreums about 100 in Jeju island.

In the early days of the preparation for the operation, the 111th division formed main position in the western area in Jeju. In Jeju City and Seogwipo City, the 96th division and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constructed a preparatory attack position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area. Also, the 96th division and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had jurisdiction the east area in Jeju as a mobile attack position.

In mid-June, 1945, when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as progressed to a degree, there came to a crisis of fall in Okinawa. The 121th division was built up the military strength. At the same time, there was some change in the assignment. A crack contingent of the 121th division and the 111th division took the line of defense in the west area of Jeju island dividing into north and south part. Jeju city and Seogwipo city as a central part of Jeju took charge of the 96th division. The 108th independent mixture brigade undertook the east area.

From the fall of Okinawa-June 25th, 1945 to the end of the war-August 15th, 1945, Japan kept the former line of defense. However, they prepared the most decisive battle building up troops in the west-southern area. The number of Japanese army for the accomplishing of the Decisive Operation No. 7 in Jeju was close to 75,000. The number corresponded to the 32.6% of Jeju population. At that time, the Jeju population was about 23 hundred thousands.

In addition to, Japanese army constructed 105 fortresses in all parts of Jeju. There were 56 main resistance positions, 17 advance bases, 21 camouflage positions, and 11 retrench positions, and so on.

In that process, there was an extensive labor mobilization of Jeju People. Mainly, they mobilized to the building of an airfield and its extension work, construction of a defense positions, and an establishment of roads. Also, they delivered much food and many goods such as a barley, a sweet potato and a cow.

In the crash between the West and newly Japanese imperialism, Japan came to a crisis of a defeat. The Decisive Operation No. 7, progressed from the early 1945 to the end of the war—August 15th, 1945, was the strategy to obtain advantageous terms of Japan at the end of the war. At the battle of Okinawa, Japanese army was completely destroyed and the more civilian victimized. Likewise, the Decisive Operation No. 7 was a preparation to a decisive battle presupposed a large-scale victim of Japanese army in Jeju but also Jeju People for the safety of Japan and their advantageous negotiation at the end of the war.

I. 머리말

태평양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시작되어 1945년 8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일본과 연합국¹⁾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제2차세계대전의 일부로 일본과 미국·영국 등 연합국 사이에 일어난 태평양전쟁은 인근 약소국과 그 민족에 대해 일으킨 제국주의 침략전쟁, 러일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중국과 태평양지역에서의 미·일간 제국주의적 세력다툼에 따른 전쟁, 소련에 대한 방공블록의 구축 등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성격 속에 진행된 태평양전쟁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는 일본의 외형적 명분과 그 속에 감춰진 제국주의적 내용들이 전쟁 말기 제주도에서 『결7호작전(決7號作戰)』이란 압축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군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주둔했던 기간은 1945년 초~8월까지 1년여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 일본군에 의해 제주도에서 진행된 일들은 인문적, 지리적으로 제주사회를 크게 뒤바뀌 놓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즉, 전쟁준비를 위한 비행장 등 군사시설, 군용도로의 개설, 토지 등의 강제 수용, 강제징병과 노무동원, 식량 등의 보급을 위한 공출, 상륙방어전에 대비한 주민소개와 전투태세 구축, 주민 통제와 교육, 일본군과 주민간 교류 등은 제주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급격한 충격과 고통, 그리고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후, 토지 강제수용과 징병, 노무동원, 공출에 따른 주민 간 또는 국가기관과의 갈등구조 형성, 생활전반에 걸친 강제적 일본문화 유입 등으로 제주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강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군용비행장과 한라산 중턱까지 이뤄진 교통망 구축, 식량보급과 주민동원 또는 통제 등을 위한 생산력 및 교육시설의 확충 등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변동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의해 갖춰진 군사시설과 잔존무기 등이 제주도 현대사의 비극, 4:3으로 이어지는 연관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 거시적으로는 탐라국의 한국 본토 편입 이후 변방의 섬으로 위치 지워졌던 제주도와 제주도 주민들의 일본 및 일본군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에 대해

1) 연합국은 중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이며 말기에 소련이 참전하였다.

서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결7호작전」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일제 강점 하 제주사회는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향후 제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후 해방공간과 4·3으로 이어지는 제주도 현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태평양전쟁 종전 시 「결7호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은 당시 제주도 인구 23만여 명의 32.6%인 7만5,000여 명에 달했다. 제58군사령부를 필두로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등 3개 사단, 1개 혼성여단을 주력으로 한 일본군은 제주도 전역에 배치되어 요새구축 등 미군과의 일전을 준비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오름과 해안 100여개소에 각종 진지를 포함한 요새들이 집단적으로 구축됐다. 또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에 해군비행장, 제주시 정뜨르에 육군서비행장, 조천읍 진뜨르에 육군동비행장, 조천읍 교래리에 비밀비행장도 건설된다. 1945년 4월 15일 0시를 기해 편성된 제58군 전투서열에 따라 4월 중순부터 관련부대들이 속속 제주도로 진출하고, 「결7호작전」 구상에 따른 부대 배치와 진지 구축작업 등이 진행된다.

본고는 우선 2장에서 제주도가 태평양전쟁에서 가졌던 전략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가 「결7호작전」 지역으로 설정된 배경을 알아본다.²⁾ 3장에서는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로 진출하는 일본군 현황, 주요 화기 등 전력을 살펴본다. 또 전황에 따른 「결7호작전」 준비의 변화와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전투서열이 정해지는 초기의 작전과 배치, 해안결전과 내륙 지구전을 놓고 이견이 거듭되는 제3차병비 시기의 전략과 배치, 오키나와가 함락됨으로써 절망적 패전의 분위기 속에 강요되는 특공작전 전략 등을 시기별로 정리한다. 4장에서는 일본군 시설로서, 미군의 상륙작전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진지, 육·해군비행장, 해군특공기지 등을 살펴본다. 일본군의 방어진지 구축에는 제주도 주민을 포함한 조선인 징병 및 강제동원이 광범위하게 행

2) 본고는 「機密作戰日誌」, 「조선군개요사」,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를 기초자료로, 주민들의 증언, 관련 논문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기밀작전일지」 등 일본 측 자료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일제전적지 조사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며, 증언 대부분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일제전적지 조사 기술팀'과 제주도동굴연구소의 채록내용을 참고하였다. 특히 일본측 인용 자료들 중 많은 부분은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귀중한 것들로 본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일본 고치(高知)현 문화재단의 데하라(出原惠三) 선생도 관련 자료를 보내주는 등 도움을 주셨다. 본 논문을 위해 흔쾌히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해 주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동굴연구소, 츠카사키 마사유키 선생, 그리고 데하라 선생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해졌다. 이러한 강제동원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구축과 더불어 간략하게 살펴본다. 5장에서는 맺음말을 통해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실체와 성격에 대해 정리한다.

현재까지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는 일본인 전쟁유적연구가 츠키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의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³⁾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츠키사키는 『조선군개요사』를 기초로, 조선군의 전시 중 자료인 『기밀작전일지(機密作戰日誌)』⁴⁾, 일본 해군 『인도목록』 등의 분석을 통해 일본군에 의한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 준비의 전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7호작전」을 준비하는 일본군의 움직임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주백은 2003년 발표한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⁵⁾를 통해 한반도 전체적인 '본토결전' 준비 상황 속에서 제주도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자료정리 성격의 기록으로는 1989년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가 해설한 『조선군개요사(朝鮮軍概要史)』⁶⁾가 최초일 것 같다. 이 책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에 의해 전후(戰後)에 정리된 것인데, 그 부록(附錄)으로 「조선에서의 전쟁준비」(일본국 조선군 잔무정리부, 1946. 2.),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일본국 제1복원국, 1946. 10.)에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병력, 전투서열 등의 전투준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들의 제주도 진출 및 배치현황과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1989년 임종국이 『일본군의 조선침략사』⁷⁾에서 「제주에서의 결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서 출판되기 전 미공개 상태의 『조선군개요사』 등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2000년 발간한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⁸⁾ 「주한미육군

-
- 3) 츠키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청구학술논문집』 제22집,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 2003. 3. 이 논문은 제주4·3연구소에서 번역, 「4·3과 역사」 제4호에 실고 있다.
- 4) 일본방위연구소도서관, 『만주·조선·65~68 기밀작전일지(을철)』, 육군의 작전명령은 갑·을·병·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갑은 작전, 을은 정보, 병은 후방, 정은 병참에 관한 것이다.
- 5)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제49호, 역사비평사, 2003.
- 6)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군개요사』, 불이출판, 1989.
- 7)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2, 일월서각, 1989.
- 8)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 제주도, 2000.

사령부 : 주간정보 요약」과 「주한미육군사령부 : 정보일지」에는 1945년 9월 9일~11월 25일까지의 종전 후 일본군 철수 병력 및 무장해제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58군 방어진지도」와 「제58군 주둔진지도」 등도 첨부되어 있어 종전 전후 일본군 병력, 무장상황, 배치현황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주도에서는 2003년,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까지 '근대'를 상징하는 건축물과 일본군 군사시설 등을 조사·정리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⁹⁾ 제주도 주둔 일본군에 대해 원로 향토사학자들도 일부 서술하고 있다. 김봉옥은 『증보 제주통사』¹⁰⁾에서 다급해진 전쟁 상황과 「결7호작전」에 따른 병력투입 현황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병행한 행정력의 보강, 징병과 노무동원, 공출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용후는 『최남의 항도 모슬포』¹¹⁾에서 중일전쟁기 도항폭격기지로서 모슬포의 해군비행장 건설과 강제동원, 군사시설에 대해 서술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군 지하시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제주도동굴연구소는 세미나, 보고서 등을 통해 그동안 조사해 온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 2004년 11월부터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조사단을 구성해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친 장기계획으로 '제주도 일본군진지동굴과 요새 조사'를 진행 중이다.¹²⁾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와 한라일보는 2005년 10월부터 공동으로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한 집중탐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유적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본토 군사시설과 비교조사 작업, 학술토론 등도 진행하고 있다.¹³⁾

이밖에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¹⁴⁾ 제주4·3연구소,¹⁵⁾ 제민일보¹⁶⁾ 등은 조선군 개요사, 『미군정보고서』, 증언 등을 인용, 일본군 배치 현황, 강제공출 및 동원, 미군 공습피해 등의 문제들을 다뤘다.

9)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2003.

10)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11) 박용후, 『최남의 항도 모슬포』, 제주문화, 1990.

12) 2004년 8월 2일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요새)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 세미나 다수.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1, 2005. 『남제주군서부지역 일본군진지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2005.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구조적·유형과 병력』, 『동굴연구』 제3호, 2004. 등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3) 2005년 12월 일본의 '진상규명 네트워크'와 공동워크숍을 가진데 이어, 2006년 2월에는 「일제하 제주도내 일본군 전적지의 연구방향과 과제」와 「제주도내 일본군 전적지 조사연구」등의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4)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15)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2, 한울, 1989.

16)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II. 일본군의 제주도 주둔 배경

1. 태평양전쟁과 제주도의 전략적 위치

제주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함으로써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 받아왔다. 13세기에는 몽골족이 세운 원(元)이 제주도를 점령, 100년 가까이 지배하면서 일본과 남송(南宋) 정벌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원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제주도를 발판 삼아 일본을 공격했다.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후 제주도 방위는 울릉도와 함께 해군 담당으로서, 사세보 진주후(佐世保 鎮守府)¹⁷⁾의 관할로 되었다. 1916년에는 사세보 진주후 예하로 한반도 연해의 경비작전을 담당하는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가 설치되면서 그 관할 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주도의 방위병력은 동북부의 성산포와 남단의 마라도에 약간 명이 배치되었을 뿐으로 일본군의 관심 밖 장소였다.

제주도가 전략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7년 8월 중순부터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을 계기로 중국 북부에서 시작된 중일전쟁은 1937년 8월에 들어서자 중국 중부까지 확대되면서 중일 전면전으로 전개된다. 1937년 8월 13일 전투가 화중(華中)지역으로 확대되자 일본은 육군 2개 사단의 상하이 증파를 결정한다. 동시에 일본 해군도 1937년 8월 15일부터 최신형으로 항속거리가 뛰어난 제96식 육상공격기를 이용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南京)에 대한 폭격을 개시했다. 이어 1937년 8월 23일부터는 화남(華南)지구 광둥(廣東)·장저우(漳州)에 대한 폭격전을 전개한다.¹⁸⁾ 최초로 일본 항공기들은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오오무라(大村) 항공기지에서 출격했지만, 그 귀환하는 장소는 제주도 항공기지였다. 그 당시의 일본 본토에서 중국 중부에 가장 가까운 장소가 제주도였기 때문이다. 난징(南京)~제주도는 약 700 km 이었다. 이후 상하이 함락 이전까지 난징, 상하이 등지에 대한 해양폭격 거점은 제주도로 옮겨졌다. 제주도가 중일전쟁에서 지상전을 지원하는 폭격기로서로서의 제한된 전략적 위치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17) 사세보 진주후(佐世保 鎮守府)는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키현(長崎縣) 북부에 있는 항만도시 태평양전쟁 시 중요한 일본의 해군기지였다.

18) 임종국, 같은 책, 93쪽.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44년 중반이다. 1944년 봄부터 미군 잠수함이 일본근해에 빈번히 출몰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송선 침몰이 이어지고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으로부터 물자수송이 곤란해진 일본에 있어 대륙으로부터의 물자확보는 점점 더 중요해졌다. 특히 중국대륙과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조선해협 확보가 핵심적 과제로 등장했다. 잠수함 침투에 대한 연안감시 강화와 더불어 기습상륙 및 연안포격 등의 교란작전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4년 7월, 사이판 함락으로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본토가 미군기의 공습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미군의 본토상륙에 대한 방어준비가 시작되었다.¹⁹⁾ 이때 일본은 미군의 상륙방향을 두 경로로 예측하고 있었다. 하나는 사이판과 괌을 기지로 하여 일본 동남부의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을 점령하고 간토(關東)평야로 직접 상륙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필리핀에서 오키나와(沖繩) 열도를 거쳐 일본 서남부의 규슈방면에 상륙하는 것이다. 규슈방면에 상륙하는 경로가 채택될 경우 미군의 전략상 제주도를 점령한 후 여기에 공·해군기지를 설치해 일본 본토 공격의 전진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 즉 미군은 제주도를 거점으로 삼아 일본 규슈에 대한 상륙작전과 일본군 최정예 부대인 관동군의 일본 본토 합류를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의 남단 규슈지방과 중국 남부를 연결하는 직선상에 위치하면서, 필리핀과 한반도 사이에 놓여 있어 지정학적으로 한·중·일 3국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군이 필리핀에 상륙한 1944년 10월부터 제주도의 방비는 초미(焦眉)의 과제가 되고 있었다.²⁰⁾

1944년 11월이 되면서 일본은 대륙으로부터의 수송항로에 대한 해상공격과 함께, 제주도에 공격거점을 만들기 위한 상륙도 있을 수 있다고 가상하기 시작했다. 본토결전 구상의 부상과 함께 제주도는 「결7호작전」의 중요한 군사거점으로 인식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결7호작전」으로 확정해 가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45년 6월 1일 해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군령부 제1부가 작성한 '정황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군의 제주도 상륙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

19)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25~229쪽.

20) 임종국, 같은 책, 112~114쪽.

적의 제주도 방면 공격은 대륙교통 완전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6월 하순 이후 발생 전망 없음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오키나와 방면 기지의 항공병력 증가세를 보면 꼭 본 작전에 의하지 않고도 차단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부대의 손실과 소모를 크게 함으로써 규슈(九州)방면으로의 공격이 곤란하거나, 혹은 소련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한 이것을 취할 전망은 반드시 크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즉, 미군이 대륙교통 차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군이 오키나와에 구축한 항공병력 등을 고려할 때 소련의 참전을 유도하려는 전략이 아니면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주도를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육군에 비해 해군은 제주도 결전에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6월 8일, 도요다 소예무(豊田副武) 군령부 총장은 일본 국왕이 참석한 어전회의에서 미군이 취할 만한 전략 중에서 제주도 방면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즉 “미군의 제주도 방면 공격은 일본과 조선 간 교통의 완전 분단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대일(對日) 공격기지를 추진하기 위한 견지에서 이를 강행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군으로서도 제주도에서의 결전준비를 더욱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섰다.²¹⁾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결7호작전」의 전략적 위치를 가지게 된 데는 일본의 다음과 같은 정세분석이 기초가 된다.

첫째, 거둬들인 패전으로 일본의 주요 물자 공급기지였던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와 교통이 끊기면서 또 다른 물자 공급기지인 중국대륙으로부터의 물자보급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대륙과 일본을 잇는 대한해협이 확보는 전쟁수행의 생명선이 되었다.

둘째, 미군은 최종목표인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가 있는 간토지방을 공격하기 전에, 일본 본토의 일부나 그 주변에 해군 또는 공군기지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규슈(九州) 남부로 예상했다. 그러나 만약 규슈 북부나 한반도 남부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우선 제주도를 점령하여 그곳에 전진기지로서 항공기지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21)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29~240쪽.

셋째, 일본에게 또 하나 우려되었던 것은 소련의 참전이였다. 일본은 미군이 한국에 접근하면 소련군도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소련의 참전은 소련을 통해 행하려 했던 평화공작의 선이 끊김과 동시에 전력상으로도 전쟁지속이 불가능해 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결정적 패전의 위기에 몰린 일본이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를 확보하고, 일본 본토를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면서 소련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결7호작전』의 개요와 준비상황

1) 작전개요

1945년 2월 9일, 일본의 방위총사령관은 각 방면군 사령관에게 6월경을 목표로 한 일본 본토결전 작전준비의 완성을 명령하였다. 미국 등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결전작전을 암호명 『결호(決號)작전』이라 불렀는데, 다음과 같은 작전구분이 있었다.

- 결1호작전 : 홋카이도(北海道), 지시마(天島) 방면
- 결2호작전 : 토호쿠(東北) 일본방면
- 결3호작전 : 간토(關東) 방면
- 결4호작전 : 토카이(東海) 방면
- 결5호작전 : 추부(中部) 일본방면
- 결6호작전 : 규슈(九州) 방면
- 결7호작전 : 조선방면(제주도방면)

이러한 작전지역 중 결1호에서 6호까지는 모두 일본 본토이고, 제주도만 유일하게 일본 본토 이외 지역이다.

결1호작전 지역인 홋카이도(北海道)와 지시마는 일본 북부지역이고, 결2호작전 지역인 토호쿠(東北)는 일본 혼슈(本州)의 동북부로서 아오모리(靑森)현, 이

와테(岩手)현, 아키다(秋田)현, 야마가타(山形)현, 미야기(宮城)현, 후쿠시마(福島)현 등을 포함한다. 결3호작전 지역인 간토(關東)는 혼슈 중앙부의 동쪽에 위치하며 도쿄(東京)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군마(群馬)현, 이바라기(茨城)현, 도치기(栃木)현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가 있는 일본의 심장부다. 태평양상의 서쪽에 산재한 이즈 제도(伊豆諸島)와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까지 포함한다. 결4호작전 지역인 토카이(東海)는 추부(中部)의 호쿠리쿠(北陸) 지방, 결5호작전 지역인 추부 지방은 혼슈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야마(富山)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 나가노(長野)현, 기후(岐阜)현, 시즈오카(靜岡)현, 아이치(愛知)현 등이다. 결6호작전 지역인 규슈(九州)는 일본의 주요한 4개 섬 중 3번째로 큰 최남단의 섬으로 후쿠오카(福岡)현, 나가사키(長崎)현, 오이타(大分)현, 구마모토(熊本)현, 미야자키(宮崎)현, 사가(佐賀)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이 포함된다.

2) 준비상황

미군이 필리핀에 이어 1945년 2월 이오섬(硫黃島)을 함락시키자 오키나와(沖繩) 본도와 규슈 등 서부 일본 상륙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45년 3월 12일 일본 최고전쟁지도회의인大本營은 각 군 작전주임참모회합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결호작전」 지역 중에서도 미군의 상륙지점으로 제주도와 홋카이도가 유력하다고 판단하여 「결1호작전」과 「결7호작전」이 보다 강도 높게 다뤄졌다.

이에 따라 3월 20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결7호작전」준비요강이 한반도를 관할하던 일본군 제17방면군에게 하달된다. 그 내용은 2~5개 사단 규모의 미군이 1945년 8월 이후 제주도 또는 한반도 이남 지역으로 상륙할 것을 예상하고, 그 지점을 집중 방어하는 한편, 상륙부대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도 감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제17방면군에게 지시된 ‘국토 결전작전 준비요강’²²⁾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작전 명칭 : 결7호작전
- (2) 병력의 기초배치

22)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조선군개요사』, 불이출판, 1989, 12~13쪽.

제주도 : 제58군, 제96·제11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독립속사포제32대대,
제1특설근무대

조선 본토 : 전남·북 제150·160사단, 경남 제120사단, 기동병단 121사단

(3) 기타 직할부대로서 아래와 같이 예정함

만주에서 독립구포제23대대, 제4통신중대, 몽강(蒙疆)에서 독립전차제12연
대 제14중대, 북부 중국(北支)에서 전신제11연대, 중부 중국(中支)에서 분진
포제1대대, 조선에서 독립야포병제6연대

(4) 결3호(제13방면군)·결4호(제14방면군)·결5호(제15방면군)작전이 개시될 때
는 제17방면군에서 1개 사단을 규슈(九州)에 파견함.

(5) 결7호작전이 개시될 때는 관동군과 북부 중국방면군에서 2~3개 사단을 증강함.

(6) 작전준비는 8월 말 개성(概成), 10월 말 완성으로 한다.

‘국토 결전작전 준비요강’의 요지를 보면, 「결7호작전」으로 명명된 제주도에
서의 결전작전을 위해 제58군사령부와 주력병력으로 2개 사단 및 1개 혼성여
단, 기타 예하부대를 배치하도록 했다. 기동병단으로 한반도에 제121사단을 대
기시키고 포병과 전차부대를 중국과 만주 등지서 이동, 제58군에 직할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결7호작전」이 진행되면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관동군
과 중국 방면군에서 2~3개 사단을 증강토록 했다. 이러한 지시대강에 의해
제17방면군이 마련한 「결7호작전」의 구체적인 준비요강은 아래와 같다.

적의 상륙판단

1. 북 규슈(九州) 방면 상륙 또는 조선해협 돌파를 위한 기지로 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공략함.
2. 위를 목적으로 한 남선(한반도 이남) 도서(島嶼)지대 공략.
3. 대륙 교통차단을 위하여 남선(한반도 이남)지구 일각에 상륙.
4. 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지구에의 강행 상륙.
5. 정략을 목적으로 한 조선본토 중심지대의 공략.

※ 적의 사용병력 : 2~5개 사단

※ 상륙시기 : 차기 작전의 준비기간으로 판단해서 8월 이후로 예상됨.

작전방침

1. 주력으로 적의 주요 상륙점을 확보하고, 적의 침공에 제(際)해서는 일체의

전력을 결승점에 집중하여 적을 격멸함.

2. 제주도는 당초부터 유력한 병력을 배치하고 독립으로 동 섬을 확보케 함.
3. 병력의 기초배치 : 부도 제2의 1·2와 같음.
4. 작전준비 완료의 시기 : 작전준비는 8월 말 개성(概成), 10월 말 완성을 목표로 함. 단 제주도에서는 개성(概成) 시기를 7월 말로 예정함.²³⁾

제17방면군은 미군이 북 규슈(九州) 방면 상륙 또는 대한해협 돌파를 목표로 할 경우 제주도를 공략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한 미군의 상륙시기는 8월 이후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의 결전작전 준비에 있어서도 주력을 투입해 미군의 상륙지점을 확보하고 미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할 경우는 전력을 기울여 이를 격멸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준비는 다른 지역의 경우 8월 말에 기본골격을 완성하고, 10월 말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나 제주도는 그보다 1개월 앞선 7월 말에 기본골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정세변화에 따른 작전계획의 변경으로 1945년 6월부터 '제3차 병비강화'가 진행된다. 제17방면군의 전력강화 계획은 6월 25일의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함락, 마리아나와와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미군기에 의해 한반도 남부해안 등지가 공격받음에 따라 다시 수정되었다. 제17방면군은 미군이 월등한 항공력을 바탕으로 제주도나 남부지방에 상륙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집중적인 보강을 하게 됐다.

제3차 병비

1. 6월 신설 : 독립혼성제127여단(부산), 독립혼성제39·40여단(전남), 독립혼성산포병제20연대, 박격포제20·21대대, 해상수송대대 2개, 해상근무대 10개, 통신작업대 2개
2. 7월 신설 : 독립야포병제10연대, 박격포대대 2개, 독립공병대대 2개, 통신작업대 2개, 화물창
3. 8월 신설 : 박격포대대 2개, 독립야전중포병중대 1개, 독립야전고사포중대 2개, 독립전차중대 1개²⁴⁾

23) 임종국, 같은 책, 135~138쪽.

24)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같은 책, 28~30쪽.

작전지도 요령

1. 미약(微弱) 2개 사단을 보유한 제주도에 1개 사단 증강이 필요함.
2. 조선 본토는 당시의 보유병력 4.5개 사단의 약세여서, 부산 방향을 혼성여단으로 지키고, 결전장(決戰場: 군산) 부근에 제120사단(대전)과 제320사단(전주)을 집결시킬 것.
3. 7월 상순의 제17방면군 작전연구에서 『결7호작전』수행을 위해서는 10개 사단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²⁵⁾

1945년 6월에는 3개 독립혼성여단이 한반도 남해안에 증강되고 포병대와 해상수송대도 배치시키고 있다. 또 1945년 7월에는 포병대와 공병대, 1945년 8월에는 포병대와 전차부대를 각각 신설,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주둔 주력 사단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1개 사단 증파를 결정하고 있다.

1945년 6월 말이 되면 오키나와 함락(1945. 6. 25)으로 인해 『결7호작전』 준비가 다음과 같이 변화된 정세판단 하에 진행된다.

1. (미군은)서부 일본 상륙을 위해서 항공기지를 오키나와 또는 상하이(上海) 부근으로 진출시키거나, 혹은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25) 일본은 본토결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병력강화를 실시한다. 제1차병비는 본토결전이 결정되는 시기의 전면적인 군사 편제 개편이다. 본토 결전이 결정되면서 일본은 1945년 1월 20일 ‘제국 육해군 작전계획 대강’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군사 편제를 6개 방면군사령부와 8개 군관구사령부로 개편한다.

한반도에도 기존 상주군사령부가 폐쇄되고 제17방면군과 재선(在鮮)위수관구사령부가 신설된다. 제17방면군은 야전부대로 조선의 방위를 담당하고 재선위수관구사령부는 보충·교육·경리·위생·위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1945년 2월 9일 일본군 방위총사령관은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에 대비할 작전준비를 1945년 6월 경 완성 목표로 진행토록 각 방면군에 명령한다.

제2차병비는 1945년 3월 25일 미군의 이오섬(硫黃島) 점령에서부터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沖繩)의 가테나(嘉手納) 해안에 상륙하는 상황에 대응한 병비강화다. 일본은 이러한 미군의 진격을 방어하기 위해 1945년 3월~5월 사이 비약적인 병비강화를 진행한다. 제주도로 진출한 제96사단 등 4개 사단이 신설되고, 유수사단을 개편하는 한편,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을 위해 제58군이 신설되었다. 또 중국과 만주, 몽골 등지에 주둔했던 일본군 중 3개 사단과 1개 여단, 포부대 등이 한반도로 이동했다.

3차병비는 오키나와가 함락되면서 조선과 일본 전역이 미군의 공습권에 들어가고, 소련의 대일(對日)참전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한반도 이북과 중국 주둔 일본군에게 대소작전 준비를 명령하고, 한반도 남쪽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결7호작전』준비를 완료하는 내용이다.

된 상륙지점은 규슈(九州) 남부, 혹은 규슈 북부일 것이며, 규슈 북부일 때는
기지 설정을 위한 제주도 공략이 필연이라고 판단된다.

2. 미군이 일본~중국대륙 간 분단을 노릴 때는 ①대한해협을 요지 공격 ②조선
본토 상륙 중 택일할 것이 예상된다. ②일 때는 군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
3. 상륙 시기는 10월 이후로 예상된다. 소련의 대일침전은 이와 대응할 필요에
서 동시 혹은 조기(早期)일 것으로 전망된다.²⁶⁾

즉, 오키나와가 함락되면서 이제 미군은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것이며,
그 주된 상륙지점으로는 규슈(九州) 남부와 북부 등이 유력하다고 보았다. 이
중 규슈 북부로 상륙하는 경우는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 공략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6)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같은 책, 163~166쪽.
임종국, 같은 책, 135~137쪽.

Ⅲ.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편제와 병력배치

1.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편제와 전력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로 진출한 일본군 부대는 제58군이다. 제58군은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미군에 맞서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방어하는 「결7호작전」 수행 부대이다. 다음의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력의 전체 규모는 7만 4,781명²⁷⁾이며 군사령관은 초대 나가쓰(永津左比重) 중장에서 종전 시는 도야마 노보루(遠山登) 중장으로 바뀌었다. 제58군에 예속된 주력부대는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등 3개 사단과 1개 여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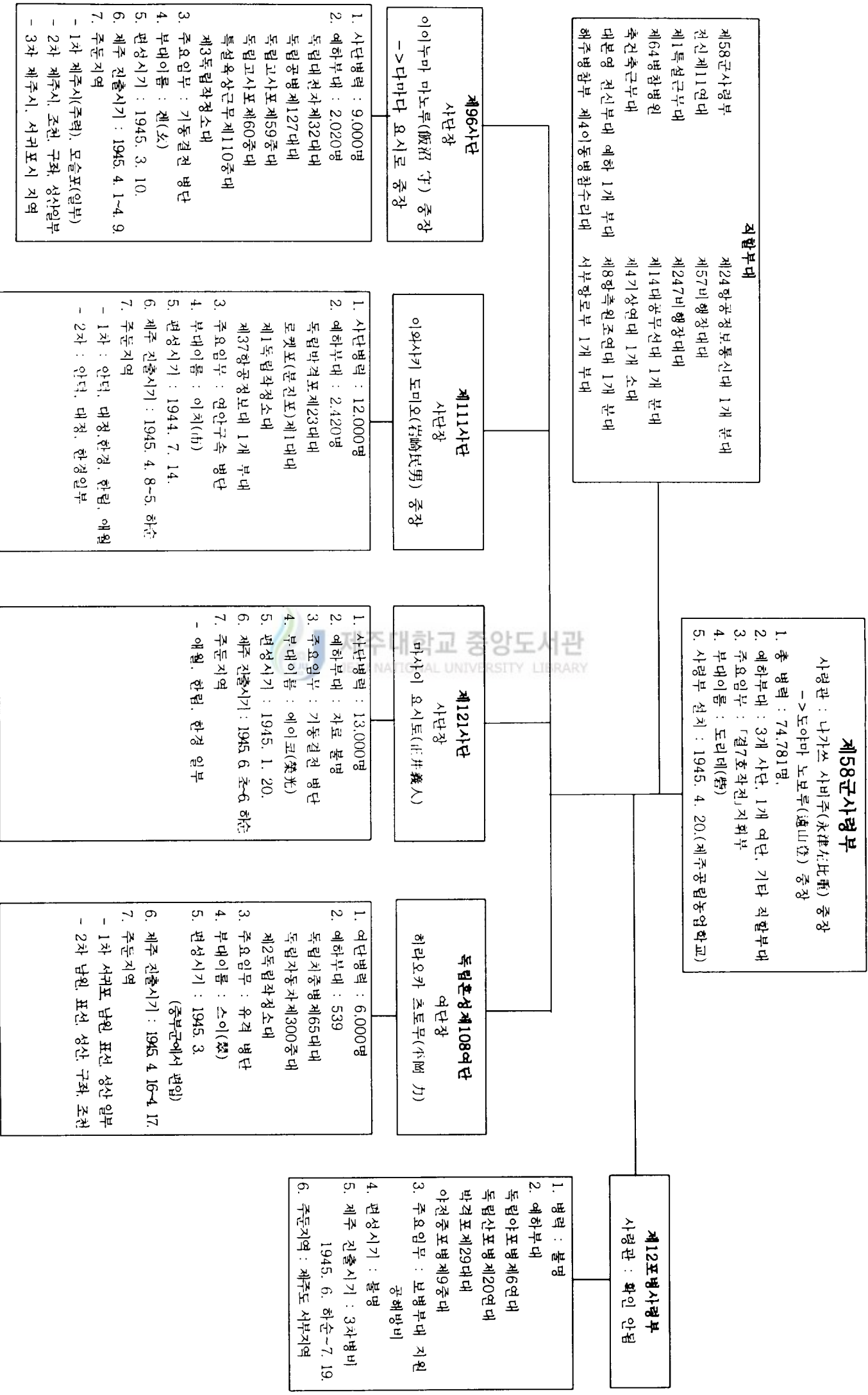
부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58군 직할부대는 사령부를 비롯해 전신부대, 공병대, 병참병원, 비행장경비대 등 14개 부대이다. 제12포병사령부도 제58군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으며 4개 포병부대를 예하에 두고 있다. 제96사단은 총병력 9,000여 명에 예하부대 6개, 제111사단은 1만2,000여 명에 예하부대 4개, 제121사단은 1만3,000여 명, 독립혼성제108여단은 6,000여 명에 예하부대 3개 등이다.²⁸⁾

그러면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보자. 다음의 <표 1>을 보면, 『조선군개요사』 7만4,781명, 『미군정보고서』 4만9,979명(또는 4만 8,524명) 등 자료에 따라 2만4,800여 명 정도 차이가 있다. 『미군정보고서』는 제58군이 종전 직전인 1945년 9월 미군에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다. 또 『조선군개요사』는 작성시점이 1946년 2월~10월이다.

27)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병력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군개요사」와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가 있다. 「조선군개요사」는 종전 후 잔무정리를 하면서 재정리한 것이고 「미군정보고서」는 종전 직후 제58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일본군 현황이 수록돼 있다. 따라서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진 「조선군개요사」가 종전 직전의 혼란스런 상황에서 인수받은 「미군정보고서」의 자료보다 정확도가 앞선다고 판단, 「조선군개요사」의 자료를 1차로 인용한다.

28) 임종국은 「일본군의 조선침략사」2, 121쪽에서 제58군사령부 직할 33부대 1만8,123명, 제96사단 8개 부대 9,072명, 제111사단 13개부대 1만2,016명, 제121사단 16개 부대 1만5,301명, 독립혼성제108여단 10개 부대 6,151명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처 확인이 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미군정보고서」를 기초로 부대현황을 파악했다.

<도 1> 제주도 주둔 일본군 편제도(1945. 8. 15. 기준)29)



29) 「조선군개요서」와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 『機密作戦日記』 등을 참고해 필자가 작성함.

<표 1> 제주도 주둔 일본군 현황(1945. 8. 15. 기준)³⁰⁾

(단위 : 명)

| 부대명 | 인 원 | | 부대명 | 인 원 | |
|-----------------|------------|------------|------------------------|-----------------------|------------|
| | 조선군 개요사 | 미군정 보고서 | | 조선군 개요사 | 미군정 보고서 |
| 제58군 사령부 | 370 | 277 | 독립공병제126대대 | 890 | 74 |
| 제96사단 | 9,000 | 8,453 | 독립공병제127대대 | 890 | 98 |
| 제111사단 | 12,000 | 11,779 | 제1독립작정작井소대 | 40 | 29 |
| 제121사단 | 13,000 | 15,188 | 제2독립작정작井소대 | 40 | 29 |
| 독립혼성제108여단 | 6,000 | 5,998 | 제3독립작정작井소대 | 40 | 24 |
| 독립전차제12연대제14중대 | 120 | 120 | 독립자동차제300중대 | 180 | 111 |
| 독립속사포(대전차)제32대대 | 480 | 453 | 독립치중병제65대대 | 400 | 399 |
| 분진포(로켓포)제1대대 | 850 | 832 | 제1특설근무대본부 | 20 | |
| 박격포제29대대 | 1,400 | 229 | 특설육상근무제110중대 | 310 | 28 |
| 독립구포(박격포)제23대대 | 640 | 644 | 특설근무대제4~13중대 | 6,600 | 455 |
| 제12포병사령부 | 120 | 58 | 제64병참병원 | 400 | 155 |
| 독립야포병제6연대 | 2,100 | 630 | 치크(제58군)건축근무대 | | 19 |
| 독립산포병제20연대 | 2,900 | 923 | 일본대본영 전신부대 이하 1개부대 | | 47 |
| 야전중포병제15연대 | 1,100 | 900 | 해주병참부 제4이동병참수리대 | | 57 |
| 독립중포병제9중대 | 110 | 59 | 제4항공군 | | 665 |
| 독립고사포제59중대 | 120 | 35 | 제37(원래 제36)항공정보대 1개 부대 | | 52 |
| 독립고사포제60중대 | 120 | 32 | 헌병과견대 | | 42 |
| 전신제11연대 | 850 | 794 | 보조헌병(보병사단 파견) | | 291 |
| 합 계 | | | | 74,781 ³¹⁾ | 49,979 |

『미군정보고서』에는 일본군이 제공한 병력현황(4만9,979명)이 있고, 미군이 별도로 집계한 철수병력(4만8,524명)이 있다. 일본군이 제공한 병력현황과 미군이 자체 집계한 철수병력 차가 불과 1,4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일본군이 제공한 병력현황은 대체로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군개요사』에 기록된 일본군 병력 수도 패전 후 일본정부의 잔무처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쪽 자료의 차이에 대해 실제 제주도에 주둔했던 병력을 기록하는데 어느 한쪽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 본토로 귀환하지 않은 조선인과 조선 거주 일본인 징병자들이 『미군정보고서』상 병력현황에는 포함되

30)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부표제3, 같은 책.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 2000, 188~189쪽. 이 표는 한국과 일본, 제주도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뿐 아니라 파견근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병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31) 표 상 실제 인원은 6만1,090명이나 '부표제3'에서 합계 인원을 7만4,781명으로 하고 있어, 표기되지 않은 기타부대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표를 인용하였다.

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종전이 되면서 대부분 현지에서 소집 해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7만4,781명, 약 7만5,000여 명으로 판단된다.

제58군의 임무와 전투서열 편성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면, 제58군의 임무는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의 배치와 작전지휘에 관해서는 제58군사령관의 의도를 존중하여 제17방면군 등이 간섭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제17방면군과 제58군사령부는 제주도로 진출하기 전 작전에 관한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작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작전연구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58군사령부가 제주도로 진출해 부대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본 본토의 전쟁지휘부와 제17방면군은 제58군이 병력과 전력의 불충분을 이유로 주진지선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보고 공세적 임무해결의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다.

제58군의 제주도에서 작전 목적은 미군이 제주도 지역에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한 공군 또는 해군기지 설정 기도를 깨뜨리는 것으로써, 작전 초기부터 미군을 격멸하는 것이다.³²⁾ 그렇다면 해군기지가 위치한 해안지역을 미군에게 내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제58군은 초동결전보다 내륙 지구전을 염두에 두고 결전부대의 주진지선을 해안에서 후퇴시켜 부대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58군 전투서열이 하달되던 1945년 4월 일본 본토에서는 전쟁종결의 임무를 지고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내각이 들어섰다. 1945년 4월 7일 성립한 스즈키 내각의 임무는 본토결전의 준비와 명예로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과의 전투가 발발, 9만4,000여명의 군인과 이를 훨씬 능가하는 15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어 갔다. 명예로운 강화를 위해 일본은 오키나와의 민간인까지 대량 학살의 전장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이미 패전을 예감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종전에서의 유리한 협상을 위해 강은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이 『결전작전』지역에서는 미군에게 가급적 많은 타격을 가함으로써 유리한 종전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전의 강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전부대와 이보다 더 많은 작전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전제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결7호작전』 역시, 이러한

32)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같은 책, 173~180쪽.

일본 정부의 종전 전략 속에서 제주도민의 대량 희생을 불모로 한 초기 결전 작전이었다.

제주도에서 진행된 「결호작전」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1945년 6월 15일 경 제3차병비에 따른 「전력밀도표」를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표 2>³³⁾ 이때는 오키나와(沖繩) 함락이 목전에 이르면서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는 시점이다.

다음의 <표 2>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과 제주도 등 「결호작전」지역에서 준비되고 있는 평균적인 전력밀도의 경우 km당 보병 대대가 0.2~0.9개까지 분포하고, 기관총은 2.5~9정, 야포는 0.6~3.3문, 박격포(분진포)는 0.6~5문, 기타 화포는 0.8~2.5문 등으로 배치되고 있다. 또 규슈(九州), 간토(關東)지역은 방면군 직할 결전병력을 해당지역으로 투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제주도와 중부 일본의 고치(高知)현에 대해서는 방면군 직할 결전병력 투입 없이 독자적으로 결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전력밀도는 km당 보병대대 0.3개, 기관총 3정, 연대포 0.9문, 박격포 1문, 화포 1.3문 등이다. 즉 10km에 3개 대대 병력이 필요하며 이들이 보유하는 무기는 기관총 30정, 연대포 9문, 박격포 10문, 화포 13문 정도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보병의 밀도는 전체 9개 상륙 예상거점 중 8번째, 기관총과 박격포는 6번째, 야포는 8번째, 기타 화포는 7번째 등이다. 이것으로 보면,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정도는 결전부대 중 최하 수준에 있다.

제주도에서 「결호작전」을 위한 병력배치 범위는 정면 100km로 최장(最長)인 엔슈나다(遠州灘) 150km 보다는 짧으나, 남 규슈(九州) 서쪽, 간토(關東) 구주쿠리하마(九十九里濱)와 함께 100km로 2번째이다.

33) 츠카사키는 1945년 3월 26일 게라마제도(慶良間諸島) 상륙,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본도 상륙으로 시작된 오키나와전으로 미군의 본토상륙이 임박해 지면서 미군상륙 예상거점으로 「전력밀도표」상의 9곳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자료는 작성 시기가 나와 있지 않으나, 121사단과 독립산포병제20연대 등이 배치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들 부대가 제주도로 진출명령을 받거나 진출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제3차병비기인 1945년 5월 하순~6월 중순 경, 즉 제3차병비 시기일 것으로 본고에서는 판단한다.

<표 2> 일본 및 제주도 결전지역별 전력밀도표(1945. 6. 15. 전후)³⁴⁾

| 지역 | | | 전력(戰力)/km | 보병대대 (개) | 기관총 (정) | 연대포 (문) | 박격포 (문) | 화포 (문) | 비고 |
|---------------|-------------------|-------|-----------|-------------|------------|------------|------------|--|----|
| 규슈 (九州) | 남규슈 동쪽 | 80km | 0.6(1.3) | 6(15) | 2(3.7) | 1.6(4.8) | 2.5(5.4) | 괄호내는 방면군직할 결전병력을 당해 방면으로 투입하는 경우의 전력 밀도 | |
| | 남규슈 서쪽 | 70km | 0.4(1.0) | 3(14) | 1(3) | 1.2(4.8) | 1.4(4.8) | | |
| | 북규슈 정면 | 100km | 0.3(0.9) | 2.9(10) | 0.6(1.9) | 1.2(3.7) | 0.8(3) | | |
| 고치(高知)정면 | | 36km | 0.9 | 2.5 | 3.3 | 5 | 4 | | |
| 제주도 정면 | | 100km | 0.3 | 3 | 0.9 | 1 | 1.3 | | |
| 엔슈나다 (遠州灘) | | 150km | 0.2(0.3) | 2.5(3.8) | 1(1.5) | 0.8(1.2) | 0.9(1.2) | | |
| 간토 (關東) | 가시마나다 (鹿島灘) | 70km | 0.6(1.4) | 5(17) | 2.4(4) | 0.9(7) | 1.9(8) | | |
| | 구주쿠리하마 (九十九里濱) | 100km | 0.4(1.0) | 4.5(13) | 2(3) | 0.6(5) | 1.9(6) | | |
| | 사가미만 (相模灣) | 40km | 0.8(2.3) | 9(31) | 2.5(5) | 1.5(1.3) | 2(1.2) | | |

제주도 주둔 일본군은 「결7호작전」 시기가 다가오면서 화력을 증강시키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결7호작전」 준비 초기의 화력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결7호작전」 준비 중기와 말기의 상황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분적으로 있다. 즉 「결7호작전」 준비 초기의 것으로는 제3차 병비에 따른 「전력밀도표」가 있고, 「결7호작전」 준비 말기에는 『미군정보고서』를 참고로 할 수 있다.³⁵⁾

다음의 <표 3>에서 「전력밀도표」와 『미군정보고서』의 화력 증강상황을 비교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기관총은 1945년 6월 302정에서 1945년 8월 1,417정으로 370% 증강되었다. 부대별로는 서부지역에 배치된 제111사단이 제3차 병비 시 72정에서 종전 직전 329정으로 357%, 제121사단이 72정에서 344정으

34) 參本第2課, 「各 要域別 1km당 戰力密度概見表」, 『本土決戰關係兵備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박격포에는 구포와 분진포(로켓포) 포함. 규슈는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대 섬중 가장 남쪽에 있는 섬, 고치는 시코쿠(四國)의 남부, 엔슈나다(遠州灘)는 시즈오카현(靜岡縣)에 위치, 가시마나다(鹿島灘)는 간토(關東)평야의 동쪽, 구주쿠리하마(九十九里濱)는 간토평야의 일부, 사가미(相模灣)은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남부에 위치한다.

35) 「전력밀도표」의 시점은 1945년 6월 15일 경 제3차 병비 시기, 『미군정보고서』상 무장상황에 대한 정리 시점은 1945년 8월 15일 패전직후라고 판단한다.

로 378% 대폭 증가했다. 또 동부지역의 독립혼성제108여단은 48정에서 194정으로 300%, 중앙의 제96사단은 110정에서 160정으로 45% 증가했다.

포는 분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1945년 6월 329문에서 1945년 8월 462문으로 40% 증가했다.

<표3> 제3차병비와 종전직전 화력 비교³⁶⁾

(단위 : 문, 기관총은 정)

| 부대 | 화력 | | 기관총 | | 연대포 | | 야 포 (10H) | | 산포 | | 케논포 | | 유탄포 (15H) | | 박격포 | | 분진포 (구포포함) | |
|-------|-----|-------|-----|---|-----|-----|-----------|----|----|----|-----|----|-----------|----|-----|----|------------|----|
| | A | B | A | B | A | B | A | B | A | B | A | B | A | B | A | B | A | B |
| 96사단 | 110 | 160 | 18 | | | 26 | | 4 | | | | | | 18 | 18 | | | 38 |
| 111사단 | 72 | 329 | 24 | | 12 | 22 | | 14 | | | | | | | 16 | | | 39 |
| 121사단 | 72 | 344 | 24 | | 27 | 36 | | 15 | | | | | | | | | | 40 |
| 108여단 | 48 | 194 | 24 | | 4 | 4 | | 12 | | | | | | 12 | 24 | | | 20 |
| 20연대 | | | | | | | | 36 | | | | | | | | | | |
| 29대대 | | | | | | | | | | | | | | | 18 | | | |
| 1대대 | | | | | | | | | | | | | | | | | | 36 |
| 6연대 | | | | | 24 | | | 45 | 12 | | | | | | | | | |
| 23대대 | | | | | | 88 | | | | | | | | | | | | 16 |
| 15연대 | | | | | | | | | | | | 24 | | | | | | |
| 기 타 | | 390 | | | | 59 | | 28 | | 10 | | | | | | | | 37 |
| 계 | 302 | 1,417 | 90 | | 67 | 147 | 36 | 73 | 12 | 10 | 24 | | | 48 | 58 | 52 | 174 | |

* 구분 : A= 「전력밀도표」, B : 「미군정보고서」

* 표 편집 상 20연대는 독립산포병제20연대, 29대대는 박격포제29대대, 1대대는 분진포제1대대, 6연대는 독립야포병제6연대, 23대대는 독립구포제23대대, 15연대는 야전중포병제15연대를 줄여서 표기하였다.

* 표 내용 중 H는 곡사포를 말한다.

따라서 당시의 수준으로 개인화기에서 포의 기능까지 다양하게 이용되었던 기관총은 전체적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미군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무기로 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던 포의 증강은 50%에 못 미치고 있다. 또 분진포 탄약 및 석탄(夕彈)은 재고품이 전혀 없어 유감을 표하고 있다.³⁷⁾

36) 참본제2과, 「각 요역별 전력밀도개건표」, 같은 자료. 제주도의회, 같은 책, 190~193쪽.

37) 「參電 第825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參電은 일본군 참모

한편 이러한 일본군의 「결7호작전」 준비에 대해 미군이 판단하고 있는 정보는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고 있었다.

미국동군총사령부에서 제24군단에 보낸 1945년 8월 25일자 전문에는 제주도에 6개 보병사단(제96·111·121·12·17·22사단), 8개 독립혼성여단(제81~88여단), 2개 독립보병여단(제7·11여단), 2개 독립기병여단이 주둔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1945년 8월 20일 경, 미제24군단은 한반도 내 전체 일본군 병력(해군 병력과 제주도의 추정병력 포함)을 37만5,000명으로 추정하였다. 미군 제24군단은 다시 일주일 후에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 현황을 수정 발표했는데, 이때까지도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미제24군단은 한반도에 상륙한 뒤 일본군 병력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7방면군은 한반도와 제주도 병력을 통솔하고 있으며, 쓰시마의 병력은 지휘하지 않고 있다. 병력 총규모는 20여만 명이며, 여기에는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인 5만여 명은 아마도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군에 의해 징집 해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의 최고 지휘부는 도야마 노부루 중장이 지휘하는 제58군으로, 5만여 명의 병력이 있으며, 주요 전투부대는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등이다.

제주도 주둔 일본 해군은 쇼이치 하마다 해군 중령의 지휘 아래 1,500명 정도 있는 것 같다.³⁸⁾

즉, 미군은 종전 직후까지도 한반도의 일본군 주둔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제주도의 일본군 현황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군이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한반도, 특히 제주도가 미군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하나의 경우는, 당시 미군이 자신들의 진격방향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오히려 강력한 일본군 부대가 결전을

본부에서 보낸 전보문. 본고에서 인용하는 「機密作戰口誌」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된 1945년 기밀전보문이다. 따라서 이하 각주에서는 소장 장소와 년도는 생략한다.

38) 제주도의회, 같은 책, 381~396쪽.

준비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느 것이든 일본군은 미군의 막강한 전력에 비해 제주도 주둔군의 전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오키나와 주둔 일본군보다 훨씬 많은 실제보다 2배 이상의 병력이 제주도에 주둔한 것으로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

2. 시기별 「결7호작전」 준비와 병력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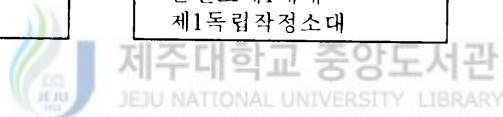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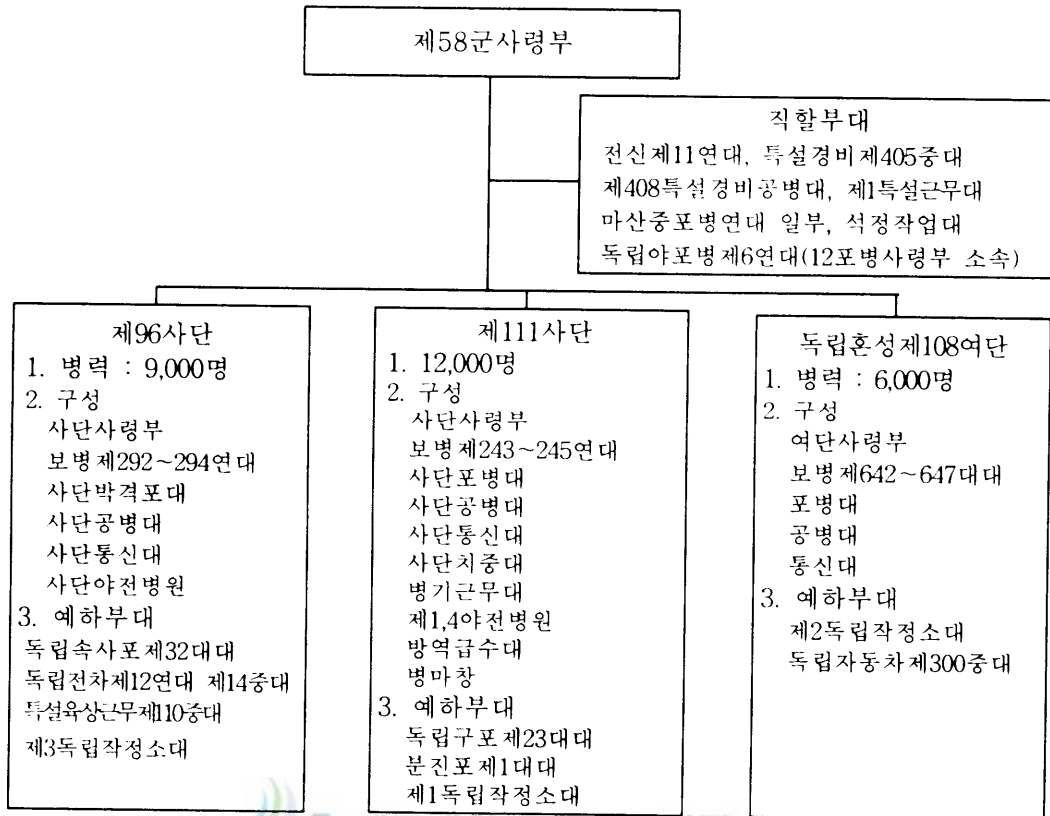
1)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전투서열과 병력배치(1945. 4~5. 하순)

「결7호작전」에 따른 1차 배치 구상은, 아래의 <도 2>와 같은 병력의 기초 배치로서 제주도에 제58군,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독립속사포제32대대, 제1특설근무대 등을 진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1945년 4월 경 제주도 주둔 총 병력은 3만6,000여 명이 되어가고 있다. 1945년 3월 경 3,000여 명에 불과하던 제주도 주둔 일본군이 「결7호작전」을 위해 불과 1개월 여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당시 한반도에 주둔하거나 주둔계획인 일본군 전체 병력이 3월 말 5만여 명에서 4월 말 9만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대한 병력증강에 따른 것이다.³⁹⁾

39)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부표제1· 2, 같은 책.

<도 2> 「결7호작전」을 위한 제58군 전투서열(1945. 4. 15.)⁴⁰⁾



(1) 주요 부대의 구성과 전력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제주도로 진출한 주요부대에 대해 앞의 <도 2>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결7호작전」 지휘부로 제58군사령부가 있다. 제58군사령부는 1945년 4월 신설부대이며 군사령관은 초기 나가쓰(永津左比重) 중장에 서 종전 당시 도야마 노보루(遠山登) 중장으로 바뀌었다. 부대이름은 도리데(滌)이다.

제96사단은 1945년 3월 10일 신설되면서 제주로 진출했는데, 제주도에 설치 예정이던 혼성여단안(案)을 확대한 것이다. 사단장은 최초 이이누마(飯沼 守) 중장에서 다마

40) 「機密作戰日誌(乙綴)」을 주로 하고, 「조선군개요사」 171, 175쪽을 참고로 필자가 재작성 했다. 제1·2·3 독립작정소대(1~3井小隊), 독립야포병제6연대(6Ars), 전차제12연대(12TK)의 경우 「機密作戰日誌(乙綴)」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조선군개요사」에는 이 당시 전투서열에 편입된 것으로 표기된다.

다 요시로 중장으로 교체됐다. 부대이름은 겐(玄)이다.

제111사단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관동군 예하 부대로 1944년 7월 14일 신설되었다. 사단장은 이와사키 도미오(岩崎民男) 중장이며 부대이름은 이치(市)이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제주도에서의 결호작전 구상에 따라 1945년 3월 규슈(九州)의 중부군(中部軍)에서 제58군으로 편입됐다.⁴¹⁾ 여단장은 히라오카 츠토무(平岡 力) 소장으로 부대이름은 스이(翠)이며 4월 중순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제17방면군은 108여단을 제96사단장의 지휘 하에 일시 편입시켰다가 제58군사령관의 제주도 도착 직후 지휘권을 제58군으로 이관했다.

제58군 주력부대인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의 편제를 다음의 <표 4>에 따라 살펴본다. 제96사단은 보병제292·293·294연대를 주력으로 한 사단 본대 9,000여 명(『미군정보보고서』 상에는 8,603명, 또는 8,453명⁴²⁾), 예하부대 2,000여 명 규모이며, 일본 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와 오오무라(大村) 등지의 병력으로 편성됐다. 사단포병 대신 박격포대(3개 중대)를 두었으며, 사단 공병대(2개 중대), 사단 통신대, 야전병원 등으로 편성됐다.⁴³⁾ 제96사단 예하부대로는 독립대전차제32대대(박격포), 독립전차제14중대(제12전차연대 소속), 독립공병제127대대,⁴⁴⁾ 독립고사포제59·60 중대, 특설육상근무제110중대, 제3독립작정소대 등이 있었다.

제111사단은 보병제243·244·245연대를 주력으로 1만2,000명 규모의 병력(『미군정보보고서』에는 1만807명)이다. 3개 보병연대(9,837명, 기관총 135정, 대대포 6문, 대전차포 6문), 사단포병대(475명, 곡사포 12문), 사단공병대(288명), 사단통신대, 사단치중대, 병기근무대, 제1·4야전병원, 방역급수대, 병마창 등이 있다. 예하부대로는 독립박격포제23대대(644명, 구포 16문), 로켓포(분진포)제1대대(832명, 로켓포 36문), 독립공병제126대대, 제1독립작정소대 등이 있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의 경우, 전체 구성은 보병 6개 대대(1개 대대는 4개 중대로 구성), 포병대(박격포 2개 중대, 야포 1개 중대), 공병대, 통신대 등 6,000명 규모다.⁴⁵⁾ 예하부대로는 독립치중병제65대대, 독립자동차제300중대, 제2독립작정소대 등이 있다.⁴⁶⁾

41) 임종국, 같은 책, 121~122쪽.

42) 앞의 숫자 8,603명은 일본군이 미군에게 제공한 자료이고, 뒤의 8,453명은 미군이 자체 집계한 일본군 철수병력 현황이다. 이하의 표기도 이에 준한다.

43)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부표제3, 같은 책.

44) 『미군정보보고서』상에는 제126대대로 표기되고 있으나, 기밀전보문의 내용 등에는 제127대대로 나오고 있다.

45)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부표제3, 같은 책.

46) 독립혼성제108여단은 다른 사단 또는 여단과의 비교가 어려워 비교표에서 제외하였다.

<표 4> 일본군 사단편제 비교(제96사단, 제111사단)⁴⁷⁾

(단위 : 명)

| 편 제 | 사 단 | 표준사단 | | 강화 사단1 | 강화 사단2 | 특수 사단 | 96사단 | | 111사단 ⁴⁸⁾ | |
|-----------------|---------|--------|--------|-----------|-----------|----------|---------|------------------------|----------------------|----------------------|
| | | 총계 | 가동 | | | | 진출 전 | 진출 후 ⁴⁹⁾ | 진출 전 | 진출 후 |
| 사단사령부 | | 300 | 300 | 465 | 410 | 250 | 302 | 274 | 245 | |
| 사단통신대 | | 250 | 220 | 285 | 220 | 200 | 189 | 204 | 207 | 207 |
| 위생대 | | 900 | 750 | 1,085 | 1,000 | 650 | | | | |
| 야전병원 | | 1,000 | 690 | 1,000 | 960 | | 305 | | 561 | |
| 방역급수대 | | 120 | 90 | 160 | 160 | | | | 239 | |
| 병마창 | | 50 | 40 | 100 | 100 | | | | 119 | |
| 병기근무대 | | 50 | 40 | 185 | 180 | | | | 112 | |
| 제독대 | | | | 190 | | | | | | |
| 수색연대 | | 730 | 650 | 730 | 780 | | | | | |
| 전차대 | | | | 720 | | | | 120 | | |
| 보병여단 3개 보병연대 | | 11,600 | 9,070 | 17,240 | 14,500 | 9,500 | 2,432 | 7,086 | 3,454 | 9,837 |
| 포 병 단 | 사령부 | | | 160 | 160 | | | | | |
| | 야포병연대 | 2,300 | 2,000 | 2,380 | 2,320 | | 577 | 720 ⁵⁰⁾ | 540 | 1,966 ⁵¹⁾ |
| | 야전중포병대대 | | | 950 | | | | | | |
| | 소계 | | | 3,490 | 17,070 | | | | | |
| 공병연대 | | 900 | 750 | 1,010 | 900 | 600 | 426 | 1,226 ⁵²⁾ | 288 | 1,178 ⁵³⁾ |
| 치중병연대 | | 1,800 | 1,400 | 2,730 | 2,820 | 1,800 | | | 1,022 | |
| 독립작정소대 | | | | | | | 40 | 40 | 40 | |
| 기타 부대 | | | | | | | 1,330 | | | 1,172 |
| 총 병력 | | 20,000 | 16,000 | 29,400 | 24,600 | 13,000 | 4,231 | 11,000 | 6,827 | 14,400 |

47) 일본육군성, 『일본육군편람』, 합중국인쇄국, 1944. 10. 25~29쪽.

48) 『미군정보고서』 상으로는 독립박격포 제23대대, 로켓포 제1대대, 독립공병 제127대대, 제1독립작정소대, 제37항공정보대 1개 부대 등이 예비부대로 편성되고 있다. 어느 부대에도 기본적으로 있는 통신대는 제주 진출 전이나 진출 후 배속부대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으나 『미군정보고서』 상에는 통신대 207명이 철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49) 패전 후 제58군이 미군에 제공한 일본군 현황(『미군정보고서』)을 기초로 하고, 예비부대도 포함시킴. 이하 111사단, 121사단에 대해서도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진출 전과 후는 제주도로 진출한 것을 기준 함.

50) 독립속사포(대전차) 제32대대 480명(『미군정 보고서』에는 453명으로 기록됨), 독립고사포 제59, 60 중대 합 240명. 야포 대신 대전차포와 고사포부대가 배속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51) 『미군정보고서』 상 포병대 475명에 독립박격포(구포) 제23대대 640명, 로켓포(분진포) 제1대대 850명을 더했다.

52) 기존 공병대 426명에 독립공병 제126대대 890명, 특설육상근무 제110중대 310명을 합함.

53) 『미군정보고서』 상 공병대 288명에 독립공병 제126대대 890명을 더함.

이러한 주력부대들이 보유한 화력을 다음의 <표 5>에서 비교해 본다. 제96사단이 보유한 무기는 소총 6,131정, 총검 9,644개, 경기관총 및 중기관총 380정, 야포 및 곡사포 등 30문, 대전차포류 24문, 로켓포(분진포) 38문, 박격포 18문, 유탄발사기 296정, 중형전차 11대, 경전차 1대 등이다. 제111사단의 보유하고 있던 주요무기는 소총(기병소총 포함) 8,233정, 기관총 329정, 야포·산포·곡사포 등 36문, 대전차포(자동포) 6문, 박격포 및 로켓포 55문, 유탄발사기 265정 등이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소총 3,507정, 기관총 194정, 야포 및 산포 16문, 박격포·로켓포 등 44문 등을 보유했다.⁵⁴⁾

<표 5> 일본군 사단 유형별 화력비교(제96사단, 제111사단)⁵⁵⁾

(단위 : 명,정,문)

| 병력 및 무기 | 사 단 | 표준 사단 | 강화 사단 1 | 강화 사단 2 | 특수 사단 | 96사단 | 111사단 |
|------------------|-----|---------|---------|-------------------|--------|-------------------|-------------------|
| 총 병력 | | 20,000 | 29,400 | 24,600 | 13,000 | 11,000 | 14,400 |
| 소총 | | 9,000 | 10,000 | 10,000 | 6,950 | 6,131 | 8,233 |
| 경기관총 | | 382 | 405 | 410 | 110 | 246 | 257 |
| 척탄통(유탄발사기) | | 340 | 460 | 450 | 112 | 296 | 265 |
| 중기관총 | | 112(76) | 112 | 112 | 32 | 134 | 72 |
| 20mm 자동포 또는 기관포 | | (18) | (75) | 78 | | | |
| 37mm 또는 47mm 속사포 | | 22 | 40 | 18 ⁵⁶⁾ | 16 | 18 ⁵⁷⁾ | 6 |
| 70mm 대대포(로켓/분진) | | 18 | 36 | 36 | | 38 | 39 |
| 75mm 연대포 | | 12 | 24 | 12 | | | |
| 75mm 야포 또는 산포 | | 36 | 12 | 24 | | 8 | 10 ⁵⁸⁾ |
| 자동차 | | | 500 | | | 13 | 100 |
| 105mm 유탄포 | | | 24 | 12 | | 18 | 26 ⁵⁹⁾ |
| 120mm 박격포 | | | | | | 18 | |
| 150mm 유탄포 | | | 12 | | | 4 | |
| 200mm 박격포 | | | | | | | 16 |
| 경전차 | | | 20 | | | 1 | |
| 중전차 | | | 48 | | | 11 | |
| 장갑차 또는 경장갑차 | | 7 | 13 | 7 | | | |
| 군마 | | | 10,000 | 9,000 | 2,660 | 283 | 1,000 |

54) 제주도의회, 같은 책, 188~192쪽.

55) 일본육군성, 같은 책, 25~29쪽. 표준사단, 강화사단, 특수사단.

제주도의회, 같은 책, 190~192쪽. 제96, 111, 121사단.

자동차, 군마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해당사단 편제 참조

종합적으로 보면, 제96사단은 예하부대 병력까지 포함해서 총병력을 1만 1,000명으로 본다고 해도, 편제상 일반적인 일본 육군의 최약체인 특수사단 1만3,0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고 표준사단이나 강화사단과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전차부대와 공병부대의 배속, 포병대의 강화 등을 통해 축성과 상륙전에 대비한 방어전투에 중심을 둔 편성이다.

또 제111사단의 편제는 특수사단보다는 강하고 표준사단이나 일부변경형 강화사단보다는 다소 약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병력은 1만3,000명의 특수사단 또는 1만6,000명의 표준사단과 비슷한 수준이다.⁶⁰⁾ 이상으로 보면, 제111사단은 제96사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투력을 보유했다. 또 근거리 진지전을 위한 박격포, 적의 주정과 수륙양용차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 및 산포, 장애물에 은폐 엄폐해서 진입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유탄포 등의 보유가 눈에 띈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장교 이하 연장자가 많고 장비도 빈약해 즉시전력으로는 크게 부족했다.⁶¹⁾

(2) 주요 부대의 제주도 진출상황

「결7호작전」 준비 초기(1945. 4. 1~5. 20.)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결7호작전」 계획에 따라 1945년 4월 13일 제58군 전투서열이 명령되고,⁶²⁾ 1945년 4월 20일 제58군사령관이 제주에 도착, 제주공립농업학교에서 작전지휘를 시작한다.⁶³⁾

제96사단(독립속사포제32대대 배속)은 이보다 앞서 1945년 4월 1일 보병제292연대와 박격포대가 모슬포에 도착한다. 이후 1945년 4월 10일까지 병력 대부분이 제주도에 상륙했다. 상륙 직후 주력을 제주시, 일부를 모슬포 지역에 전개하여 이미 정해진 계획을 이어받아 축성작업을 계속하였다.

56) 또는 75mm 산포 36문

57) 37mm 속사포 1문, 47mm 대전차포 (자동포) 17문

58) M38 야포 4문, M41 산포 6문

59) M92 유탄포 18문, M91 곡사포 8문

60) 일본 육군성, 같은 책. 10, 25~29쪽.

61)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같은 책, 173쪽.

62) 「策參電 第2510號」, 「機密作戰日誌(乙綴)」. 策參電은 策부대(제17방면군)에서 보낸 전보문.

63) 「玄師參電 第111號」, 「機密作戰日誌(乙綴)」. 玄師參電은 玄부대(제96사단)에서 보낸 전보문.

제111사단의 경우는 1945년 4월 4일, 제17방면군에 편입되면서 제주도로 진출을 지시받았다.⁶⁴⁾ 이에 따라 1945년 4월 8일, 선발대로 제111사단 참모장 이하 58명이 제주에 도착했다.⁶⁵⁾ 제111사단은 선발대가 도착했다는 보고 이후 1945년 7월의 부대배치에 등장하기까지 3개월 여 간이나 기밀전보문에 나오지 않는다.

독립혼성제108여단 병력은 1945년 4월 16일 제주항으로 1,642명, 서귀포항으로 1,591명 등이 도착하고 있다.⁶⁶⁾

<표 6>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 현황⁶⁷⁾

| 일 시 | 내 용 |
|--------------|---|
| 1945. 4. 1. | 제292연대, 박격포대, 모슬포 도착 |
| 1945. 4. 4. | 제111사단 제17방면군에 편입, 제주도 수비명령 받음 |
| 1945. 4. 8. | 58군사령부 제58군의 전투서열 편입 |
| | 제111사단 선발자 참모장이하 58명 도착 |
| | 제408특설경비공병대, 경비소집위해 278명(도내 207명, 육지 71명) 입대 해군 진양대 성산포 도착(9일~29일까지 서귀포, 성산포, 고산 등 배치) |
| 1945. 4. 9. | 제96사단 293연대 1,716명, 294연대 1,042명, 박격포대 412명 도착 |
| 1945. 4. 10. | 제96사단 정비인원 3,170명, 말 300마리 도착 |
| 1945. 4. 20. | 제58군사령관 도착, 채부대장(58군사령관) 제주도착(제주농업학교) |
| 1945. 5. 3. | 독립구포대대 전력, 분진대대, 작정대 2대, 전신연대 잔부, 제주도착 |
| 1945. 5. 11. | 야전중포병제15연대 제2중대, 제12공병대사령부, 제1특설근무대본부 및 제4·5중대, 제247비행장대대 일부 제주도착 |
| 1945. 5. 14. | 독립자동차300중대 선발, 독립치중병제65중대 주력 304명, 제주도착 야전중포병제15연대, 423명, 제주도착 |

(3)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일본군 배치현황

「결7호작전」 준비 초기(1945. 4. 1.~5. 20.) 일본군 배치현황은 다음 <지도

64) 「築參電 第2098號」, 「機密作戰日誌(乙綴)」.
 65) 「玄師參電 第60號」, 「機密作戰日誌(乙綴)」.
 66) 「玄師參電 第103號」, 「機密作戰日誌(乙綴)」.
 67)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4. 1~5. 20.

1>의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배치도⁶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배치도를 작성할 당시 일본군은 미군의 예상접근로를 모슬포, 한림, 제주시 등 3개 방면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보면,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한 방어선으로 서부지역(안덕~대정~한경~한림~애월)에 ‘주진지대’, 중부지역(제주시와 서귀포)에 ‘공격준비진지대’, 동부지역(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에는 ‘유격진지대’를 배치했다.

부대배치를 보면, 『결7호작전』 지휘부인 제58군사령부가 어승생악, 천아오름 일대 북쪽진지대에 위치했다. 미군의 상륙작전이 개시될 경우 제1방어선이 될 ‘주진지대’에는 제111사단을 중심으로 제96사단에서 파견된 2개 대대가 함께 배치되었으며, 제111사단사령부는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 발이악(바리매)에 두었다.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부대 집단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제1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제2방어선이 되거나. 제1방어선을 지원할 ‘공격준비진지대’에는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남과 북, 즉 제주시(제96사단)와 서귀포시(독립혼성제108여단)로 나뉘어 주둔했다. 제96사단 사령부는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민전동)에 두었고, 제주시 지역에 5개의 대대규모 부대 집단지역을 두었다. 또 독립혼성제108여단(1개 대대를 제외한)은 서귀포시 미악산 또는 입석동 부근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서귀포 녹하지악~고근산~돈내코~수악 일대 4개소에 주력부대를 두고 있다. 제1, 제2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유격진지대’의 경우는 동북부지역에 제96사단 1개 대대(송당리 주둔), 동남부지역에 독립혼성제108여단 1개 대대(성읍리 주둔)를 배치했다.

즉 미군의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슬포와 한림, 제주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라산 정상부근에 총사령부인 제58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전방에 제111사단과 제96사단, 후방에 108여단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든 부대의 배치가 이 지도와 같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점이 있다. 제58군사령부의 위치가 한라산 정상부근, 만세동산 또는 윗새오름 부근으로 나와 있는 점이 특히 그렇다.

기밀전보문에는 제58군사령관이 1945년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해 제주공립 농업학교(현 제주시 삼도1동 삼성초등학교 부근)에서 지휘를 개시했다. 이후

68)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부도제4, 같은 책. 『제주도병력기초 배치요도(濟州島兵力基礎配置要圖)』를 필자가 재구성 하였다. 이 배치도는 제121사단이 나오고 있지 않는 점, 제111사단이 서부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45년 5월 20일 경 지도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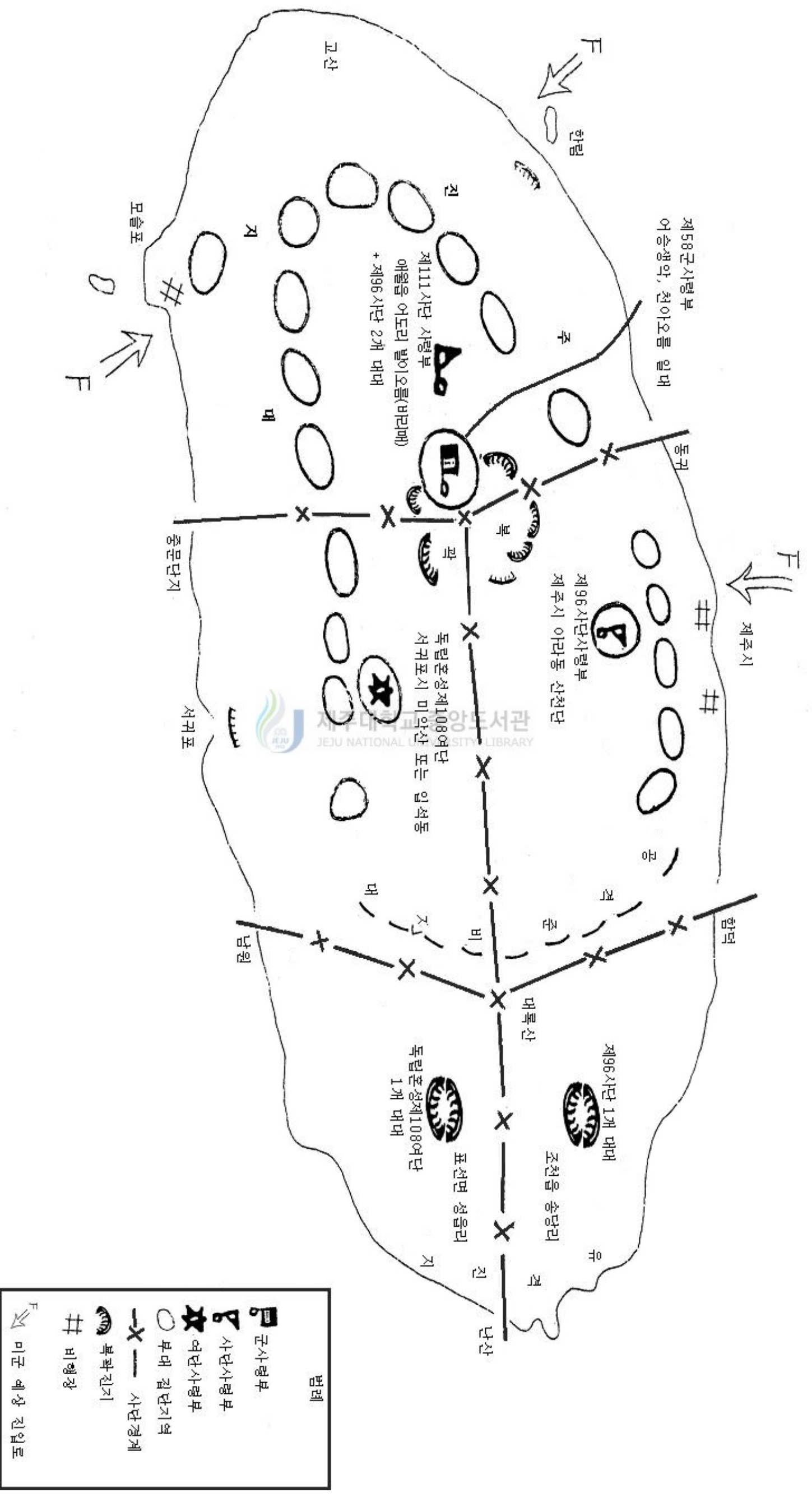
이동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1945년 7월 4일에 어승생악으로 주력이 이동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시기의 전체 배치 중 제58군사령부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라산 정상부근에는 군사령부가 위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기밀전보문에도 이동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도상의 군사령부 표시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이 시기에 실제 제58군사령부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진지구축과 기반시설 등이 완료되고 향후 전투태세로 들어갔을 때 제58군사령부가 주둔할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 시기 병력이동상황에 대해 다음의 <표 7>을 통해 살펴보면, 1945년 4월 13일 제17방면군은 육군 제주동비행장 공사중지와 교래리에 제4비밀비행장 건설을 제58군에 지시한다. 1945년 4월 15일에는 제96사단에서 제17방면군에게 제주도 동부지역에 대한 정찰결과를 보고하면서, 성산읍 수산리, 표선면 성읍리, 조천읍 교래리 주변 지역에 유격병력으로 약 1개 대대를 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제58군사령부가 제주도에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96사단이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 준비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군의 「결7호작전」 계획이 주진지대, 공격준비진지대, 유격진지대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유격진지대의 병력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4월 18일에는 제96사단사령부가 제주남방 8,000m 지점, 산천단(민전동) 부근으로 이동한다. 제58군사령부의 도착에 앞서 부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96사단사령부가 위치해 있는 장소로 제58군사령부가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제58군사령부가 제주도로 진출해 옴으로써 제96사단은 자신의 고유임무인 기동사단으로서 본래 계획된 주둔지로 옮겨갔다고 판단된다.

<지도 1> 『월7호작전』 준비 초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배치도⁶⁹⁾(1945. 4. 15~5. 20.)



69)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부표제4, 같은 책, 필자가 재구성.

1945년 4월 20일에는 제58군사령관이 제주도에 도착, 1945년 4월 22일 제주 공립농업학교에서 제58군 예하부대장 회동을 실시하고 각 부대에 새로운 배속 및 작전계획을 하달한다. 이를 통해 제58군사령부의 최초 위치는 제주공립농업학교임을 알 수 있다. 또 1945년 3월부터 구상된 「결7호작전」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제58군사령부를 비롯해 제주도로 진출하는 부대의 무기와 보급품을 보호·정리하고, 진지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공병대와 기술사관 등도 제주도로 들어온다.

1945년 4월 23일에는 제주도 주민의 조선 본토 피난 이주에 대한 협의가 제17방면군과 제58군사령부 사이에 진행된다. 제58군의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전장화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제주도 주민 중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 등 노약자를 한국 본토로 피난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45년 4월 28일에는 총독부에 외지, 특히 일본에서 제주도로 귀환하는 제주도 출신들에 대한 입도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부대배치와 진지구축에 이어 전장화되었을 경우 현지 주민의 처치문제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 결전준비였던 것이다.

1945년 4월 30일에는 제17방면군에서 제58군사령부로 「결7호작전」에 대한 작전지침이 다음과 같이 하달된다.

1. 제주도에 있어 방면군의 작전기도는 적의 제주도에 대한 공해기지 설정기도를 봉쇄하는 것이다.
2. 제58군사령관은 제17방면군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요역을 확보하고 적의 제주도 방면 요해기지, 공중, 항공기지 설정기도를 봉쇄한다.⁷⁰⁾

제58군을 지휘하는 제17방면군의 제주도에 대한 전략은 미군이 제주도내 비행장과 항만시설 등을 점령하여 본토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제58군사령부가 제주도로 진출하기 전에 제17방면군과 합동으로 작전연구를 하면서도 상호 합의했던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내의 비행장과 항만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해안결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58군의 전투태세는 이러한 전략을 상당하게 왜곡시켜 내륙결전을 의도하고 있다는 질책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작전지침을 통해 제58군사령부에 해안결전을 위한 전투태세를 지시하고 있다. 「결7호작전」 준비 초기부터 작전 지휘부

70) 「築參電 第3878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와 현지 부대 간 방어전략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 같은 이견과 관련, 제17방면군은 제58군 전력의 빈약함을 지적하고 「결7호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력 증강대책을 상부에 요구하고 있다. 제17방면군에서 일본군 참모본부에 보낸 다음과 같은 5월 1일자 기밀전보문이 그것이다.⁷¹⁾

1. 제58군의 실전력에서 포병력의 미약은 적의 항공기지 설정에 대한 유효한 제압(制壓)방해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본토결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방면군을 개편하고 병력을 증강하면서 특히 수송관계 등 가능적지(고산리 남북지구, 西海岸)에 대한 유효한 제압방해를 위해 최대한 병력과 판단이 필요하다.
2. 제주도에 제121사단을 추가파견하고 제58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둔다.

이 전보문은 제58군이 미군 상륙작전 시 초동단계의 해안결전을 통해 비행장과 항만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2개 사단, 1개 여단에 추가로 1개 사단을 더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병력의 빈약은 미군의 상륙작전 시 작전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수송작전 등이 가능한 고산 남북지구, 즉 안덕과 대정, 한림지역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여기에 최대한의 병력투입과 방어작전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력증강을 위해 제121사단을 제주도에 추가 파견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주도로 진출한 제96사단과 제111사단 등의 진지구축 작업 투입도 이날부터 본격화 된다.

1945년 5월 5일에는 제주도 주둔 해군 부대들도 육상작전에 관해서는 제58군의 지휘를 받도록 지휘선을 일원화시켰다.

1945년 5월 8일(18일의 배치는 내용 상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에는 산지항과 한림항 등에 선박 등의 엄호를 위해 야포가 배치되었다. 1945년 5월 초부터 미군 항공기와 잠수함들이 한반도 남해안으로 출격, 선박 등을 공습하고 기뢰를 부설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대한해협과 항만 등지를 보호하기 위해 고심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결7호작전」을 위해 진출하는 부대와 무기, 보급품 등이 급증하면서 이를 실어 나르는 수송선, 항만의 각종 화물 등에 대한 보호

71) 「築參電 第3877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의 필요성이 증대되기도 했다.

1945년 5월 19일에는 제주도로 진출한 모든 일본군에게 일상의 업무를 중단하고 작전준비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시 작전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표 7> 「결7호작전」 준비 초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동향⁷²⁾

| 일 시 | 내 용 |
|--------------|---|
| 1945. 4. 13. | 제주(동)비행장 공사중지, 제4비밀비행장 계획 |
| 1945. 4. 15. | 제96사단, 유격병력은 약 1대대 적당, 성산읍 수산리, 표선면 성읍리, 조천읍 교래리 주변 지역 배치의견 보고 |
| 1945. 4. 18. | 제96사단 사단사령부, 16시 민전동(제주남방 8,000m)에 전진 |
| 1945. 4. 20. | 제58군사령관 도착, 채부대장(58군사령관) 제주도착(제주공립농업학교) |
| 1945. 4. 22. | 제58군 예하병단장 회동, 각병단 신배속 및 작전계획 하달 |
| 1945. 4. 23. | 주민 정리, 육지에 피난이주 시기에 관한 의견 |
| 1945. 4. 28. | 제주도 입도자 제한에 관한 건 통첩(通牒) |
| 1945. 4. 30. | 제주도에 있어 방면군의 작전기도 하달 |
| 1945. 5. 3. | 1일부터 양사단(96, 111사단)은 진지구축에 착입 |
| 1945. 5. 5. | 해군항공 및 특공기지 부대(경비부대 제외)의 육상작전, 58군사령관에게 지휘 이전 |
| 1945. 5. 8. | 제58군 서귀포(항) 산포 2문, 제주(항) 야포 2문, 기관총 6정, 한림(항) 야포 2문, 항구 내 선박 암호를 위해 병력 및 화기배치 |
| 1945. 5. 18. | 제58군 제주(항) 야포 2정, 기관총 6정, 한림 야포 2문, 기관총 6정, 주정암호를 위해 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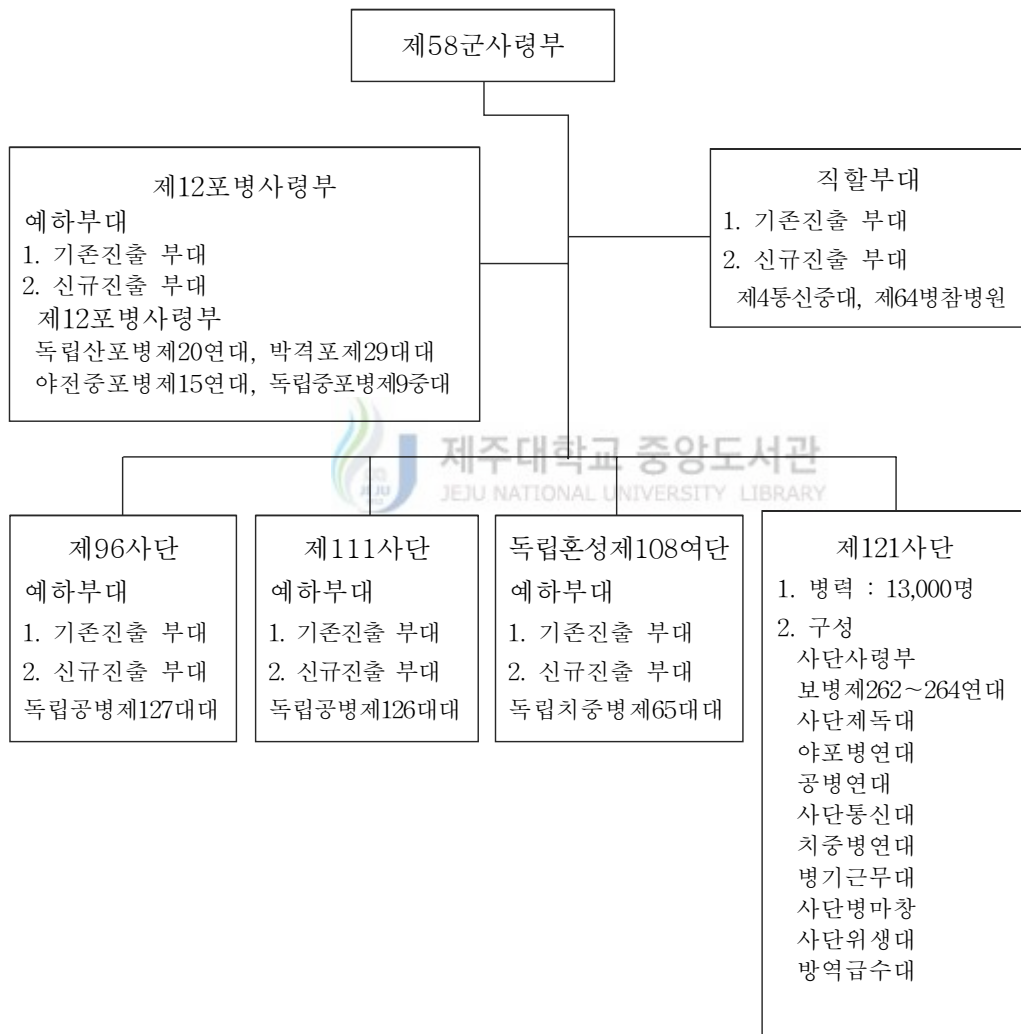
2) 「결7호작전」 준비 중기 3차병비와 병력현황(1945. 5. 21~6. 20.)

「결7호작전」 준비 중기로 오면 다음의 <도 3>에서와 같은 부대들이 제주도로 진출한다. 우선, 1945년 6월 15일 일본군 전체적으로 단행된 제3차병비에

72)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4. 1~5. 20.

의해 기동결전병단으로 제121사단이 제58군 전투서열에 편입되었다. 또 제12포병사령부와 예하 독립야포병제6연대,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박격포제29대대를 증강시켰다. 독립공병 2개 대대도 증강됨으로써 제주도에 주둔하거나 주둔 예정인 병력은 총 50,00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⁷³⁾ 또 제3차병비를 전후해 이미 제주도로 진출명령을 받은 부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도 3>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73)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부표제2, 같은 책.

이 시기에는 초기의 진지구축과 기초배치 사항들을 보완하면서 상륙방어태세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진다. 일본군의 전략 상 상륙방어를 위해서는 연안구속병단과 기동결전병단을 필요로 한다. 또 미군에게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일본군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바다와 공중으로부터 들어오는 미군에 대항할 화력이었다.

이에 따라 제121사단의 신규 진출과 포병부대의 대대적 증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 주요 부대의 구성과 전력

「결7호작전」중기인 1945년 6월 중순 경 새롭게 제주도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명령받은 부대 중 제121사단은 중국의 관동군 예하 부대로 1945년 1월 20일 신설되었다. 사령관은 마사이 요시토(正井義人) 중장이며 부대이름은 에이코(榮光)이다.⁷⁴⁾ 제121사단 편성지는 일본 시코쿠(四國)지방이며 총 병력 1만 3,000여명이다. 사단구성은 3개 보병연대, 통신대, 병기근무대, 병마창, 제독대, 위생대, 3개 야전병원, 방역급수대 등이다.⁷⁵⁾ 『조선군개요사』에는 야전병원이 나와 있지 않으나 기밀전보문에 제1·2·4야전병원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21사단이 제주도로 전용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제121사단이 보유한 주요무기는 소총 8,214정, 기관총 344정, 야포·산포·곡사포 등 화포 51문, 대전차포(자동포) 6문, 로켓포(분진포) 40문, 유탄발사기 216정 등이다. 제17방면군은 제121사단의 제주진출을 명하면서 “사단 전력으로 마필, 자동차는 편제정수의 1/3정도, 탄약 1회전분, 식량 3개월분이며 인원 14,700명,⁷⁶⁾ 말 1000필, 자동차 50대, 대속화물 미정”이라고 밝히고 있다.⁷⁷⁾

아래의 <표 8>과 <표 9>에서 보면 제121사단의 경우, 편제상으로는 표준사단이나 일부변경형 강화사단(강화사단 2)과 비슷한 수준이고, 병력면에서는 특수사단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편제상으로는 정예사단이지만 병력 누수가 다소 많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74) 임종국, 같은 책, 121쪽.

75)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조선에서의 전쟁준비」부표제3, 같은 책.

76) 여기서의 제121사단 인원은 계획상의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제주진출 인원은 「조선군개요사」의 집계 인원을 기준하였다.

77) 「築參電 第5048號」, 「機密作戰日誌(乙綴)」.

<표 8> 일본군 사단편제 비교(제121사단)78)

(단위 : 명)

| 편 제 | 사 단 | 표준사단 | | 강화 사단1 | 강화 사단2 | 특수 사단 | 121사단 | |
|-----------------|---------|--------|--------|-----------|-----------|----------|------------|------------|
| | | 총계 | 가동 | | | | 제주 진출 전 | 제주 진출 후 |
| 사단사령부 | | 300 | 300 | 465 | 410 | 250 | 195 | 13,000 |
| 사단통신대 | | 250 | 220 | 285 | 220 | 200 | 239 | |
| 위생대 | | 900 | 750 | 1,085 | 1,000 | 650 | 1,109 | |
| 야전병원 | | 1,000 | 690 | 1,000 | 960 | | | (3)79) |
| 방역급수대 | | 120 | 90 | 160 | 160 | | 239 | |
| 병마창 | | 50 | 40 | 100 | 100 | | 125 | |
| 병기근무대 | | 50 | 40 | 185 | 180 | | 112 | |
| 제독대 | | | | 190 | | | 187 | |
| 수색연대 | | 730 | 650 | 730 | 780 | | | |
| 전차대 | | | | 720 | | | | |
| 보병여단 3개 보병연대 | | 11,600 | 9,070 | 17,240 | 14,590 | 9,500 | 3,409 | |
| 포 병 단 | 사령부 | | | 160 | 160 | | | |
| | 야포병연대 | 2,300 | 2,000 | 2,380 | 2,320 | | 1,923 | |
| | 야전중포병대대 | | | 950 | | | | |
| | 소계 | | | 3,490 | 17,070 | | | |
| 공병연대 | | 900 | 750 | 1,010 | 900 | 600 | 961 | |
| 치중병연대 | | 1,800 | 1,400 | 2,730 | 2,820 | 1,800 | 1,041 | |
| 독립작정소대 | | | | | | | | |
| 기타 부대 | | | | | | | | |
| 총 병력 | | 20,000 | 16,000 | 29,400 | 24,600 | 13,000 | 9,540 | 13,000 |

78) 일본육군성, 같은 책, 25~29쪽.

79) 야전병원 3개가 추가됨

<표 9> 일본군 사단 유형별 화력비교(제121사단)⁸⁰⁾

(단위 : 명,정,문)

| 병력 및 무기 | 사 단 | 표준사단 | 강화사단 1 | 강화사단 2 | 특수사단 | 121사단 |
|------------------|-----|---------|--------|-------------------|--------|-------------------|
| 총 병력 | | 20,000 | 29,400 | 24,600 | 13,000 | 13,000 |
| 소총 | | 9,000 | 10,000 | 10,000 | 6,950 | 8,214 |
| 경기관총 | | 382 | 405 | 410 | 110 | 266 |
| 척탄통(유탄발사기) | | 340 | 460 | 450 | 112 | 216 |
| 중기관총 | | 112(76) | 112 | 112 | 32 | 78 |
| 20mm 자동포 또는 기관포 | | (18) | (75) | 78 | | |
| 37mm 또는 47mm 속사포 | | 22 | 40 | 18 ⁸¹⁾ | 16 | 6 |
| 70mm 대대포(로켓/분진) | | 18 | 36 | 36 | 8 | 40 |
| 75mm 연대포 | | 12 | 24 | 12 | | |
| 75mm 야포 또는 산포 | | 36 | 12 | 24 | | 26 ⁸²⁾ |
| 자동차 | | | 500 | | | 160 |
| 105mm 유탄포 | | | 24 | 12 | | 27 ⁸³⁾ |
| 120mm 박격포 | | | | | | |
| 150mm 유탄포 | | | 12 | | | |
| 200mm 박격포 | | | | | | |
| 경전차 | | | 20 | | | |
| 중전차 | | | 48 | | | |
| 장갑차 또는 경장갑차 | | 7 | 13 | 7 | | |
| 군마 | | | 10,000 | 9,000 | 2,660 | 2,800 |

제12포병사령부는 사령부와 예하 독립야포병 제6연대, 독립산포병 제20연대, 박격포 제29대대, 야전중포병 제15연대 등이 있다. 이 중 독립야포병제6연대는 이미 제주도로 진출해 있었다. 『조선군개요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병력은 7,730명이며 주요 화력은 야포와 산포, 곡사포 등 46문, 고사기관포 2문, 기관총 6정 등을 보유했다.

따라서 제3차병비가 시작되는 1945년 6월 15일 경에는 기존의 제58군직할부대와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에 제121사단과 제12포병사령부

80) 일본육군성, 같은 책, 25~29쪽. 표준사단, 강화사단, 특수사단.

제주도의회, 같은 책, 190~192쪽. 제96·111·121사단.

자동차, 군마는 일본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해당사단 편제 참조

81) 또는 75mm 산포 36문

82) M38 야포 18문, M41 산포 6문

83) M92 유탄포 18문, M91 곡사포 9문

가 추가 배치되고 있다.

(2) 주요 부대의 제주도 진출상황

「결7호작전」 준비 중기인 1945년 5월 21일~6월 20일 사이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상황을 다음의 <표 10>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945년 6월 2일 제121사단사령부 후발자 366명이 제주도에 도착한다.⁸⁴⁾ 후발자가 도착하는 것으로 보아 선발대는 5월 하순~6월 1일 사이에 제주도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⁸⁵⁾ 1945년 6월 2일~19일까지 사령부와 보병 제262·263·264연대를 비롯, 사단치중연대, 사단통신대, 사단공병연대, 사단야포병연대 등이 제주도로 진출한다.⁸⁶⁾ 1945년 7월 4일부터는 제1·2·4야전병원 등 지원부대가 도착한다.⁸⁷⁾

제12포병사령부는 1945년 6월 15일 제주도로 진출을 명령 받고, 1945년 7월 10일 제주도 서북부 제121사단 작전지역내 다래악으로 진출을 명받는다. 제12포병사령부 예하부대인 독립야포병제6연대는 1945년 6월 15일 제주도 도착을 완료하였고, 독립산포병제20연대와 박격포제29대대 역시 1945년 6월 15일 제3차병비에 따라 제주도로 진출이 결정되었다.

1945년 7월 4일에는 제58군사령부 주력이 어승생악으로 이동한다.⁸⁸⁾

<표 10>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현황⁸⁹⁾

| 일 시 | 내 용 |
|-------------|---|
| 1945. 6. 2. | 제121사단 사령부 후발자 366명, 제주도착 |
| 1945. 6. 3. | 121사단 보병제263연대 잔여부대, 사단야포병제1대대 대전출발->여수->제주도착 |

84) 「特參電 第106號」, 「機密作戰日誌(乙綴)」. 特參電은 特부대(제58군)에서 보낸 전보문.

85) 제121사단에 대해서는 제주도 진출 명령이 5월 26일 내려지기 때문에 최소한 5월 26일 이후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6) 「榮師參電 第32·38號」, 「特參電 第420·445·446·446號」, 「機密作戰日誌(乙綴)」. 榮師參電은 榮光부대(제121사단)에서 보낸 전보문.

87) 「特參電 第110號」, 「機密作戰日誌(乙綴)」.

88) 「特參電 第16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제58군사령부의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5월 하순경 배치도로 추측되는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에 어승생악 부근으로 표기돼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제58군사령부의 어승생악 이전은 5월경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

89)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5. 21~6. 20.

| | |
|--------------|---|
| 1945. 6. 7. | 121사단 보병제262연대 주력 1024명, 사단공병연대 제주도착 |
| 1945. 6. 10. | 121사단 제121사단사령부 인원 69명, 보병제263연대 451명, 사단치중연대 205명, 야전중포병제9중대 49명 제주도착, 제12공병대사령부 원대 복귀 |
| 1945. 6. 14. | 121사단 병마창 44명, 사단야포병연대 412명 제주도착 |
| 1945. 6. 15. | <제3차병비에 따른 병력증강> 제12포병사령부, 독립야포병제6연대(도착 완료),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박격제29대대, 독립공병대대 2개 제주 진출 명령 |
| | 제12공병대사령부 축작업대, 제58군에 편입 |
| 1945. 6. 19. | 제64병참병원 6월 20일 0시를 기해 제58군에 예속 |
| | 121사단 보병제264연대 잔여부대 662명, 병기근무대 9명, 제37(6)항공정보대 3명 제주도착 |

(3)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3차병비와 일본군 배치현황

이 시기 일본군의 배치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의 <지도 2>가 있다.⁹⁰⁾ 이 배치도는 제주도 전역을 서남부지역(모슬포와 안덕, 고산)과 서북부지역(한림, 애월), 중앙지역(제주와 서귀포), 동부지역(성산과 표선)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즉 제111사단이 맡고 있던 제주도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나누어 2개 사단이 분할하여 맡고 있으며, 남북으로 구분되었던 중앙부와 동부지역은 동서로 작전지역이 재 구분되었다. 「결7호작전」을 지휘하는 제58군사령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라산 정상부근에 위치했다. 그러나 기밀전보문에는 이때까지도 제58군사령부가 이동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도 제주공립농업학교에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작전지역별로 보면, 서남부지역의 경우는 작전범위가 모슬포와 고산, 안덕지역으로 좁혀졌다. 제111사단을 주력으로 독립혼성제108여단 2개 대대, 독립구포제23대대, 분진포제1대대(1개 중대는 다른 지역 파견), 야전중포병제15연대 주력 등이 배치됐다. 또 독립공병제126대대도 새롭게 배속되어 축성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제111사단 사령부는 당오름(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했다.⁹¹⁾ 서북부는 새롭게 제주도로 진출한 121사단이 관할했다. 사단사령부는 발

90) 이 지도의 원본에는 '제3차병비'부대를 나타냈다는 주(註)가 달려 있어 제3차 병비시기인 1945년 6월 15일 경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1) 「案參電 第8122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이악(바리매,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에 두었으며, 한림과 애월이 주요한 작전지역이다. 중앙부는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제96사단사령부가 산천단 부근에 진출해 있고, 독립속사포제32대대, 분진포제1대대 1개 중대, 야전중포병제15연대 특수포 1개 중대가 배치됐다. 동부지역은 독립혼성제108여단이 관할하고, 여단사령부를 거문오름과 부대악(조천읍 선홀리) 부근에 두었으며, 이 중 2개 대대를 제111사단에 파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주진지선(主陣地線)을 해안 근처에 설정하면서, 제111사단을 연안구속병단으로, 제121사단, 제96사단 등을 기동결전병단으로, 108여단을 유격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시기 비밀정보문을 정리한 <표 11>을 통해 일본군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1945년 5월 말이 되면서 그동안 진행된 작전준비 상황에 대해 중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1945년 5월 29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일본과 제주도 등 주요 「결호작전」 지역에 대한 작전준비의 비밀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항공촬영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대해서는 1945년 6월 6일 비행제82전대가 중앙과 동부방향으로 도두리(제주시)~와흘리(조천읍)~건월악(제주시 봉개동)~장악, 서부지역으로는 모슬포~상모리(대정읍)~밭이악(애월읍 어도리)~용수리(한경면) 일대를 촬영했다. 이러한 일본군의 항공촬영으로 볼 때 일본군의 주요한 방어진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6월 13일에는 이러한 항공촬영 결과, 연안지역의 진지구축 상황에 대해서는 미군이 충분히 정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진지구축 후의 위장은 물론, 공사 전에 자재의 집적과 공사진행 시의 위장에도 주의할 것을 각 결전부대에 지시하였다.⁹²⁾

1945년 6월 8일 일본은 국왕이 참석하는 어전회의에서 향후의 전쟁수행에 대한 기본전략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⁹³⁾

국체를 호지하고 황토를 보위하여 정전목적의 달성을 기한다. 이를 위해 특히 국내에서 거국일치 황토결전에 즉응하고, 국민의용대의 조직을 중축으로 하여 전 국민 단결을 확고히 한다. 특히 식량의 확보와 병행, 특정병기의 생산에 국가시책의 중점을 두고 이를 속히 실현토록 한다.

92) 「參電 第783號」, 「機密作戰日誌(乙綴)」.

93) 「參電 第743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이날 어전회의에서는 오키나와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일본의 국제유지와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거국일치의 황토결전을 재차 결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용대를 축으로 전 국민의 결전태세를 완비하고 식량과 특정 병기의 생산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제주도에서 역시 국민의용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전투태세 전환, 식량 확보 및 무기생산을 위한 공출 등이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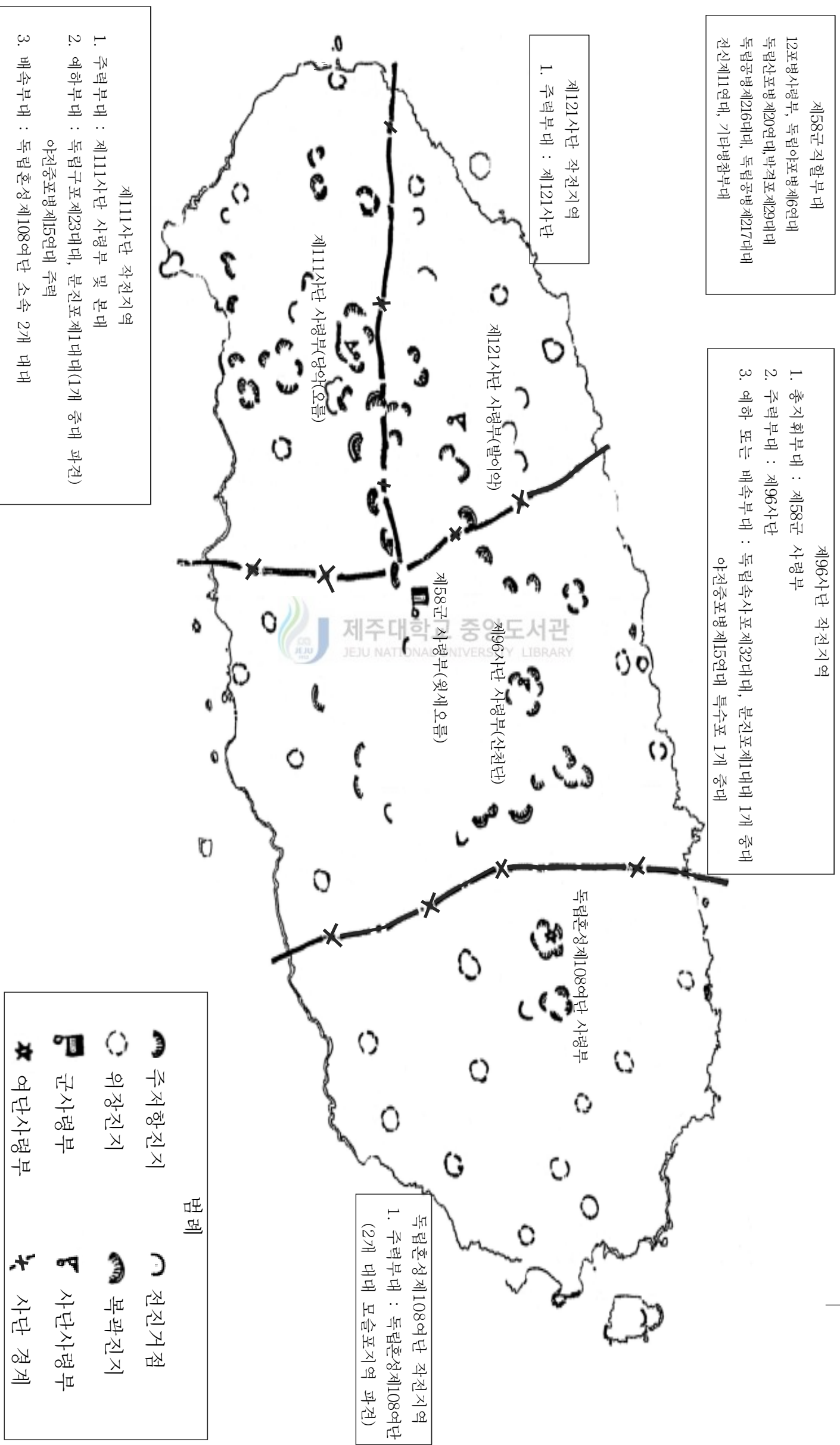
1945년 6월 14일에는 재차 교래리에 비밀비행장 공사 지시가 내려오고, 1945년 6월 15일에는 제3차병비에 따른 제반사항 하달과 함께 비밀비행장을 독립혼성제108여단 진지 내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독립혼성제108여단사령부와 비밀비행장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때까지 비밀비행장의 위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비행장 공사가 6월 중순까지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동향⁹⁴⁾

| 일 시 | 내 용 |
|--------------|--|
| 1945. 5. 29. | 전쟁지휘부 작전준비의 비밀도 판단 등 위해 제주도를 사진촬영 해 보내도록 함 |
| 1945. 6. 6. | 비행제82전대 제주도 요새구축 상황 사진 촬영 |
| 1945. 6. 8. | 일본 국왕 참석 어전회의 전쟁지도 대강 결정 |
| 1945. 6. 14. | 제17방면군에서 제58군사령관에게 교래리부근에 비밀비행장 공사 명령, 완성은 6월말 |
| 1945. 6. 15. | 3차병비강화에 따른 제반사항 하달 |
| | 전쟁지휘부 비밀비행장의 독립혼성제108여단 진지 내 위치 검토 지시 |

94)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5. 21~6. 20.

<지도 2>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배치도⁹⁵⁾
 (1945. 6. 15. 전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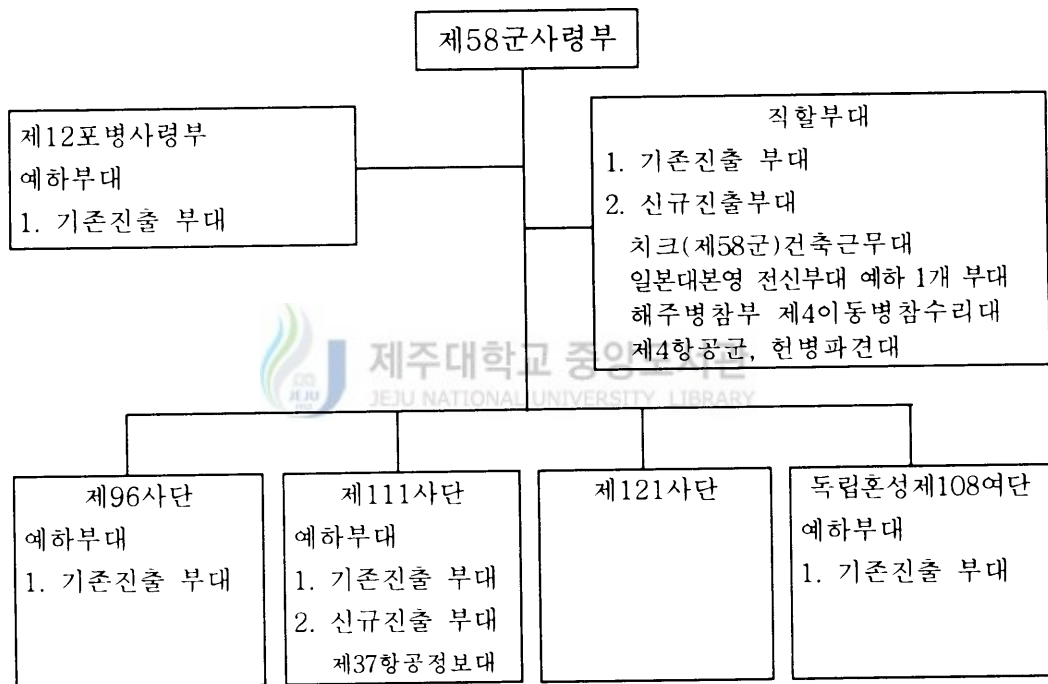
95) 『第58軍配備概見圖』,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필자가 재구성

3)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오키나와 함락과 병력현황(1945. 6. 25~8. 15.)

「결7호작전」 준비는 1945년 6월 25일 오키나와 함락으로 인한 정세변화로 일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⁹⁶⁾

미군의 주된 상륙지점이 규슈(九州) 지방이며 만약 북 규슈로 오는 경우는 기지설정을 위해 제주도 공략이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전쟁지휘부는 결전의 방법으로 미군 상륙선단에 대한 비행기의 특공,⁹⁷⁾ 미군 상륙전투의 골간 전력인 전차 격멸을 위한 진지구축과 병력운동, 육박공격⁹⁸⁾ 등의 요강을 제58군에 내려 보낸다.

<도 4>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앞의 <도 4>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병력증강과 부대배치 등이 완료되고 있는 가운데 공병대와 병참부대 등 지원부대의 신규진출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96) 임종국, 같은 책, 135~138쪽.

97)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58쪽.

98) 「參電 第174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시기다. 이와 함께 이미 진출명령을 받은 부대들이 속속 제주도로 집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력증강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전과 같은 전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본토에 있는 제120사단을 추가로 제주도에 진출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제120사단의 제주도 진출은 종전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1) 주요부대의 제주도 진출상황

「결7호작전」 준비 말기에 이르러 일본군 전쟁지휘부는 이미 제58군으로 편입을 명령받고도 현지에 도착하지 않은 부대들에 대해 조속한 제주 진출을 거듭 재촉한다. 동시에 조선 본토로부터 제120사단을 기동결전병단으로 제주도에 증파하도록 제17방면군에 지시한다.

<표 12>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일본군의 제주도 진출현황⁹⁹⁾

| 일 시 | 내 용 |
|--------------|--|
| 1945. 7. 18. | 박격포제29대대 425명, 독립공병제126연대 46명 제주도착 |
| 1945. 7. 25. | 독립공병126부대 419명, 독립산포병제20연대 728명 제주도착 |
| 1945. 7. 29. | 120사단 제주과전 요구(전쟁지휘부가 제17방면군에) 독립산포병제20연대 604명, 독립공병제126대대 22명, 제64병참병원 15명 제121사단 위생대 521명, 야전중포병제15연대 152명 전열부대수송완료 |
| 1945. 7. 30. | 건축근무제41중대 주력 승선 선도환(先島丸) 침몰 |

위의 <표 12>에서 보면, 특히 포병부대의 제주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와중에서 건축근무제41중대 주력이 승선한 수송선이 침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종전 직전 제주도에 배치된 일본군은 7만5,000여 명이 되었다. 종전으로 인해 제주도에 진출하지 못한 제120사단까지 포함한다면, 이때까지 제주도에 진출하도록 명령받은 병력은 8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120사단의 제주도 증파에 대해서는 일본 본토의 전쟁지휘부가 강력

99)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6. 21~8. 15.

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당시 한반도의 작전을 관할하던 제17방면군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도로 진출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2)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종전과 일본군 배치현황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즉 1945년 6월 21일~8월 15일 종전 시까지 일본군의 최종 배치상황은 다음의 <지도 3>을 통해 살펴본다. 이 지도 역시 1945년 6월 중순경 작성된 「제58군배비개견도」와 같이 제주도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

① 제주도 서남부지역

일본군의 최종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안덕면 지역의 경우 포병부대가 집중 배치되고 있다. 제12포병사령부 예하 독립산포병제20연대가 단산, 야전중포병제15연대가 논오름, 포병중대 병력이 율라봉, 제111사단 포병연대와 사단병마창, 제1야전병원 등이 군산, 박격포제29대대가 우보악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제111사단 예하 보병제245연대는 군산 북측에 주둔하면서 기동부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지역의 경우는 저지, 청수 등에 보병부대가 밀집하고 있다. 제111사단 보병제243연대(이계오름), 244연대(가마, 새신오름) 등 2개 연대가 이웃하여 배치되고 있다. 제12전차연대 제14중대 일부가 새신오름, 제111사단 예하 제1독립작정소대가 가마오름 부근에 주둔했다. 12포병사령부 예하 독립야포병제6연대는 고산 해안에 가까운 당산봉 부근에 위치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정지역의 경우는 주둔부대를 알아 볼 수가 없다. 다만 제12포병사령부가 가시악 부근에 위치한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 해군비행장 부근 알뜨르에 집중된 5개 부대는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제111사단의 나머지 부대가 이곳에 배치된 것으로 본다면, 제111사단 사단공병대, 사단통신대, 사단치중대, 병기근무대, 제4야전병원 등일 가능성이 있다.

1945년 7월 31일 기밀전보문에는 1945년 8월 1일자로 신규 제120사단이 전면, 제111사단 주력을 산방산(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광해악(넙계오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선 상에 전개시키고, 1개 연대는 군산(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북측에 배치해 기동준비를 시켰다.¹⁰⁰⁾ 또 내륙지역인 도너리오름에

박격포제29대대와 독립산포병제20연대를 배치하고 있다. 동부지역에 있던 독립혼성제108여단에 대해서도 전체 6개 대대 중 주력 5개 대대를 서남부지구의 한경면 청수리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기존 부대에 정예사단 병력을 추가로 전진배치 시키고, 또한 유격병력으로 후방에 배치했던 독립혼성제108여단 주력도 이동시키는 등 이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보고서』의 배치도에는 박격포제29대대가 서귀포 방면의 우보악 부근, 독립산포병제20연대는 동쪽 해안으로 전진한 안덕면 단산부근으로 표기되고 있다. 또 12포병사령부도 제121사단 작전지역인 다래악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해안가로 내려온 가시악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됐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의 경우는 부대 전체가 동부지구에 배치되어 있다.

② 제주도 서북부지역

이 지역은 제121사단이 관할했는데, 1945년 7월 10일 제17방면군 참모장은 참모본부 차장에게 “제121사단(榮光)은 적악(赤岳=붉은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 주둔¹⁰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6월 15일 경 배치도와 1945년 7월 31일 기밀전보문 등에 발이악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발이악의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1945년 7월 31일 기밀전보문에서는 서북부지역의 경우, 제121사단 주력을 금악(今岳), 발이악(發伊岳=바리매), 금덕리(今德里) 일대에 기동준비하고 일부를 북서부 연안에 배치해 경계에 임하도록 하였다.¹⁰²⁾

총전 직전에는 발이악의 사단사령부를 중심으로 보병제262·263연대가 한림읍 금악과 애월읍 금덕지역, 제264연대가 애월지역에 주둔했다. 또 사단치중연대, 사단제1야전병원은 하귀부근, 사단제4야전병원은 애월, 사단통신대는 한림, 사단야포병연대는 한림읍 금능, 병마창은 한림읍 금능 위쪽에 각각 위치했다. 기타 방역급수부, 사단제독대, 병기군무대 등도 배치되고 있으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100) 「碧濟連電 第76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01) 「築參電 第8122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02) 「碧濟連電 第76號」, 『機密作戰日誌(乙綴)』.

③ 제주도 중앙지역

이 지역에는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했다. 제58군사령부가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위치하였으며, 제58군 소속 제57비행장대대, 제247비행장대대, 제64병참병원, 독립혼성제108여단 소속 독립치중병제65대대, 제96사단 소속 독립고사포제60중대 등이 정뜨르, 즉 육군서비행장 부근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제96사단 사령부가 자리한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96사단 소속 보병제292연대가 제주컨트리클럽 부근, 제293연대가 명도암 지역, 제294연대가 삼의약 지역에 주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단통신대, 사단야전병원, 독립대전차제32대대, 제3독립작정소대 등은 서귀포 내륙부인 물장을 서남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관음사 북쪽에 야전병원, 관음사 야영장 맞은편으로 전차부대 등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야전병원의 경우는 64병참병원, 전차부대는 제12전차연대 제14중대 일부일 것으로 추측된다. 제96사단의 경우 야전병원이 1개 부대인데 이미 물장을 서남지역에 배치되고 있고, 제12전차연대 제14중대는 제주도내 유일의 전차부대이기 때문이다.

주둔위치상 보병부대 중 제293연대는 육군동비행장(진뜨르), 294연대는 육군서비행장(정뜨르) 경비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④ 제주도 동부지역

이 지역은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이다. 기밀전보문에서는 1945년 7월 10일 독립혼성제108여단을 구좌읍 송당리에 배치한다. 1945년 8월 1일자로는 동부 및 남부지구에 각 1개 대대병력을 배치해 교래리의 비밀비행장 엄호와 유격전을 전개토록 했다. 여기에 배치되는 병력의 소속부대는 불분명하지만 부대의 배치와 전후 정황으로 볼 때 제96사단 예하 1개 대대와 독립혼성제108여단 예하 1개 대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립혼성제108여단 소속 5개 대대를 서부지역 한경면 청수리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종전 직전의 배치도에는 독립혼성제108여단 병력

전체가 동부지역 요소요소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다. 즉 독립혼성제108여단사령부가 구좌읍 평대리 부근에 위치하고 예하 보병제646대대, 여단통신대, 여단공병대, 제64병참병원 1개 중대, 제2독립작정소대, 독립자동차제300중대 등이 배치됐다. 또 보병제644대대는 함덕, 보병제643와 645대대는 김녕과 표선, 647대대는 하도, 642대대는 성산지역에 각각 주둔했다.¹⁰³⁾

이렇게 본다면 독립혼성제108여단은 1945년 8월 초에 주력이 한경면 청수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동부지역으로 되돌아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부전 지역에 보병대대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 청수리로 이동하는 것은 계획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표 13>을 중심으로 『미군정보고서』의 배치도와 기밀전보문을 종합 비교해 보면, 일본은 1945년 6월 25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결7호작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1945년 7월말 전황 변화와 함께 제120사단 증파 결정 등으로 병력증강과 부대 재배치를 실시한다.

제58군사령부는 상부에 1945년 7월 4일 사령부 주력이 어승생악으로 이동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나, 당시까지 어승생악의 진지구축 상황과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력이 이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종전을 맞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따라서 이곳에는 제58군사령부 일부가 이동해 있다가 종전을 전후해 다시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일본의 전쟁지휘부는 신규 진출예정인 제120사단을 서부와 북부지역의 기존 사단 전면에 전진배치시킴으로써 해안결전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또 독립혼성제108여단 주력 대부분도 서부지역으로 집결시켜 최후의 결전에 대비토록 하였다.

103) 제주도의회, 같은 책, 187~188쪽.

<표 13> 「결7호작전」 준비 중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동향¹⁰⁴⁾

| 일 시 | 내 용 |
|--------------|---|
| 1945. 7. 4. | 58군 사령부 주력 어승생악으로 이전 |
| 1945. 7. 10. | <58군 부대배치 변경> 58군사령부(曄) 어승생악, 96사단사령부(玄) 민전동(산천단), 111사단사령부(市) 당오름 121사단사령부(榮光) 적악(赤岳), 108여단사령부(翠) 송당리, 12포병사령부 다래악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및 박격제29대대 도을악(도너리오름) 독립공병제126대대 111사단 지구 배속 독립공병제127대대 96사단 지구 배속 |
| 1945. 8. 1. | <제58군 부대배치 변경> 108여단 주력 5개대대 서부지구 한경면 청수리 부근 배치 111사단 주력병력 산방산~광해악일대 전개, 1개 연대 군산 북측에 기동준비 121사단 주력병력 금악~밭이악(바리매)~금덕리(기동준비), 일부 북서부 연안 경비 96사단 주력병력 동서부비행장 근처 배치, 상황따라 기동 각 1개 대대 동부 및 남부지구 배치, 교래리 비밀비행장 경계 등 각 1개 대대 기간 제주동, 서, 모슬포비행장 배치, 비행장 확보 120사단 주력병력 서부지구 전면배치, 일부 북부지구 전면배치 |



104)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6. 21.~8. 15.

(3) 「결7호작전」 준비 말기, 제주도 주민의 전쟁동원 준비

「결7호작전」 준비 말기로 오면서는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항하기 위한 제주도 주민의 전투동원과 통제에 대한 계획들도 마련된다.

1945년 6월 8일 한국 전역에서 면장이나 직장의 장을 책임자로 하여 국민의용대가 조직되었다. 남자는 14세~60세, 여자는 14세~45세까지 '의용'이라는 명목 하에 '징용'보다도 간단히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45년 7월 31일 제58군 참모장이 제17방면군 참모장에게 보낸 기밀전보문에서는 “도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전력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민에서부터 가축, 작물, 토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모든 것에 대해 전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현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책의 제주도 주재관이었던 샌다전평(千田專平)도 “제1회 피난민을 태운 배가 조난했기 때문에 수송은 일부만으로 그치고, 남은 사람은 미군 상륙 시에 산에 들어가 군과 행동을 같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쟁 시에는 국민의용대를 전투동원조직으로 하는 의용전투대 구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과 동시에 내심으로는 제주도 주민을 전력으로써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17방면군이 1945년 7월 30일 작성한 '조선을 중심으로 한 7월말 경의 정세판단'과 '작전준비 촉진에 관한 방면군의 희망사항'에는 제주도 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방면군으로서 이 필승정책의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심 의심스러움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후의 근심'마저 느껴진다. 일부 훈련된 장정에게는 상당한 기대를 걸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은 여전히 사대사상의 구태를 벗기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만일 적기의 폭격에 더하여 조선의 일각에 적군의 진행을 본 적 없지만, 민심 일반의 동요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태업 상대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군이 상륙하면 이에 호의를 갖는 자가 비교적 많으므로 주민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없다.¹⁰⁶⁾

106)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50~254쪽.

제17방면군은 미군 상륙작전 시 제주도 주민들도 방어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전투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제주도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한다면 제주도 주민들의 동요는 더욱 심각해지고, 나아가서는 일본군에 협조하지 않거나 미군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불안은 제주도가 전장화 되었을 경우, 오키나와에서와 같이 공격군에 의한 대량 희생과 일본군에 의한 주민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한다.

한편 제주도에 대한 미군 공군기와 잠수함의 공격도 가해지기 시작했다. 1945년 4월에는 비양도 근처에서 일본군 수송선이 미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침몰했다. 또 제주도민을 한국 본토로 소개하기 위한 최초의 피난선도 미군의 공격으로 침몰, 민간인 수백 명이 수장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또 1945년 7월에는 미군기가 한림항 군기고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 속에 쌓여있던 폭탄이 폭발, 인근의 민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는데, 이 공습으로 ‘민가 파손 400호, 사망자 30여 명, 부상자 200여 명을 냈다’는 기록도 있다.



IV.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1. 방어진지

1) 일본군의 진지구축 개념

본토결전을 위해 일본군은 위장진지·전진거점·주저항진지·복곽진지 등 4 종류의 진지를 구축하는데, 제주도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다.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을 흡수 또는 분산시켜 적의 진행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진거점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위치하며 여기에 부대의 일부를 파견하여 요점이 적에게 뺏기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적에게 전개방향을 틀리게 함으로써 주저항진지에 접근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저항진지는 모든 진지의 골격에서 주력을 다하여 방어하는 진지대로, 보병의 항전지대와 그 후방의 주력포병 및 설비로 이루어진다. 주저항거점은 통상 보병 1개 대대를 기본으로 한다.¹⁰⁷⁾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써 마련되었다.

일본군 사단 규모 방어진지 구축기준을 보면, 사단은 주력과 일부 부대로 구분하여 평지에 배치하고 전방에 해안진지대를 구축한다. 진지는 주로 야전축성이며 완성까지는 4개월 정도 걸린다. 진지는 특히 바다와 공중으로부터의 격렬한 포, 폭격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적의 상륙방면에서는 그 우세한 전차의 공격에 대항해 강고하게 전투할 수 있도록 편성된다.

수제진지(水際陣地)¹⁰⁸⁾는 적의 상륙방면 해상 및 해안선부근에 위치해 주로 미군의 상륙정과 전차를 공격하는데 주목적을 둔다.

주저항진지에 있어서 거점은 각각 독립성을 가지며, 주로 적의 전차에 대한 전투를 위주로 한다. 사방이 견고하게 편성된 진내에는 필요한 탄약, 식량, 음용수를 확보하여 장기지구전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바다와 하늘로부터 적의 공격에 대해 가급적 진지를 은폐시키고, 적 전력의

107) 일본참모본부 교육총감부, 『상륙방어교령(안)補遺』, 1945. 7. 39쪽.

108) 해안가 진지를 일컫는 것으로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최전선 진지, 즉 전진거점의 성격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보임.

분산을 위해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거점과 그 주변에 대규모 위(偽裝)진지를 구축한다.

대전차전투는 장애물과 화력에 의존하므로 외곽진지에서의 유격 및 육탄공격을 중시하고 진지 및 진지 앞에 다수의 잠복거점을 준비한다.

주요한 시설은 20cm급 포탄 등에 대항하기위해 갱도(동굴) 등 지하시설에 철저히 은폐한다.

진지구축 공사는 다음의 <표 14>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¹⁰⁹⁾ 제1단계는 진지의 정찰, 편성, 계획, 제작 등의 시기다. 경엄개(輕掩蓋),¹¹⁰⁾ 장애물과 병행한 중엄개(中掩蓋), 갱도식엄폐부재료(坑道式掩蔽部材料)의 1/3을 준비한다. 진지 내 교통설비, 특히 방공에 대한 응급시설은 우선 신속하게 실시한다.

제2단계는 진지구축으로서 사격, 시찰, 연락, 장애, 교통, 엄호 등의 설비를 중심으로 상호 조직적으로 설치하여 응급태세를 정비함으로써 진지조직을 완료한다. 단 대전차시설은 속히 실시하고 구축에 기간을 요하는 갱도식엄폐부 등은 다음에 공사를 착수한다.

제3단계는 점차 진지의 강도를 높여 갱도(동굴)식 제시설, 역습을 위한 제시설 및 유격거점과 병행한 위장진지 등의 구축, 기타 일체의 공사를 실시하여 진지를 완성한다. 필요시 교통망을 절단한다.

사단의 주요축성시설은 다음과 같다.¹¹¹⁾

경엄개(經掩蓋) : 각개엄체(各個掩體), 화기용엄체(火器用掩體), 지휘감시소, 관측소, 인원용엄폐부(人員用掩蔽部)(4인용), 탄약·식량·물·기재치장

중엄개(中掩蓋) : 화기용엄체, 엄포소(掩砲所)

갱도식(동굴, 坑道式) : 엄총(포)소(掩銃(砲)所), 병원(兵員) 및 지휘관용(中), 지휘관용(大), 의료용(中), 연료·탄약·식량(小)

일본군이 제주도에 구축한 진지는 1945년 8월 15일 종전 시 기준으로 60% 정도의 진척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다음 <표 14>의 진지구축 공정표 상으로는 전체 4개월의 공정 중 2.5개월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9) 일본참모본부 교육총감부, 『상륙방어교령(안)』, 1944. 10, 208~209쪽.

110) 참호나 방공호 따위의 덮개.

111) 일본참모본부 교육총감부, 『別紙第四 주요 축성시설 수량표』, 같은 책.

60%의 진척도를 감안한다면, 이때까지 공정율은 사단 단위의 진지구축 계획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정찰과 편성, 자재정비 및 수송 등이 완료된다. 또 경엽개 및 중엽개 구축작업도 완성되는 시점이다. 갯도(동굴)식 엀폐부는 2/3 정도 완성되고 장애물은 주요부분에 대한 설치를 완성하여 보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공정표만 놓고 본다면, 제주도에서의 일본군 진지구축 작업은 주요부분이 완료되고 지휘부와 병원, 각종 보급품 등이 들어갈 갯도(동굴)식 엀폐부를 완성해 가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일본군 사단 진지구축 공정표

| 공사내용 | | 일 정 | | 제1단계 | | 제2단계 | | 제3단계 | | 적 요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1차 | 2차 | 3차 | 4차 | |
| 사단 계획 지도 및 보급 | 정찰·편성·구축계획 | _____ | | | | | | | | |
| | 자재정비 | 1차 | | 2차 | | | | 자재 정비/수송의 제1차는 경엽개, 장애물 재료와 중엽개, 갯도식엀폐부 재료의 일부를 행한다. | | |
| | 자재수송 | 1차 | | 2차 | | | | | | |
| 작업 부대 | 정찰/편성계획 | 1차 | | 2차 | | 제2차는 예비진지, 유격거점, 진지간극의 위진지, 교통로 절단 등을 실시한다. | | | | |
| | 자재운반정비 | | | 1차 | | 2차 | | | | |
| | 경엽개구축물 | | | | | 중화기, 시찰 등의 골간시설을 먼저 완성한다. | | | | |
| | 중엽개구축물 | | | | | | | 상동 | | |
| | 보병일반진지 | 중요부분 완성 | | 보완 | | | | 사격설비를 우선 완성한다. | | |
| | 장애물 | 중요부분 완성 | | 보완 | | | | 대전차설비를 신속하게 구축한다. | | |
| | 갯도식엀폐부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비고 | 작업은 우선 작업업호를 위하여 고사포진지 및 수재진지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방어지대의 전중심(全縱深)으로 실시하고 다음으로 예비진지, 위진지 등을 구축한다. | | | | | | | | | |

2)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현황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ㄱ’자형, ‘ㄷ’자형, ‘E’자형, 격(格)자형, 수지(樹脂)형, 수직(垂直) 및 관통(貫通)형, 복합(複合)형, 미로(迷路)형, ‘T’자형, ‘F’자형, ‘H’자형 등으로 구분된다.

‘ㄱ’자형은 제주도 연안지역에 구축된 소형 또는 중형 동굴로서 주로 연안방어에 이용하거나 적의 상륙 시 공격하기 위해 구축된 요새다. 서귀포의 삼매봉, 고산의 수월봉과 당산봉, 성산포의 성산일출봉 등 지역에 구축돼 있다. ‘ㄷ’자형 또는 쌍‘ㄷ’자형은 주로 연안방어에 이용하는 동굴로 추정되며 송악산 연안과 성산일출봉, 서우봉 지역, 논오름 등지에 구축돼 있다. ‘E’자형 동굴은 서우봉 본부 지역에 구축된 동굴과 성산일출봉 본부 지역에 구축되어 있다. 격자형은 안생이오름, 발생이오름, 셋알오름 등에 구축되어 있으며, 수지(樹脂)형은 사라봉, 대록산 등에 구축되어 있는 동굴 중 정상과 관통되는 동굴이 해당된다. 수직(垂直) 및 관통(貫通)형은 서거문이오름, 가마오름, 논오름, 대록산, 월라봉, 산방산 동굴 등이며, 복합(複合)형은 셋알오름, 가마오름 동굴이 해당된다. 미로(迷路)형은 제58군사령부의 본부지역인 어승생악 복곽진지가 있다.¹¹²⁾

다음의 <표 15>와 같이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에 구축하거나 예정인 일본군 진지는 모두 104개소 정도이다.¹¹³⁾ 지역별로는 미군 상륙가능성이 가장 큰 안덕, 대정, 한경 등 서남부 지역이 34개소, 중앙부(제주시, 서귀포) 지역 33개소, 동부지역(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21개소, 서북부 지역(한림, 애월) 16개소 등이다.

진지의 유형별로는 주저항진지가 54개소로 가장 많고, 위장진지 21개소, 전진거점 18개소, 복곽진지 11개소 등이다. 주저항진지는 서남부지역의 안덕과 한경, 중앙부의 제주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전진거점은 중앙부 6개소, 서남부, 서북부 각 5개소이며, 위장진지는 동부지역에 11개소, 중앙부 5개소, 서북부지역 3개소, 서남부지역 2개소 등이다. 복곽진지는 서남부지역과 중앙부에 각각 5개소, 서북부에 1개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결7호작전」 지휘부인 제58군사령부는 기동병단이 위치한 공격진지대, 즉

112)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1, 2005. 51~54쪽. ‘진지동굴’이라는 용어는 제주도동굴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였다.

113) 여기에서 진지의 개념은 개별 진지가 아니라 진지들의 집단지역으로 본다.

제주시 삼도1동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위치하고 상륙전이 시작되거나 전황이 불리해지면 한라산 정상부근 윗새오름·어승생악 일대 북곽진지에서 전투의 지휘, 또는 최후의 저항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저항진지는 방어작전의 중추적 진지이기 때문에 서남부의 안덕과 한경, 제주시 등에 집중됨으로써 미군의 상륙전이 전개될 경우 주전장이 될 지역임을 보여준다. 즉 미군이 모슬포 또는 고산 방면으로 상륙해 오는 경우, 1차 서남부에서 제111사단이 방어하고, 여기서 밀리면 제주시에서 2차 방어전을 하며, 여기서도 패하면 마지막으로 한라산 정상부근 북곽진지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겠다는 진지배치다. 『결7호작전』 준비 초기에는 한림과 제주시 방면으로도 미군의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점차 모슬포 방면으로의 접근가능성에 중심을 둔 진지배치로 보여진다.

한림, 애월 등 서북부지역에는 계획된 진지가 다른 곳보다 많지 않다. 이것은 각 지역별 전략적 가치, 주둔부대의 임무 등과 무관하지 않다. 안덕·대정·한경의 제111사단은 연안구속병단으로서 이 지역에 못 박혀 방어전에 임하는 임무다. 따라서 서남부지역은 구축된 방어진지를 중심으로 전투준비를 하고 있으나, 서북부지역은 주저항진지를 많이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기동병단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15> 『결7호작전』을 위한 제주도내 일본군 방어진지¹¹⁴⁾ (단위 : 개소)

| 지 역 | 진지의 종류 | 주저항 진지 | 전진 거점 | 위장 진지 | 북곽 진지 | 합 계 |
|---------------------------|--------|--------|-------|-------|-------|-----|
| 서남부 지역(안덕, 대정, 한경) | | 22 | 5 | 2 | 5 | 34 |
| 서북부 지역(한림, 애월) | | 7 | 5 | 3 | 1 | 16 |
| 중앙부(제주시, 서귀포) | | 17 | 6 | 5 | 5 | 33 |
| 동부 지역(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 | 8 | 2 | 11 | | 21 |
| 합 계 | | 54 | 18 | 21 | 11 | 104 |

114) 『제58군배비개건도』,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1945.

2) 주요 작전지역별 군사시설

(1) 제주도 서남부지역 일본군 시설(안덕~대정~한경지역, 제111사단 작전지역)

이 지역은 『결7호작전』 지역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군의 예상접근로이기 때문에 주진지대를 형성하고 연안구축병단으로 제111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결7호작전』 초기인 1945년 4월~5월 하순에는 모슬봉을 비롯하여 해안선에서 다소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6개의 부대 집단지역을 설정해 놓았었다. 또 천아오름, 붉은오름 일대에는 3개의 복곽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¹⁵⁾

이러한 것들이 『결7호작전』 중기인 1945년 6월 중순으로 넘어 오면, 위장진지 2개소, 전진거점 5개소, 주저항진지 22개소, 복곽진지 5개소 등 모두 34개소의 각종 진지가 구축되는 것으로 세분화되고 있다.¹¹⁶⁾

<표 16> 서남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1 | 안덕면 동광리 원수악·도너리·당오름 | 4 |
| 2 | 안덕면 광평리 조근대비악 | 1 |
| 3 | 안덕면 동광·회순·서광리 거린·논·넙개(광해악)·밝은(명)오름 | 4 |
| 4 | 안덕면 창천리 군산 | 3 |
| 5 | 안덕면 감산리 월라봉 | 1 |
| 6 |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 1 |
| 7 | 안덕면 사계리 단산 | 1 |
| 8 | 한경면 산양·청수리 가마·새신(신서)오름 | 2 |
| 9 | 한경면 조수리 굽은오름 | 2 |
| 10 |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 1 |
| 11 | 한경면 저지리 이계오름·저지(새)·마오름 | 2 |
| 합 계 | | 22 |

이 중에서도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16>과 같이 전체 22개소 중 안덕면 15

115)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부도제4, 같은 책.

116) <표 16~30>까지 나오는 진지의 일련번호는 <지도 4>에 표기된 숫자로 각각의 진지 위치를 표시한다.

개소, 한경면 7개소 등으로 안덕면에 집중되고 있다. 안덕면의 경우는 산방산, 단산, 군산, 월라봉 등 해안가에 6개소, 광해약 등 내륙지방으로 9개소가 분포한다. 또 한경면의 경우는 당산봉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가 가마오름을 중심으로 한 청수, 산양, 조수, 저지리 일대에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111사단사령부는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당오름(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했다. 그 주변 원수약, 도너리오름 일대에 넓게 주저항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주저항진지 22개소가 22개 대대에 해당된다면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을 요하는 진지규모이다.

<표 17> 서남부지역 전진거점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12 | 안덕면 서광서리 구릉지 | 1 |
| 13 | 안덕면 서광리 남송이 | 1 |
| 14 | 안덕면 상천리 병악 | 1 |
| 15 |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 1 |
| 16 | 대정읍 상모리 모슬봉 | 1 |
| 합 계 | | 5 |

위의 <표 17>과 같이 전진거점의 경우는 안덕면 서광, 창천, 대정읍 상모리에 5개소가 구축되고 있다. 안덕면 서광, 창천리의 전진거점은 제111사단사령부를 배후에 두고 대정읍 해군비행장(알뜨르)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대정읍 상모리 전진거점은 해군비행장 전면 해안에 위치, 미군 상륙 시 최전선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8> 서남부지역 위장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17 | 대정읍 동일리 가시오름 | 1 |
| 18 | 서귀포 색달동 우보악 | 1 |
| 합 계 | | 2 |

<표 18>에서 보듯, 위장진지는 2개소가 계획되었다. 위치는 대정읍 동일리 해안가 오름과 서귀포시 우보약 부근 등이다. 위장진지는 미군의 상륙 예상지점인 송악산 해안에서 좌우로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적의 시선을 거점지역으로부터 돌리려는 작전의도를 읽을 수 있다.

<표 19> 서남부지역 복곽진지 구축상황(제11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19 | 안덕면 광평리 왕이매 | 1 |
| 20 |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 1 |
| 21 | 안덕면 상천리 돌(도을)오름 | 1 |
| 22 | 한라산 정상 동쪽 삼형제봉(불래오름) | 1 |
| 23 | 오백나한 서쪽 윗새오름 | 1 |
| 합 계 | | 5 |

위의 <표 19>와 같이 복곽진지는 5개소이다. 모두가 안덕면 내륙 깊숙한 지역으로 제121사단 경계지점을 따라 한라산 정산부근까지 분포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서남부지역, 즉 제111사단 작전지역은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제1 저지선이자 주된 결전장소로 설정되고 있다. 다른 작전지역보다 좁은 공간임에도 가장 많은 진지가 대규모로 구축되고 있으며, 특히 작전 시 가장 핵심적 기능인 주저항진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곳에서의 진지구축은 제주도 남부해안으로 상륙하는 미군의 작전을 예상한 배치다. 송악산과 해군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달리 안덕면 군산~윌라봉~산방산~단산으로 이어지는 해안 변 오름에 주저항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 그 좌우로는 위장진지를 배치해 적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또한 그 뒤를 광해악 등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주저항진지들이 받치고, 다시 그 배후에 사단사령부를 포함해 주저항진지대가 형성되는 3단계의 진지배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주저항진지의 전면에는 전진거점이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주저항진지, 전진거점, 위장진지의 배후로 내륙 깊숙한 지점에서부터 한라산 정산부근의 제58군사령부까지 복곽진지가 이어지고 있다. 주저항진지에서의 전투에 패하는 경우 최후의 저항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2) 제주도 서북부지역 일본군 시설(한경~한림~애월지역, 제121사단 작전지역)

『결7호작전』 초기인 1945년 4월~5월 하순에는 주진지대로서 해안에서 다소 떨어져 한라산과 해안의 중간지점인 중산간을 따라 4개소의 부대 집단지역이 설정되었다. 1945년 6월 중순 들어서면 해안에 위장진지 3개소, 중산간에 전진 거점 5개소, 내륙지역에 주저항진지 7개소, 동쪽 경계 내륙부에 복곽진지 1개소 등을 구축, 또는 계획되고 있다.

<표 20> 제주도 서북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31 | 애월읍 봉성리 이달봉 | 1 |
| 32 | 애월읍 봉성리 셋별오름 | 1 |
| 33 | 애월읍 봉성리 북돌아진오름 | 1 |
| 34 | 애월읍 봉성리 다래오름 | 1 |
| 35 | 애월읍 봉성리 빈내오름 | 1 |
| 36 | 애월읍 장전리 켓물오름 | 1 |
| 37 |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매 | 1 |
| 합 계 | | 7 |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20>과 같이 전체 7개소가 모두 애월읍 내륙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애월읍 봉성리에 주저항진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애월읍 장전리와 유수암리에 구축되어 있다. 봉성리와 장전리, 유수암리는 대정읍 모슬포 및 고산과 제58군사령부가 위치할 어승생악 또는 한라산 정상부근 윗새오름 등지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의 교통 요지이다.

이 지역을 관할했던 제121사단사령부는 최종적으로 애월읍 봉성리와 인접한 어도리 발이악(바리매)에 위치하였다. 또 장전리와 유수암리 등과 인접한 노꼬매를 중심으로는 보병 1개 연대가 주둔했다.

주저항진지 구축상황으로 보면 일본군 2개 연대병력 정도가 배치될 수 있는 규모다.

<표 21> 제주도 서북부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38 | 애월읍 고성리 알오름 | 1 |
| 39 | 애월읍 유수암 극락오름 | 1 |
| 40 | 애월읍 소길리 검은덕이 | 1 |
| 41 | 한림읍 금악리 금악 | 1 |
| 42 | 한림읍 상명리 망오름 | 1 |
| 합 계 | | 5 |

위의 <표 21>과 같이 전진거점의 경우는 애월읍 고성리와 유수암리, 소길리, 한림읍 금악리와 상명리 등에 5개소가 구축되고 있다. 고성리와 유수암리 소길리는 노꼬매를 북부해안과 동서에서 둘러싸고 있다. 또 금악리와 상명리는 발이악(바리매)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표 22> 제주도 서북부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43 |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 1 |
| 44 | 한림읍 월림리 정월오름 | 1 |
| 45 | 애월읍 봉성리 어도오름 | 1 |
| 합 계 | | 3 |

위의 <표 22>에서 보듯, 위장진지는 3개소가 계획되었다. 위치는 애월읍 고내리와 봉성리, 한림읍 월림리 등이다. 고내리는 제주도 서북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봉성리와 월림리는 서북부 내륙에 위치한다.

<표 23> 제주도 서북부지역 복곽진지 구축 상황(제121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46 | 애월읍 광령리 천아오름 | 1 |

위의 <표 23>에서와 같이 복곽진지는 1개소이다. 제58군사령부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어승생악에 가까운 천아오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 일본군 시설의 특징은 지역을 균분해서 위장진지가 구축되고 전진거점은 서남부와 동북부 경계지점에 밀집해 있다. 주저항진지는 해안에서 떨어져 비교적 내륙 깊숙한 지역의 복곽진지와 비슷한 위치에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는 주둔 병력에 비해 진지 등 방어시설이 현저하게 빈약하다. 또 실제 탐사결과 서남부지역 등에 비해 진지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 서남부지역이 해안에서부터 사단사령부가 있는 내륙부까지 체계적으로 병력배치가 되고 또한 사단사령부를 둘러싼 방어태세가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 지역은 사단사령부의 방어태세도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보인다.

따라서 제121사단은 서북부지역을 방어하기 보다는 서남부의 제111사단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부해안, 즉 고산·한림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진지배치로 보인다.

(3) 제주도 중앙부 일본군 시설(제주시와 서귀포시, 제96사단 작전지역)

이 지역은 「결7호작전」 준비 초기인 1945년 4월~5월 하순에 공격준비진지대로 설정되어, 제주시 지역에 부대 집단지역 5개소, 어승생악, 천아오름 일대에 복곽진지 3개소, 서귀포지역에는 중산간에 부대 집단지역 5개소 등이 계획된다. 제58군사령부가 윗새오름 복곽진지, 제96사단이 제주시 삼도1동 제주공립농업학교 부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서귀포시 미악(쌀오름) 부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결7호작전」 준비 중기인 1945년 6월 중순으로 오면 주저항진지 17개소, 전진거점 6개소, 위장진지 5개소, 복곽진지 5개소 등 모두 32개소의 각종 진지가 구축 또는 계획된다. 제주시 지역에 해안을 따라 위장진지 2개소, 전진거점 4개소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주저항진지 15개소, 복곽진지 4개소 등이 있다. 서귀포지역은 남쪽 해안을 따라 위장진지 4개소, 전진거점 1개소, 주저항진지 2개소, 복곽진지 1개소 등이 있다.

<표 24> 제주도 중앙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51 | 제주시 연동 노루오름 | 1 |
| 52 | 제주시 해안연동오라 동 눈오름·남조순오름·민오름·괭이(광열)·상여오름 | 4 |
| 53 | 제주시 아라·오등동 삼의약(새미)·서삼봉·소산봉(산천단) | 5 |
| 54 | 제주시 봉개동 열안지·칠·노루손이·명도암·팔(밭)생이·안생이오름 | 4 |
| 55 |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고진(거친)오름 | 1 |
| 56 | 남원읍 하예리 입석동·돈내코·수악 | 2 |
| 합 계 | | 17 |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24>와 같이 전체 17개소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륙부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일대, 봉개동 열안지 및 절물 일대, 서귀포시와 남원읍 경계지점인 돈내코 일대에 진지가 형성되고 있다. 제96사단사령부가 중앙에, 그 좌우로 보병연대 병력이 주둔하는 진지배치다. 제주도 중앙북부 해안의 일본 육군 제주도동·서비행장과 산지항을 경계하는 배치로 보여진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96사단사령부는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부근 주저항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주저항진지의 규모로 볼 때 5~6개의 보병연대가 작전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5> 제주도 중앙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57 | 표선면 가시리 여문영아리·물영아리 | 1 |
| 58 | 남원읍 위미리 보리·논고약 | 1 |
| 59 | 제주시 화북1동 사라봉·별도봉·화북봉 | 1 |
| 60 | 제주시 삼양1동 원당봉 | 2 |
| 61 | 한라산 정상부근 흙붉은오름·사라오름 | 1 |
| 합 계 | | 6 |

위의 <표 25>와 같이 전진거점의 경우는 제주시 해안가와 내륙부의 북쪽진지대에 6개가 구축되고 있다. 제주시 해안의 전진거점은 일본 육군동·서비행

장과 산지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내륙의 전진거점은 제58군 사령부 등 북쪽진지에 대한 1선 방어진지로 보인다.

<표 26> 제주도 중앙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62 | 남원읍 위미리 자배봉 | 1 |
| 63 | 서귀포 상호2동 칩오름 | 1 |
| 64 | 서귀포 서흥동 삼매봉 | 1 |
| 65 | 서귀포 서호동 고근산 | 1 |
| 66 | 제주시 건입동 사라알오름 | 1 |
| 합 계 | | 5 |

위장진지는 위 <표 26>과 같이 한라산 남쪽의 서귀포 해안에 주로 배치되고 있다. 남원읍과 경계지점에서부터 중문까지 4개소가 구축되고 있다. 또 제주시 지역에는 산지향과 사라봉 위쪽으로 위장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표 27> 제주도 중앙지역 북쪽진지 구축 상황(제96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67 |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악 | 1 |
| 68 | 제주시 연동 거문오름 | 1 |
| 69 | 제주시 봉개동 개월오름(견월악) | 1 |
| 70 | 표선면 가시리 가문이(거문)구두리·챗망오름 | 1 |
| 71 | 서귀포 동홍동 미악(쌀오름) | 1 |
| 합 계 | | 5 |

북쪽진지는 위 <표 27>과 같이 한라산 정상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어승생악과 그 아래의 거문오름, 그리고 제주시 봉개동 개월오름과 표선면 가시리 거문오름 일대에 구축되고 있다. 또 한라산 남쪽으로는 돈내코 일대의 주저항진지보다 남부해안에 더 접근된 미악(쌀오름) 일대에 구축되고 있다.

결국 제주도 중앙지역의 경우는 미군의 예상접근로로 제주도 북부 해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은 중앙부분에 위장진지를 구축하고, 그 전방 좌우로 일선 방어선인 전진거점을 구축했다. 주저항진지는 제96사단사령부를 중심에 놓고 좌우로 펼쳐 있다.

서귀포지역은 제주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의 진지구축은 내륙에서부터 해안을 향해 전진거점->주저항진지->복곽진지->위장진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미군이 서귀포 해안보다는 제주시 지역을 통과해서 진입해 올 경우를 대비한 전투태세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선인 전진거점이 가장 내륙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교통요지로서 미군의 진입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했으며 그 뒤로 주저항진지, 복곽진지가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최고지휘부인 제58군사령부가 한라산 윗새오름 또는 만세동산 등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을 관할하는 제96사단사령부가 산천단에 있다.

(4) 제주도 동부지역 일본군 시설(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지역,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결7호작전」 준비 초기, 1945년 4월~5월 하순에는 이 지역을 유격진지대로 설정하고 방어시설을 하였다. 구좌읍 송당과 표선읍 성읍리에 복곽진지가 각각 구축되고, 송당은 제96사단 일부(1개 대대 추측), 성읍은 독립혼성제108여단 1개 대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7호작전」 준비 중기인 1945년 6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는 위장진지 11개소, 전진거점 2개소, 주저항진지 8개소 등이 구축되거나 예정되고 있다.

비밀비행장이 있는 교래리 인근인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에 여단사령부와 주저항진지대를 형성, 비행장 경비와 함께 미군의 공세에 맞서 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장진지들은 동부 해안을 따라 전역에 분포하며 비밀비행장 근처에도 구축되고 있다.

<표 28> 제주도 동부지역 주저항진지 구축 상황(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81 |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부대·부소오름 | 4 |
| 82 | 구좌읍 송당리 체오름·박돌오름·안돌·생이오름 | 4 |
| 합 계 | | 8 |

주저항진지는 위의 <표 28>과 같이 동부 내륙인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부대오름 일대와 이 보다 더 동쪽인 구좌읍 송당리 체오름 일대에 각각 4개소씩 구축되고 있다. 이 중 독립혼성제108여단사령부가 위치한 거문오름의 1개소는 복곽진지일 가능성도 있으나 표기가 분명치 않아 일단 주저항진지로 본다.

<표 29> 제주도 동부지역 전진거점 구축 상황(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83 | 표선면 성읍2리 개오름 | 1 |
| 84 | 우도면(조일리) 우도 | 1 |
| 합 계 | | 2 |

전진거점은 위의 <표 29>와 같이 주저항진지가 분포한 거문오름과 체오름 등의 동남부 지역에 1개소, 우도에 1개소 등이 구축되었다.

<표 30> 제주도 동부지역 위장진지 구축 상황(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
(단위 : 개수)

| 진지 일련번호 | 위 치 | 진지 숫자 |
|------------|-----------------|-------|
| 85 |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소록산 | 1 |
| 86 | 표선면 성읍리 영주산 | 1 |
| 87 | 표선면 토산1리 가세오름 | 1 |
| 88 | 표선면 하천리 달산봉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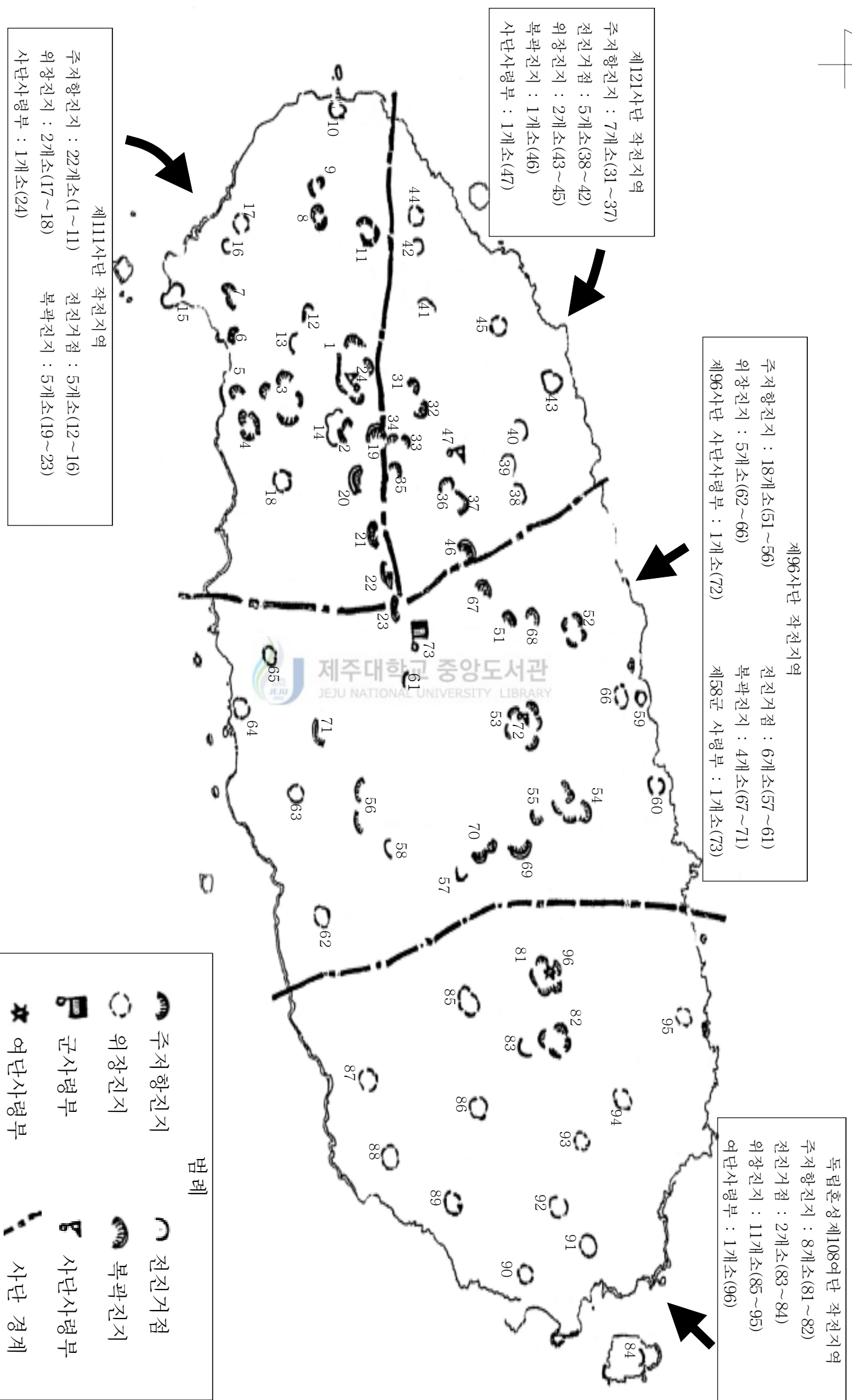
| | | |
|-----|------------------|----|
| 89 | 성산읍 신산리 독자(사자)봉 | 1 |
| 90 |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 1 |
| 91 | 구좌읍 종달리 두산봉(멀미) | 1 |
| 92 | 구좌읍 종달리 은월봉(윤드리) | 1 |
| 93 | 구좌읍 세화리 월랑봉(다랑쉬) | 1 |
| 94 | 구좌읍 한동리 둔지봉 | 1 |
| 95 |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괴실메) | 1 |
| 합 계 | | 11 |

위장진지는 위의 <표 30>에서 보듯,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구역 전체에 분포한다. 동부내륙인 표선면 가시리 대륙산과 소록산 일대에서부터 중산간지역과 해안지역 등 11개소에 골고루 구축된다.

동부지역의 경우는 독립혼성제108여단사령부가 위치했던 거문오름 일대에 비교적 대규모의 진지구축 흔적이 남아있다. 제58군사령부가 주둔할 예정이던 어승생악이나 제111사단사령부 주둔지인 당오름, 가마오름 등과 달리 지상에 주둔지를 만들었던 특징이 있다. 또 이 지역은 유격전투를 상징한 진지구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진지시설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교래리의 비밀비행장은 현재 대한항공 훈련비행장과 같은 장소인 것으로 보이나 당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지도 4> 제주도 주둔 일본군 진지구축 현황¹¹⁷⁾
(1945. 6. 15. 전후)



117) 일반방위연구소도서관, 『제58군베리개전도』, 필자가 재구성.

2. 육·해군 비행장

제주도에 일본군 비행장이 최초로 건설된 것은 서부지역인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의 해군비행장(일명 알뜨르비행장)이다. 이 해군비행장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중국 남부를 폭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건설된 것은 육군비행장으로 1944년 5월 완공된 제주시 용담동(정뜨르)의 육군서비행장이다. 또 조천읍(진드르)에는 육군동비행장, 내륙지역의 교래리에는 육군 비밀비행장이 건설되고 있었다.

제주도에 건설된 비행장들은 1944년 말~1945년 초까지도 일본 본토 작전비행부대의 후방기지, 또는 일본 본토~대륙 간 항공로의 연결(連接)기지로서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45년 5월 15일 중국에서 제5항공군이 전용(轉用)되어 오면서 본토결전에 대비한 본격적 작전준비 지역으로 전환됐다. 이 준비의 주체가 된 것이 기지정비였다.

정세 변화에 따라서 몇 차례 방향 수정이 있었는데, 제1기가 1944년 10월~1945년 2월이다. 「첩(捷)3호작전」¹¹⁸⁾과 관련해서 일본 본토 내 비행부대의 후방 기동비행장 목적으로 정비를 진행했으며, 비행기·엄체(掩體)·건축물 등을 분산(分散)시키고 있다.

제2기는 1945년 2월~5월이다. 「천(天)1호항공작전」¹¹⁹⁾과 관련해서 일본 본토 비행부대의 후방 기동비행장으로, 또한 일부는 근거(根據)비행장¹²⁰⁾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제반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분산주의에 의한 비익(泌匿)엄체 및 비익비행장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제3기는 제5항공군이 전용되어 온 1945년 5월 이후이다. 「결(決)6호작전」¹²¹⁾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비행장 정비가 본격화 되었다. 분산비익·분산엄호주의를 겸용하면서 콘크리트 유개엄체(有蓋掩體) 구축, 비행장의 미채(迷彩)·위장작업 등이 실시되었다.

항공기에 의한 해상교통 보호작전은 해군 및 지상부대와 협력 하에 전문 비행부대를 부산·목포·제주 부근에 배치해서 대한해협을 중심에 두고 실시되

118) 1944년 7월 26일에 지시된 육해군 본토방면(북해도 제외) 결전준비작전.

119) 1945년 3월 23일 발령된 육군의 오키나와방면 항공작전.

120) 비행대 근무의 기점(基點)이므로 제반시설을 완비한 비행장이다.

121) 1945년 초 계획된 육해군 규슈(九州)방면 본토결전 준비작전.

었다.

이러한 방공체제는 제5항공군이 배치된 후 해상 대적(對敵)체제로 전환되었다.¹²²⁾ 따라서 「결7호작전」 준비기에 제주도에 건설된 비행장 중 해군비행장과 육군동·서비행장은 해상의 미군을 경계하는 항공기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래리의 비밀비행장은 위치 등으로 볼 때 미군 함정을 요격하기 위한 특공기용으로 판단된다.

1) 해군비행장(알뜨르)

해군비행장은 중일전쟁에서 도양(渡洋)폭격 기지로 건설되었으며, 1944년 상반기까지는 오오무라(大村)해군항공대 소속인 연습비행대와 진해경비부 소속인 잠수함공격기 약간이 있었다. 고각포(高角砲) 4문과 고사기관포 6문이 배치되었을 뿐 지상 경비병력은 거의 없었다.

193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해군비행장은 1944년 10월까지 2차례의 확장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때까지 시설현황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을 중심으로 제2차 확장공사까지의 공사진척 사항을 보면, 유개업체는 20동, 무개업체 22개, 연료격납고 8개소, 고각포 및 고사기관총 10문, 숙소 및 부대시설 등은 공정이 100% 완료되었다. 또 연료고와 유도고 폭탄고 등은 80% 이상 진행되었다. 이밖에 송수신소, 비행대지휘소, 발전소, 방위측정소, 목구공장, 위장 등은 진척도가 5~65% 사이이다. 따라서 제3차 확장공사는 미완성 시설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유개업체, 폭탄고, 송수신고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연료고와 화약고, 목구공장 등은 지하 터널(동굴)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군비행장 건설에는 이미 진해경비부의 시설부 제201부대가 임하고 있었다. 이 부대의 편성 등은 불분명하지만, 아마 600명에서 1,000명이 안 되는 규모로 여겨진다. 해군의 특설설영대 정원표에서는 ‘갑’ 편성이 953명, ‘을’ 편성이 638명이었기 때문이다.¹²³⁾ 이들은 비행장 확충공사, 병사 신축, 상수도 설치 등의 작업에 임했다.

122) 임종국, 같은 책, 128~131쪽.

123)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34쪽.

<표 31> 해군비행장(알뜨르) 건설계획과 진척상황(1944. 10.)¹²⁴⁾

| 시 설 | 계 획 | | 진척도 | 공사시기(년 월) | 실시부대 |
|--------|-------|--------------------|------|--------------------------|----------------------|
| | 구조 | 수량 | | | |
| 유개업체 | 콘크리트 | 20동 | 100% | 1943. 11~1943. 12. | 진해경비 시설부 201부대 |
| 유개업체 | 콘크리트 | 10동 | 8% | 1944. 4~1944. 8. | |
| 무개업체 | 돌과 나무 | 22개 | 100% | 1944. 7~1944. 9. | |
| 연료고 | 터널(굴) | 길이 286m 면적 715㎡ | 98% | 1943. 10~1944. 2. | |
| 유도로 | | 6,500m | 92% | 1944. 7. 하순~1944. 9. 말 | |
| 연료격납시설 | 돌과 나무 | 8개소 | 100% | 1944. 7. 하순~1944. 9. 말 | |
| 폭탄고 | 콘크리트 | 1동 | 80% | 1943. 10~1943. 11. | |
| 수신소 | 콘크리트 | 4m×13m | 48% | 1943. 10. 중순~1943. 11. | |
| 송신소 | 콘크리트 | 4m×16m | 15% | 1943. 10. 중순~1943. 11. | |
| 비행대지취소 | 콘크리트 | 3m×17m | 63% | 1943. 10. 중순~1943. 11. | |
| 자가발전소 | 콘크리트 | 5m×22.5m | 35% | 1943. 10. 중순~1943. 11. | |
| 고각포 | 콘크리트 | 4문 | 100% | 1943. 11. 중순~1944. 3. | |
| 고사기총 | 콘크리트 | 6문 | 100% | 1943. 11. 중순~1944. 3. | |
| 고가수조업체 | 돌 | 1개 | 100% | 1944. 7. 25.~1944.8. 15. | |
| 공원숙사 | 돌과 나무 | 5.4m×18m 10동 | 100% | 1943. 10. 15~1944. 2. | |
| 취사장 | 돌과 나무 | 7.2m×18m 1개 | 100% | 1943. 10. 중순~1944. 2. | |
| 욕탕 | 돌과 나무 | 5.4m×10.8m 1개 | 100% | 1943. 10. 중순~1944. 2. | |
| 변소 | 나무 | 2.7m×5.4m 5개 | 100% | 1943. 10. 중순~1944. 2. | |
| 화약고 | 터널(굴) | 연장 12m 면적 30㎡ | 0% | 1944. 3. 하순~1944. 4. 하순 | |
| 위장 | 식수 등 | 각 시설 | 5% | 1944. 3. 하순~1944. 8. | |
| 방위측정소 | 콘크리트 | 2.5m×3.8m 1동 | 60% | 1943. 10. 중순~1943. 12. | |
| 교환기실 | 콘크리트 | 4m×4m 1동 | 15% | 1944. 4. 상순~1944. 6. | |
| 목구공장 | 터널(굴) | 4m×10.8m | 7% | 1944. 2. 하순~1944. 7. 상순 | |

모슬포의 해군비행장 시설 제3차 확장공사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1944년 10월 상순부터이다. 약 220만㎡(67만 평)를 확장할 계획으로서 현재 제주국제공항 부지가 300만평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이다.

여기에 1944년 11월, 제408 특설경비 공병대가 배치되어, 비행장 복구축성에 협력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병력은 약 930명으로 1/3이 일본인, 1/3이 제주도민, 1/3이 한국 본토출신이었다.

124) 일본 해군 「진해경비부 공사현상보고」 「土木建築 41」,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1945. 3. 20.

이 시기 사세보(佐世保) 진주후(鎭守府)에 있던 제951 해군항공대의 일부도 배치되어 있었다.¹²⁵⁾

해군비행장에 동원된 제주도민들은 비행장 활주로 및 부대시설 공사, 격납고 엄체작업, 군수품과 식량 저장 등의 작업에 투입됐다. 또 아버지 대신 나온 어린이들로 어린이부대를 편성,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또 주민들을 동원해 식량을 지하의 터널(동굴)로 은닉하기도 했다.

대정읍 알오름의 대규모 지하진지는 해군비행장 시설로서, 제주도민들을 동원해 1942년부터 작업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알오름 지하진지 구축 작업에 동원됐던 오형승¹²⁶⁾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8살 때인 1942년에 동리 주민 30여 명과 함께 알뜨르로 동원된 후, 알오름 굴 파는 작업에 3년 동안 투입됐다. 알오름에서 굴 파는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거미줄형으로 미로같이 굴착했는데, 십장이 위치표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향을 말해주곤 했다.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제주도 주민들이었고 십장을 육지사람들이 맡기도 했다. 너비는 한 칸(8자), 높이는 3~4m 정도인데, 굴착에는 곡괭이를 주로 이용했고, 천정은 나무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했다.

이러한 증언으로 보면 알오름 지하진지는 1942년부터 일본 해군에 의해 구축되기 시작, 1945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 용도는 식량저장소, 연료고, 목구공장, 화약고 등이었다.

6월 15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해군비행장 무용공사 중지에 대해 해군과 교섭 중”이란 전보문을 제17방면군에게 보냈다. 해군비행장 확장공사에 대해 육군과 해군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나 실제 공사가 중단됐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없다.

2) 육군서비행장(정뜨르)

제주서비행장은 제주서방 약 2km에 위치해 있으며 1942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44년 5월 준공되었다. 대형기의 이착륙이 가능했다. 활주로는 1,800m×300m와 1,500m×200m 등 2개였다.¹²⁷⁾

125)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36쪽.

126) 1926년 생, 2006. 12. 10 구술채록(면담자 허호준, 김민정)

서비행장에는 서부군에서 전투정찰 각 1개 편대와 비행장중대 1개, 기타 근무병력 합계 200명 정도를 배치했다. 일본의 조선군¹²⁸⁾은 연안방어대 약 80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제주서비행장은 1944년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 은폐와 엄폐, 활주로 공사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또 패전이 가까워지는 1945년 7월 말~8월 초에는 제96사단 주력이 비행장 근처에 배치되고 있다.¹²⁹⁾

3) 육군동비행장(진드르)

육군동비행장은 원당봉 진지구축 공사와 병행해서 진행됐다. 이 작업을 위해 조천읍 신촌에서 원당봉까지 도로를 정비했고, 원당봉 진지구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과 돌들이 진드르비행장 공사자재로 이용됐다. 진드르비행장 공사에는 1943년부터 마을주민들이 동원됐다.¹³⁰⁾

1945년 4월 13일, 제17방면군 참모장이 제58군 참모장에게 '제주동비행장의 경리부 출장소 2개, 활주로, 비행장 엄체 정비공사를 일시 중지할 것'¹³¹⁾을 명하고 있다. 이어 1945년 6월 15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육군동비행장 공사중지 연구'라는 내용의 전보문을 17방면군에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일본군 참모본부나 제17방면군은 조천읍 진드르에 건설되고 있는 육군동비행장 건설에 대해 불안 해 하고 있다. 결국 육군동비행장 건설공사는 1945년 6월 15일 이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동비행장 공사에 동원됐던 주민들도 1945년 5월~6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증언한다.

4) 비밀비행장(교래리)

1945년 4월 13일 일본군 지휘부는 제58군사령부에 비밀비행장 건설을 지시한다. 즉 제17방면군 참모장이 제58군 참모장에게 '제주(동)비행장의 경리부 출장소 2개, 활주로, 비행장 엄체 정비공사는 일시 중지시키면서 비밀비행장을

127)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26~228쪽.

128) 조선군은 1945년 1월 20일 조선군관구와 제17방면군으로 나뉘기 전 한반도를 관할했던 일본군이다.

129) 『若濟連電 第76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30) 구술자 김자봉, 1930년생, 2005. 10. 8. 구술채록(면담자 허호준, 김민정)

131) 『朝參電 第3000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신축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내의 축성업무를 위해 파견된 제12공병대사령부는 1945년 6월 10일 제58군사령관 지휘를 벗어나 원대복귀하나, 예하 축작업대는 잔류하여 제58군사령관의 지휘¹³²⁾를 받으면서 비밀비행장 엄폐진지 등 중요 공사에 종사¹³³⁾하였다.

1945년 6월 14일, 제17방면군 참모장은 제58군 참모장에게 재차 제58군사령관은 교래리 부근에 다음의 <표 32>에 기초한 비밀비행장 설정을 지시한다. 그 내용을 보면, 100m×1,000m, 50m×900m 활주로 각 1개, 병사 숙소 200명분, 중급연습기 12기분, 비밀위치(특공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30기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비행장 완성 시기는 6월 말로 하고 있다.

<표 32> 교래리에 계획한 육군 비밀비행장 구상(1945. 6. 14.)¹³⁴⁾

| 구 성 | 내 용 | 비 고 |
|------------|------------------------|-----|
| 활주로1 | 100m×1,000m | |
| 활주로2 | 50m×900m | |
| 수객동실 | 200명분 | |
| 연탄동실(燃彈洞室) | 연료 400분분 / 탄엽(彈葉)5지분 | |
| 비행기격납동실 | 중급연습기 12기분 / 비밀위치 30기분 | |
| 기타 기지소요시설 | | |
| 완 성 | 1945. 6월 말 목표 | |

1945년 6월 15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독립혼성제108여단 진지 내에 비밀비행장 설정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이라는 내용의 기밀전보문을 제17방면군에 보내고 있다.

1945년 6월 25일에도 제주도 진지내의 비밀비행장 신설을 특히 지금으로 지령했음을 조선군관구 참모장이 일본 육군 차장에게 보고한다. 1945년 7월 31일 제58군이 제17방면군에게 보낸 기밀전보문에는 '교래리 비행장 직접 엄호와 상륙하는 미군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 동부 및 남부지구에 각 1개 대대를 배치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다.

132) 「築參電 第6982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33) 「碧參電 第448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34) 「築參電 第6921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이러한 기밀전보문 내용들로 보아 교래리의 비밀비행장은 1945년 6월 15일 이후 공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3. 해군 특공기지

육군이 본격적 축성을 시작할 1945년 2월, 해군도 특공소형선의 비밀기지 건설을 개시했다. 북촌리 서우봉, 고산리 수월봉, 모슬포 송악산, 서귀포 삼매봉, 성산포 일출봉 등의 해안을 중심으로 요새구축 공사가 시작되었다.¹³⁵⁾ 교룡(蛟龍), 해룡(海龍), 회천(回天), 진양(津洋) 등 특공부대들이 제주도로 진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중 진양대는 실제로 제주도에 주둔했다.

<표 33> 일본 해군특공선(船) 은닉을 위한 진지 공사 상황(1945. 5. 19.)¹³⁶⁾

| 구 분 | 동굴식 작업 | 엄체식 작업 | 합 계 |
|-----|---|----------------------|------|
| 제주도 | - 100% 2개(천연동굴) - 20% 5개 - 작업진도 10% 1개 - 5% 이하 10개 | - 70% 2개 - 30% 2개 | 22개소 |

위의 <표 33>에 따르면, 해군특공기지 공사는 1945년 5월 19일 현재 22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천연동굴 2개소를 제외하면 동굴식 18개소가 공정율 20% 이하, 엄체식은 공정율 30~70% 였다. 해군특공기지 공사가 1945년 6월 초순 이후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해안특공기지는 이 정도의 공정율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주둔했던 진양대¹³⁷⁾는 미군 상륙용 선단이 상륙지점으로 진입하여 병원자재 등의 상륙을 시작하기 전에 선박을 공격, 침몰 또는 파손시키는 임

135)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같은 논문, 『43과 역사』, 231쪽.

136) 『船 136電 第373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37) 진양회편, 『사진집 인간병기 진양특별공격대 상권』, 국서관행회, 1989, 139쪽.

1형정 부대는 部隊長 1명, 艇隊에 정대장 4명, 탑승원 50명, 본부부(통신, 신호, 주계, 위생) 20명, 기지대(기지대장 외) 80명, 정비대(정비대장 외) 35명, 艇 55척(이중 5척은 예비)이다. 1개 艇隊는 부대장 등 인원 12~13명, 艇 12~13척이다. 5형정 부대는 1艇 2명 탑승, 1部隊 24척(예비 약간), 1부대를 3艇隊로 편성하고 그 외는 1형정에 준한다.

무를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다.

제주도에는 진해경비부 소속 제45·119·120진양대가 1945년 4월 8일 진출하였다. 제45진양대는 무라야마(村山)부대라고 통칭됐으며, 1945년 2월 20일 일본에서 편성돼, 1945년 2월 25일 조선의 진해경비부로 배속되고 1945년 4월 8일 성산포 해안에 배치됐다. 1형 50척을 보유했으며 총원은 188명이다. 제119진양대는 타나카(田中)부대로서 1945년 3월 20일 편성돼 1945년 3월 25일 진해경비부로 배속되고 1945년 4월 9일 성산포를 거쳐 서귀포에 배치됐다. 5형 26척을 보유하고 총원 187명이었다. 제120진양대는 오노(小野)부대로서 1945년 3월 25일 편성됐으며 성산포에 상륙 후 한림에서 대기하다가 1945년 4월 29일 고산리에 배치됐다. 5형 26척을 보유하고 총원 191명이었다. 진양대기지는 수월봉 해안에 있다.

회천대는 대정읍 송악산과 조천읍 서우봉 해안에 진출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종전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천대의 특공선을 감추기 위한 요새공사는 진행되었다. 송악산 해안에는 일자형 'H'자형, 'ㄷ'자형 등 동굴식 진지 15개가 굴착되어 있다.¹³⁸⁾ 서우봉 해안의 경우는 북촌 어촌계 포구(알개)에서 동쪽으로 10개, 북쪽으로 5~6개가 구축되어 있다.

<표 34> 일본 해군특공대 회천대(回天隊)기지 구축 표준표¹³⁹⁾

| 종 별 | 갑(甲)기지 | 을(乙)기지 | 병(丙)기지 | 기 타 |
|------|---|---|---|-----|
| 격납고 | 육상격납 24기분 | 육상격납 12기분 | 수중계류시설 6기분 | |
| 사 로 | 2개소 | 1개소 | | |
| 조정장 | 1. 조정실 4개분 2. 공기압축장 2대분 | 1. 조정실 2개분 2. 공기압축장 1대분 | 특별의 시설 | |
| 거주시설 | 약 130명분 | 약 80명분 | 약 50명분 | |
| 연료고 | 연료유 30m ³ 呂號乙藥 40m ³ | 연료유 20m ³ 呂號乙藥 30m ³ | 연료유 15m ³ 呂號乙藥 20m ³ | |

위의 <표 34>과 같이 회천기지의 시설기준을 보면, 격납고는 동굴(隧道) 또는 복토식(覆土式) 엄체로 하고, 외단면 2.5m×3m, 유효길이 회천 1기당 약 19m 정도로 했다. 조정장은 2기를 동시에 조정토록 하는데, 단면 3.5m×3.5m,

138) 제주도동굴연구소, 「송악산 화산체의 해안절벽 진지동굴 측량도」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1, 2005, 55쪽. 제주도동굴연구소는 '진지동굴'로 표기하고 있다.

139) 일본 해군시설본부, 「회천기지시설기준」, 1945, 1~3쪽.

유효길이 1기당 24m, 부속종타기조정실(附屬縱舵機調整室)은 단면 2.5m×2.5m, 길이 7.5m로 한다. 공기압축펌프장은 조정장부근에 설치하고, 단면폭 2.5m, 높이 3m, 길이 1조당 7.5m로 했다.

주거시설은 천막이나 간이방공호를 이용하고 동굴 및 복토식염체로 적당하게 분산 구축하도록 했다. 갑(甲)기지는 육상 격납고 24기분, 사로 2개소, 병력 130명 등의 대형이며, 을(乙)기지는 갑의 1/2 수준, 병(丙)기지는 1/4 수준으로 만들어졌다.

제주도에서 회천대의 기지구축 공사는 1945년 5월 또는 6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그 규모가 갑, 을, 병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현재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패전 후 일본 해군이 미군에 인도한 목록상으로는 진양대 기지인 성산포 특공기지가 수도(隧道) 900㎡에 병사 12동, 서귀포 삼매봉 특공기지가 수도 900㎡에 병사 10동, 수월봉 특공기지가 수도 760㎡에 병사(兵舎) 12동 등이다. 또 회천대 기지로 추측되는 송악산 특공기지는 수도 550㎡에 병사 6동, 서우봉 특공기지가 수도 730㎡에 병사 7동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⁴⁰⁾

근로봉사대로 서우봉 동굴 굴착작업에 직접 강제동원되었던 김병석씨¹⁴¹⁾는 당시의 공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마을주민들이 동원되어 일본군들이 파놓은 흙과 돌들을 밖으로 실어 날랐다. 작업은 해가 뜨면 시작되고 해가 지면 끝났다. 동굴 1개소에는 군인 6명이 들어가 화약과 망치로 굴착작업을 했다. 공사 책임자는 중좌였으며 점심을 보리와 조를 섞은 밥으로 주는 등 비행장 공사에 동원됐을 때 보다 대우는 잘 해줬다.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소개시켜 놓고 그 민가에서 생활했으며, 부대는 '도코다이부대'라고 불렀다.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육상의 진지구축 만이 아니라 해안의 특공기지 구축작업에도 제주도 주민들이 동원되고 있다. 대부분 해안가의 천연동굴을 이용하거나 암벽을 깨서 인공동굴을 만들고 있다. 서우봉의 경우는 동굴 내부의 굴착작업 시 화약을 이용하였으며, 그 작업은 일본군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는 일본군은 아마 공사 전문부대일 것이다. 동원된 제주도 주

140) 일본 해군, 『진해경비부 인도목록』,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1945. 수도(隧道)는 사전적 의미로 굴. 굴길. 터널.

141) 구술자 김병석, 1930년생, 2005. 12. 24. 구술채록.

민들은 이들이 파 놓은 흙과 돌 등을 밖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군사시설 구축과 강제동원

1) 군사시설 구축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 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구축된 일본 군사시설에도 조선인 강제노동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현재 열람이 가능한 ‘일본 강제동원자명부’는 일본 강점기하에서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들이 등재되어 있는 명부이다. 「피징용사망자연명부(被徵用死亡者連名簿)」,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朝鮮人勞動者에 관한 調査結果)」, 「조선인징용자에 관한 명부(朝鮮人徵用者에 관한 名簿)」6권, 「피징용사망자명부(被徵用者名簿)」, 「군인군속명부(軍人軍屬名簿)」, 「유수명부(留守名簿)」, 「해군군속자명부(海軍軍屬者名簿)」, 「임시군인군속계(臨時軍人軍屬屆)」, 「병적전시명부(兵籍戰時名簿)」, 「군속선원명표(軍屬船員名票)」, 「공원명표(工員名票)」, 「병상일지(病床日誌)」, 「부로명표(虜로名票)」등이다.

이 기록들에는 모두 48만693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 제주도로 강제동원 되어 온 한국인은 258명이다.

아래의 <표 24>를 중심으로 동원상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1881~1900년생 9명, 1901~1910년생 40명, 1911~1915년생 29명, 1916~1920년생 51명, 1921~1925년생 108명, 1926~1928년생 11명, 생년 불명자 10명 등이다. 출생년도 별로는 1924년생 59명, 1923년생 18명, 1922년생 13명 등의 순서이다.¹⁴²⁾

동원형태는 징용이 187명 군속이 71명이다. 초기에는 징용자가 대부분이었으나 1920년대 출생자, 특히 1924년 출생자는 대부분 군속으로 강제동원 되고 있다. 군속은 군속선원 3명을 제외하고 전원 임시군인군속¹⁴³⁾이다.

142)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URL : <http://www.archives.go.kr/>, 2006. 6. 검색결과.

143) 군인이나 군속으로 강제동원 된 사람의 가족들이 1945년 3월 1일 새벽 0시 시점으로 해당 거주지 면장 앞으로 신고한 것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피강제동원자 중 사망자는 19.4%인 50명이다. 사망자는 100% 징용자들이다. 특히 1921~1928년생 징용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최초 징용된 1881년생부터 1915년생까지 사망률이 5% 선이었던 것이 1916~1920년생 징용자에 이르러 13.7%로 증가한데 이어 1921~1925년생 징용자의 경우는 23.1%, 1926~1928년생 징용자는 54.5%가 사망했다.

<표 35> 연령대별 강제동원 현황

(단위 : 명)

| 연령대(년생) \ 동원현황 | 인 원 | 강제동원 형태 | | 사 망 |
|----------------|-----|---------|-----|-----|
| | | 징 용 | 군 속 | |
| 1881~1900 | 9 | 9 | | 0 |
| 1901~1910 | 40 | 38 | 2 | 4 |
| 1911~1915 | 29 | 27 | 2 | 0 |
| 1916~1920 | 51 | 47 | 4 | 7 |
| 1921~1925 | 108 | 51 | 57 | 25 |
| 1926~1928 | 11 | 7 | 4 | 6 |
| 불 명 | 10 | 8 | 2 | 8 |
| 합 계 | 258 | 187 | 71 | 50 |

제주로 강제동원 되어 온 사람들을 본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 70(11)¹⁴⁴⁾명, 경상북도 69(7)명, 제주 49(33)명¹⁴⁵⁾, 전라남도 10(3)명, 강원도 10(4)명, 경남 9(0)명, 충남 8(4)명, 황해 6(0)명, 평남 5(1)명, 충북 4(0)명, 전북 3(3)명, 평북 3(2)명, 일본 오사카(大阪) 2명, 함남 1(1)명, 주소불명 9(2)명이다.

이 중 1920년생까지는 129명 중 119명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씨개명¹⁴⁶⁾ 전인 1939~1940년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1939년을 기준으로 하면 강제동원 시 연령은 19~42세가 된다.

제주도 주민은 전체 강제동원자의 19%를 차지하며 다른 지방과 달리 징용

144) ()안은 군속 인원.

145) 제주도인 경우는 전라남도 제주군으로 표기된 인원까지 포함함.

146) 일본은 이른바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1940년 2월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에 '씨(氏)'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애국적 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으나, 기한까지 창씨를 제출한 것은 322만 호로 약 80%에 달하였다.

동원보다 임시군인군속 동원 비율이 67.3%로 많다.

강제동원 초기에는 제주비행장과 제주도로 연행지가 표기된 경우가 많다. 중간 중간 연행지로 '제주비행장'이 등장하고, '모슬포 진시제201부대'라는 이름도 나온다. 여기에서 제주비행장은 시기 상 대정읍 알뜨르의 해군비행장 확장공사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진시제201부대는 진해경비부 시설부 제201부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초기 피강제동원자들은, 1937년부터 기존 20만 평에서 1945년까지 67만 평으로 확장계획이 세워진 대정읍 모슬포의 해군비행장(알뜨르) 등 주로 비행장 공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읍 조선제7450부대'는 41명 전원이 1923~1924년생으로 임시군인군속이며, 제주도 출신이 33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대는 1944년 겨울에서 1945년 4월까지 소집된 갑 및 을종 징병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7450부대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 어승생악 등의 진지공사에 주로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갑자생인데 일본시대 조선인 징병 1기생들이다. 1945년 1월에 소집영장을 받았다. 입대한 부대는 제주시 정뜨르비행장에 있는 부대였고 모두가 징병 1기로 제주사람들이었다. 어승생 오름에 주둔하고 있는 도리데 2대대 1중대로 배치됐다. 여기에서의 통상일과는 갯도진지동굴 파는 것이었다.¹⁴⁷⁾

현재 공개되고 있는 강제동원 기록 중 제주도 지역으로 가장 많이 동원된 사람들은 경상북도와 경기도 주민들이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봉화군 주민 60명이 징용으로 제주에 오는데 이 중 30%인 18명이 귀향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중에서도 사망자는 1924년생에 집중되고 있다. 사망자 중 일부는 남제주군 안덕면 '무악(岳)', 북제주군 '한림항', '제주읍 환자요양소', '제주혜료소', '한림면 한림리 101사¹⁴⁸⁾ 야전병원', '마라도 서남 해상' 등 사망한 곳이 기록돼 있다. 사망 장소가 안덕면 무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경북 봉화군 주민들이 안덕면 군산 등의 진지구축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그곳의 제111사단 야전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림항', '마라도 서남 해상' 등으로 돼 있는

147) 구술자 허경화, 1920년생. (제주도동굴연구소, 『남제주군서부지역 일본군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111~116쪽, 2004. 11. 30, 구술채록 재인용) 징병 제1기생으로 어승생악 진지 구축작업에 동원됨.

148) 제101사는 위치상 제121사단의 잘못된 표기로 보임.

경우는 미군 공격에 의한 사망이며, 병원에서 숨지는 경우도 진지공사, 또는 미군 공격에 의한 부상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2) 강제동원의 실상

『결7호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작업에 제주도민은 다양한 형태로 동원되고 있다. 진지 구축작업, 비행장 건설 및 위장 작업, 해안특공기지 구축작업, 군수품 수송 등 대부분의 전쟁준비 공사에 동원되고 있다.

진지 구축작업의 경우 제주시 별도봉과 원당봉, 어승생악, 조천읍(구좌읍) 교래리 부근 오름 등에 동원됐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 중 일부는 노무동원, 일부는 징집 등의 형태로 동원되고 있다. 작업은 대부분 일본군의 감독아래 행해지고 있으나, 해군이 관할하는 공사에는 조선인 기술자들이 감독을 하기도 했다.

포진지 구축작업은 『결7호작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가장 시급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4월 8일 제408특설경비공병대가 경비소집 되는데, 이를 위해 제주도내에서 207명, 육지에서 71명이 입대했다. 이 시기는 『결7호작전』을 위해 제96사단 제292연대 및 박격포대(독립속사포제32대대)가 모슬포에 도착하는 시점이다.

징병자들은 대부분 1943년에 연성훈련을 받고 1년 정도 대기하다가 1944년 말~1945년 초 또는 봄에 소집된다. 당시 제주시의 육군서비행장(정뜨르비행장)과 관덕정 부근 제주주재소로 소집된 징병자들은 제주공립농업학교로 이동해 부대편성을 한 후, 안덕면 군산과 단산의 포진지 구축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시기와 부대배치 상 제96사단에 배속된 독립속사포제32대대가 이곳에 주둔하기 위한 진지구축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군산과 단산의 포진지 구축에는 20~45일 정도 동원되었다.

이들은 이후 바로 어승생악으로 이동해, 진지 구축작업에 임하거나, 제주시 오라동으로 이동해 1개월여 진지구축 작업 후 5월경 어승생악으로 옮겨가기도 했다.¹⁴⁹⁾

1945년에 특별연성훈련을 받은 경우는 훈련기간이 2개월로 단축됐으며, 훈련 직후 곧바로 부대편성을 하고 진지구축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다. 1926년생

149) 구술자 고석돈, 1924년 생, 2005. 10. 15. 구술채록.

인 양경서씨¹⁵⁰⁾(당시 대정읍 무릉리 거주)는 “1945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주 2회 특별연성훈련을 받고 1945년 3월부터 45~60일 동안 제주읍 삼양봉(원당봉)에서 진지 굴착작업에 임했다. 1945년 5월에는 모슬포 송악산으로 이동해, 송악산 정상으로 통하는 허리를 절개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이 작업은 미군 전차의 진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노무동원자와 징병자들은 작업영역이 달랐다. 군수품과 식량들을 수송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는데, 15세 전후의 미성년자부터 60세정도 노인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소와 마차 등으로 군수품을 목적지까지 수송하고 있다. 모슬포해군비행장에는 쌀 등을 지하진지에 운반하기도 했고, 제121사단 사령부가 있는 발이악(바리매)에서 유수암까지 군수품을 수송하기도 했다.¹⁵¹⁾

해안특공기지 구축에도 제주도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 경우 작업반장, 즉 작업책임자는 한국의 다른 지방(육지)사람들이 대부분 맡았다. 1945년 3월부터는 모슬포 송악산 해안특공기지 공사에 도민들이 동원됐다. 공사기간은 4월~5개월 정도였다. 서귀포 삼매봉 해안특공기지 공사에는 1945년 4월부터 주민들이 동원돼 2개월여 진행됐다. 조천면 함덕리 서우봉에도 해군특공기지를 구축했는데 제주도민들이 동원됐다.¹⁵²⁾

한국인에 대한 노무동원은 1939년부터 시작¹⁵³⁾되고 있다. 동원연령은 1914년~1930년생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면사무소에서 동원자 명부를 마을 구장에게 넘기면 구장이 마을별로 인력들을 동원시키고 있다. 동원된 인력들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교대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제주도내에서 동원된 인력은 대부분 단순 노무, 즉 흙을 파고, 돌을 깨고 나르는 작업을 했다.

제주도 주민들의 경우, 1943년까지는 집에서 드나드는 형태로 동원됐으나 1944년부터는 함바집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 식사는 강냉이밥(죽)이나 주먹밥 형태의 보리밥에 소금국 등이 지급됐으며 항상 허기져 보리를 갈아서 만든 미수가루를 집에서 지참해 간식으로 이용했다.

150) 2006. 1. 14. 구술채록(면담자 허호준, 김민정)

151) 구술자 김방현, 1935년 생, 2005. 10. 21. 구술채록.

152) 구술자 김병석, 1930년 생, 2005. 12. 24. 구술채록.

153) 1939년 7월 4일, 노무동원실시계획이 일본정부 각의에서 결정되고 바로 한국인 노무동원이 시작됐다.

3) 물자의 동원

제주도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전쟁 물자의 강제 공출이었다. 더욱이 전쟁물자를 징발하는 일에는 일본에 협력하는 지역주민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아 더욱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공출이 진행된 구체적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중일전쟁때부터 전쟁물자 공급을 위한 전방위적 체제구축이 제주도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1937년 일본은 대륙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일본 본토 및 육지부의 부족한 물자 공급을 위해 '미개의 보고(未開의 寶庫)'인 제주도를 하나의 거대한 농·수·축산·임산물의 생산 및 수탈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937년 도로·항만·상수도·수력발전 개발, 농·수·축산 진흥 등에 대한 10개년 제주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양척식회사가 사실상 주도하는 민·관 합자형식의 국책회사인 '제주개발주식회사'를 설립, 제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에 의해 제주도내 곳곳에는 화학용 알콜을 생산하는 무수주정공장이 설립 운영되고, 농경지 및 중산간지대를 이용한 특용작물(환금작물) 재배,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생산 및 가공산업이 체계화되었다.

또 당시 이미 만들어져 있던 제주도 일주도로와 제주~서귀포 횡단도로에 대한 교량·배수로 시설 공사는 물론 중산간 일대의 농·축·임산물 생산과 수송을 위한 순환도로 등의 신설 계획도 수립되었다.

특히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하수 개발과 상수도 시설, 전기와 용수 공급을 위한 어승생악 일대 수력 발전시설 건설 계획도 구상되었다.¹⁵⁴⁾

고구마는 제주도의 기후풍토에서 가장 적합하여 농가의 대용식량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수(無水)알콜 및 전분의 원료로서 1938년부터 대대적으로 증식노력이 진행되었다. 1938년 작부 면적 7,357정보(약 7천296만㎡), 수확고 2,343만관(8,800kg)에 이르렀다. 이 중 공출수량은 1938년 950만관(253kg)으로 수확량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고구마 작부면적 확대를 통해 알콜원료 공출을 늘리는 계획을 진행했다. 미래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15%까지 고구마를 재배하고 여기에서 4,463만관(1만6,740kg)의 수확을 올리며, 이 중 75%에 해당하는 3,347만관(1만255kg)을 알콜원료로 공출할 예정이었다.¹⁵⁵⁾

154) 제주시우당도서관 편, 「제주도 개발」 『濟州島の 옛 記録 : 1878년~1940년』, 1997, 163~164쪽.

155) 제주도청, 「제주도의 경제」 『제주도세요람』,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9, 156~158쪽.

제주도의 특산물인 해산물도 군수물자화 되어 그 채취를 위한 노동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그 하나가 해조류인 감태인데 재로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칼륨성분을 화약의 원료로 이용했다.¹⁵⁶⁾

일본은 또 제주도의 소와 말을 개량하여 일본의 식료를 보충하려는 구상도 한다. 이를 위해 도농회(道農會)를 주체로 송아지 육성사업을 계획한다.¹⁵⁷⁾ 축우개량 제1기 계획으로서 농가마다의 평균사육 두수를 2마리로 하고 현재의 수소를 약 10%로 감소시키는 한편 번식 암소를 이에 충당케 함으로서 생산의 증가와 판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년 전¹⁵⁸⁾부터 주식회사 다케나카(竹中) 통조림제조소 조선분공장이 제주도에 설치돼 육용우 통조림을 생산하고 있다.¹⁵⁹⁾

고구마의 재배와 화학용 알콜을 생산하는 부수주정공장, 화약원료인 감태와 항공기 대용연료가 되는 소나무뿌리 기름 채취, 제주도 일주도로와 제주~서귀포 횡단도로, 중산간 일대의 순환도로 개설, 소와 말의 개량 등등,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은 「결7호작전」과 직접 연결되어 연료, 군사도로, 수송, 식량 등 제주도 주둔 일본군에 필요한 물자로 전환되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일본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된다.

노무동원과 함께 가축과 식량작물, 유기그릇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 공출이 그것이다. 공출의 형태는 무기제작과 정비를 위한 유기그릇·송진유·절간고구마 공출, 수송과 식량용도의 소 공출, 식량 조달을 위한 보리·조·콩 공출, 비행장 활주로 정비와 진지 위장 등을 위한 잔디 공출, 기타 면화와 물 공출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또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의 신정 강요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 형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래 차례를 지내다 발각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다.

공출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미리 조사를 하여 할당량을 정했다. 주민들은 공출이 1940년 초부터 진행되어 1943년 이후 매우 가혹하게 이루어졌다고 증언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량까지 강제로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잦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조사를 받고,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보리 등을 짚는 연자방아에 딱지를 붙여 작

156) 김봉옥, 같은 책, 298쪽.

157) 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 「조선반도의 농업과 농민 : 제주도편」,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0, 16쪽.

158) '제주도생활상태조사'가 1929년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1920년대 중반부터인 듯하다.

159) 겐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2, 44쪽.

업을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공회당 등 공공장소에서 채벌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할당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알콜 원료인 고구마는 재배에서 생산까지 강제할당되어 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었다. 육군서비행장(정뜨르) 활주로에는 잔디를 깔았는데, 이것도 주민들에게 할당이 되었다. 잔디공출이 그것이다. 소는 농업이 대부분인 제주도 주민들에게 주요한 생산수단이었다. 일본은 이 소들도 식용과 수송용으로 공출했다. 특히 동력수단이 원활치 못했던 일본군에게 무거운 포를 끌고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해 소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때문에 소 공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식량이나 노무공출 못지않게 힘든 일이었다.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45년 7월경이 되면 주민들을 동원한 군수물자 수송도 많이 이루어 졌다. 『결7호작전』에 따른 전투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출은 면서기와 구장 등이 주로 담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사들이 함께 공출에 나서기도 했다.

『결7호작전』체제 하에서 노동력 및 물자의 강제동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93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제국주의적 수탈체계의 극단적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 말기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로 진출한 일본군 부대는 제58군이며 그 주력은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제12포병사령부 등이다. 예하부대와 지원부대 등을 합해 총병력은 7만5,000여 명이다.

제주도에서의 「결7호작전」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지휘부는 제58군사령부다. 주진지대인 제주도 서부지역에는 제주도 주둔 일본군 중 최정예인 제111사단과 제121사단이 배치되었다. 또 제2선의 공격준비진지대인 중앙부에는 신설된 제96사단, 유격진지대인 동부지역에는 독립혼성제108여단이 주둔했다. 그러나 전력 면에서는, 최정예로 꼽히는 제111사단과 제121사단이 일본군 일반 편제에서 표준사단 정도 수준에 머물고,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일본군이 제주도에서의 「결호작전」 준비정도를 보면, 전력밀도면에서 전체 「결호작전」 준비지역들 중 최하 수준에 속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권인 간토(關東) 등지의 방어태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한 지역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공간이라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같이 일본 본토 사수와 유리한 종전협상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결7호작전」 준비에 따른 부대배치는 종전 시까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결7호작전」 초기로 1945년 4월~5월 하순까지이며, 제58군 전투서열에 따른 부대들이 제주도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이 당시는 미군의 예상접근로가 모슬포, 한림, 제주시 등 3개 방면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주진지대', 중부지역인 제주와 서귀포 중심으로는 '공격준비진지대', 동부지역에는 '유격진지대'를 설정했다. 중앙부에 제58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전방에 111사단, 중앙에 96사단, 후방에 독립혼성제108여단을 두었다. 병력배치나 진지구축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결7호작전」 중기로 6월 15일 제3차병비와 함께 진행된다. 독립야포병제6연대, 제12포병사령부,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박격제29대대, 독립공병대대 2개를 증가시키고, 제121사단을 제58군 전투서열로 편입했다. 제주도 서부지역은 서남부지역(안덕~대정~한경) 제111사단 관할, 서북부지역(한경~한림~애월) 제121사단 관할로 나뉘어 진다.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남북으로 나누어 맡았던 중앙과 동부지역은 작전의 성격에 맞춰 중앙지역과 동부지역을 동서로 구분, 공격준비진지대가 구축되는 중앙지역(제주와 서귀포)은 제96사단, 유격진지대인 동부지역(성산과 표선)은 독립혼성제108여단이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는 제주도로 진출한 부대들이 1단계 배치를 완료하고, 진지구축 작업에 돌입하면서 「결7호작전」 준비가 체계화되고 있다. 또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한 일본군의 방어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단계는 「결7호작전」 준비 말기로 오키나와가 함락되는 1945년 6월 25일에서 종전까지이다. 이때가 되면, 서남부 지역으로 일본군이 밀집되고 있는데, 안덕면 지역에 포병부대, 한경지역으로는 보병부대가 집중 배치되고 있다. 서북부지역은 제121사단이 주둔하였다. 발이악을 중심으로 한림읍 금악과 애월읍 금덕지역에 각 1개 보병연대 병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1개 연대는 서북부 해안인 애월지역으로 주둔시켰다. 중앙지역에는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했다. 제96사단은 진드르와 정뜨르의 육군 동·서비행장 경비 및 미군의 진공에 대비한 기동병단이었다. 제96사단 사령부가 자리한 산천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96사단 소속 보병제292, 제293, 제294연대가 주둔했다. 동부지역은 독립혼성제108여단 작전지역으로 여단사령부가 세화~송당 부근에 위치하고 함덕~표선까지 해안선을 따라 예하 6개 대대가 배치되었다.

이에 따른 일본군의 방어시설로는 제주도 전역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구축된 방어진지, 비행장, 해군특공기지 등이 있다. 방어진지는 모두 104개소에 구축되고 있는데 주저항진지 54개, 전진거점 18개, 위장진지 21개소, 복곽진지 11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제111사단이 구축병단으로 배치된 서남부지역에 주저항진지의 40%가,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에 주저항진지가 30% 등으로 밀집해 있다. 최후 방어선인 복곽진지는 한라산 정상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진지배치는 1차 서남부지역에서 초동단계의 해안결전을 전개하고, 패배하면 중앙부인 제주시 지역에서 2차 결전을 치르며, 여기서도 패하면 한라산 정산부근까지 후퇴해 최후의 저항을 하겠다는 구도로 판단된다.

일본군의 비행장 시설은 대정읍 알뜨르에 해군비행장, 제주시 정뜨르에 육군서비행장, 조천읍 진드르에 육군동비행장, 조천읍 교래리에 비밀비행장이 있다.

일본 해군은 육군이 주도하는 태평양전쟁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밀려나 있

었지만 제주도 해안가에 해군특공시설을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결7호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 서귀포 삼매봉, 성산포 일출봉, 고산 수월봉 해안에 진양대 기지, 모슬포 송악산과 조천읍 북촌리 서우봉 등 해안에는 회천기지 구축공사를 진행했다.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을 위해 제주도 주민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강제동원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인 노무동원은 193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진행되던 해군비행장 확장공사에 제주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 주민 외에 한반도의 본토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 중 1920년 이전 출생자는 강제징용 형태가 많았고, 1920년 이후 출생자들은 대부분 군속으로 강제동원 되고 있다.

제주도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전쟁 물자의 강제 공출이었다. 한편으로는 미군 공군기와 잠수함의 공격이 가열되면서 일본군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결7호작전」을 위해 제주도로 진출한 일본군은 1945년 초~1945년 8월까지 1년여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주둔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제주사회 전체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 역사상 중무장한 대규모 병력이 주둔한 것이나, 이들이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옥쇄작전을 준비하였던 것 모두가 유래 없는 일이었다.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오키나와(沖繩)전투에서는 수비하는 일본군이 10만 명 이상, 공격하는 미군 상륙부대는 5개 사단 8만5,000명이 투입되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병력의 전투로 민간인을 포함한 20만 여명 이상이 죽어 갔다.

일본 측에서 제주도로 상륙을 예상했던 미군 병력은 2~5개 사단이었다. 제주도를 수비하는 일본군도 8만 명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제주도가 '제2의 오키나와 섬'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종전은 제주도민들에게 일본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다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했다.

이 짧은 기간, 한라산을 비롯해 제주도의 오름과 해안에 구축된 진지, 비행장 시설, 군용도로, 공출과 징병 및 노무동원, 토지수용, 전시동원 체제 구축 등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들의 기저에는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

간 충돌이 있으며,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식민지 체제 아래서의 강요된 황국신민화와 가혹한 수탈, 희생이 전제되고 있다. 그리고 패전의 위기에 몰린 일본이 유리한 종전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온전략의 희생양으로서 제주도라는 공간이 선택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1) 1차 자료

- 『機密作戰日誌(乙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第58軍配備概見圖』,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일본 육군성, 『日本陸軍使覽』, 合衆國印刷局, 1944.
參本第2課, 『本土決戰關係兵備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일본참모본부 교육총감부, 『上陸防禦教令(案)補遺』, 1945.

2) 자료집

-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1, 2005.
_____, 『남제주군서부지역 일본군진지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2005.
_____,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구조적·유형과 병력』 『동굴연구』 제3호, 2004
진양회편, 『사진집 인간병기 진양특별공격대 상권』, 국서관행회, 1989.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2003.

3) 구술자료

- 고석돈(남, 1924년 생, 북제주군 애월읍 거주, 채록 2005. 10. 15, 필자)
김방현(남, 1935년 생, 북제주군 애월읍 거주, 채록 2005. 10. 21, 필자)
김병석(남, 1930년 생, 북제주군 조천읍 거주, 채록 2005. 12. 24, 필자)
허경화(남, 1920년 생, 서귀포시 색달동 거주, 채록 2004. 11. 30, 제주도동굴연구소)
고창옥(남, 1924년 생, 서귀포시 신호동 거주, 채록 2005. 10. 22, 이하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일제전적지조사 구술팀)
김봉현(남, 1930년 생, 서귀포시 신호동 거주, 채록 2005. 11. 5.)
김상용(남, 1928년 생, 서귀포시 예례동 거주, 채록 2005. 9. 1.)

김자봉(남, 1930년 생, 제주시 일도2동 거주, 채록 2005. 10. 8.)
 김태정(남, 1916년 생, 제주시 삼양동 거주, 채록 2005. 10. 29.)
 남인희(남, 1924년 생, 제주시 삼도2동 거주, 채록 2005. 10. 15.)
 송문수(남, 1922년 생, 남제주군 안덕면 거주, 채록 2005. 12. 10.)
 양경서(남, 1926년 생, 남제주군 대정읍 거주, 채록 2006. 1. 14.)
 양승훈(남, 1914년 생, 서울 서대문구 거주, 채록 2005. 11. 13.)
 오향주(남, 1932년 생, 남제주군 안덕면 거주, 채록 2005. 12. 3.)
 이갑부(남, 1924년 생, 남제주군 안덕면 거주, 채록 2006. 1. 14.)
 임정길(남, 1916년 생, 서귀포시 상례동 거주, 채록 2005. 11. 19.)
 한필생(남, 1927년 생, 북제주군 조천읍 거주, 채록 2005. 10. 15.)
 현남인(남, 1927년 생, 남제주군 표선면 거주, 채록 2006. 1. 15.)

2. 논 저

구건서, 『일본 민족주의사』, 논형, 2004.
 박명림, 『한국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박지향 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안병직·박성수 외, 『한국근대 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윤선자,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인적지배와 그리스도교계의 대응』, 집문당, 2005.
 이재범 외, 『한반도의 외국인 주둔사』, 중심, 2001.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2, 일월서각, 1989.
 제민일보, 『4·3은 말한다』1, 전예원, 1994.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 2000.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김인호 譯, 『격동의 세계사를 말한다』, 학고재, 2000.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해설, 정재정 譯,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집문당, 2002.
 야마베겐타로(山邊健太郎)/이현희 譯, 『일제강점하의 한국근대사』, 삼광사, 1998.
 와카쓰키 야스오(若槻泰雄)/김광식 譯, 『일본 군국주의를 벗긴다』, 화산문화, 1996.
 요시다 유타카/최혜주 譯, 『일본의 군대』, 논형, 2005.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2.
 타카하시 노보루(高橋昇),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 : 제주편』,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0.

- 토리야마 스스무(鳥山 進) 외/제주시 우당도서관 편, 『濟州島の 옛 記録 : 1878년~1940년』, 1997.
- 피터 듀스/김용덕 譯, 『일본군대사』, 지식산업사, 2003.
- 김동진, 「濟州人の 3.1運動과 그 영향」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동진 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 국립제주박물관, 2004.
- , 「제주지역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제4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안자코 유카, 「총동원체제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의 전개」 『한국사학보』 제14호, 고려사학회, 2003.
-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濟州島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靑丘學術論文集』 第22集,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 ,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지방사회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